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 일 시 : 2011. 8. 4(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정동(위원장), 김영나, 김영식, 김용수,
김정신, 박문열, 윤경로, 이수자, 장헌덕,
정종섭, 한시준(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 심의	공개
2	「예산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등록 심의	공개
3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앞 진입로 설치 현상변경 심의	공개
4	등록 제406호 「칠곡 왜관철교」 복구를 위한 현상변경 심의	공개

【검토사항】

5	근대음악유물 문화재(2차) 등록 검토	공개
6	「한글 속기교재」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7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 등록 검토	공개

【보고사항】

8	사적 제497호 「이화장」 호우 피해 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근대2011-04-001

1.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 심의

가. 제안사항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근대음악분야 유물 중 음악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등록예고 기간(2011.06.29~07.28)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독립기념관 소장 「애국창가 악보집」 등 3건
 - 심의 대상 목록

명칭	수량	규격(cm), 재질	제작시기	소유자	비고
애국창가 악보집	1	15×22.8, 67쪽, 종이	1916	독립기념관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1	28×35, 4쪽, 종이	1936년 작곡 1949.4.18 사보	독립기념관	
광복군가집 제1집	1	13×18, 16쪽, 종이	1943	한중수	

(3) 주요 추진경과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0.4.8~10.7, 208건 목록화)
-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11.3.1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9건 13점)

- 일 자 : '11.4.15(금), 4.19(화), 4.29(금)
 - 조사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음악평론가 ○○○, 고창문화재연구소 ○○○
 -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검토('11.6.2)
 - 문화재 등록 예고(3건 3점) 가결
 - 등록예고
 - 기 간 : 2011.6.29~7.28(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4.15, 4.19, 4.29)>

- 문화재전문위원 ○○○ 등 5인 의견 : 불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애국창가 악보집」 등 3건의 유물은 근대 음악 관련 유물로서 음악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가결. 「애국창가 악보집」, 「광복군가 제1집」,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로 등록함
- 출석 11명, 찬성 11명

불임 :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보고서 1부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보고서

1. 애국창가 악보집

가. 명 칭 : 애국창가 악보집

나.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59

다. 소유자 : 독립기념관

라. 대상물 개요

○ 분야 : 근대음악(악보집)

○ 수량 : 1점(67쪽)

○ 규격 : 15×22.8cm

○ 재질 : 종이

○ 제작연대 : 1916년

○ 현상

- 1916년 이전 국내외에서 불렀던 애국창가를 집대성하여 하와이에서 재판찬한 등사본 악보집이다. 여러 편의 <애국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등 70여 편의 애국창가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영서원가> 같은 저항용 애국창가가 실려 있고,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악보집은 당시 국내외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현재까지 발견된 애국창가집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원본 애국창가집이라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고 1910년대 당시 조선의 독립과 애국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악곡을 소개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

마. 조사자의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문화재명칭(안) : <애국창가> 악보집

○ 1916년 이전 국내외에서 불렀던 애국창가를 집대성하여 하와이에서 재판찬한 등사본 악보집이다. 여러 편의 <애국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등 70여 편의 애국창가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 당시 한반도에서 애창되었던 노래의 선율(찬송가, 창가, 일본 곡,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 등)에 애국시(愛國詩)를 붙여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인 '애국창가'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 애국창가를 집대성한 가장 오래된 원본 악보집이고 유일한 원본 애국창가집이라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근대음악사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문학사,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하와이 애국창가집>

- 대한제국 후반기에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기원하는 다양한 갈래의 애국가들이 여러 경로로 발표되었고 널리 불렸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제국애국가, 신식 학교의 애국창가, 민간에서 불린 애국가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애국가는 악보집은 물론이고 당시 신문 등에 발표되었다. 여러 갈래의 소통 경로를 갖고 있는 애국가류 가운데 서양식 음구조를 반영한 가창 음악을 ‘애국창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의 자주독립을 기원하는 애국창가집으로 가장 이른 것은 북간도 명동학교(1908년 설립)의 우시욱 선생의 <신찬창가집>이다. 이 창가집은 북간도 민족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국내 애국지사들에게 미쳤고 그 파장도 매우 컸다. 그 결과 이 책은 1913년에 일제에 의해 치안 및 출판법 위반으로 금지 당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일제 강점 이후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을 노래한 애국창가는 조선 내에서 유통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 이후 애국창가집은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간행된 창가집들은 비록 해외에서 만들어졌지만, 국내에서 가창되는 창가들을 다수 신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이주민의 노래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창가들은 조선독립을 위한 범지역적 가창갈래로 이해된다.
- 명동학교의 <신찬창가집>은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현재 <신찬창가집> 이후 해외에서 간행된 애국창가집 중 1910년대 것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둘이다. 하나는 1914년에 만들어진 방대하고 체계적인 창가집인 <최신창가집>, 또 다른 하나는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들어진 <애국창가 악보집>(독립기념관 소장)이다. 전자는 현재 국내에 실물이 전해지지 않고 국가보훈처에서 영인된 것이 전하고 있다. 후자는 독립기념관에 그 실물이 전하는데, 그 표지에 ‘애국창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었던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들어진 창가집(이하 하와이 애국창가집)은 현재 확인된 1910년대 애국창가집 중에서 국내 유일본이다.
- 하와이 애국창가집은 1910년대 간행된 다른 창가집과 비교했을 때, 혹은 1914년에 간행된 애국창가집인 <최신창가집>에 비교하여, 5음 음계로 된 창가를 상대적으로 덜 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창가집이 서구 지역, 즉 미국에서 간행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 창가집에는 <한영서원가> 같은 저항용 애국창가가 실려 있고,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조 화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악보집에는 당시 국내외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사료로서 소중히 다루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이처럼 하와이 애국창가집은 1910년대 당시 조선의 독립과 애국 그리고 일제에의 저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발행자 혹은 간행자의 문화적 상황과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창가집은 음악적으로도 다양하고 풍요로운 악곡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이에 문화재 등록을 제안한다.

< 음악평론가 ○○○ >

- 1916년 하와이에서 발간된 등사본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다시 등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에서도 유사한 책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책의 보존상태, 내용 등으로 보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고창문화재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애국창가 악보집
- 1916년 작으로 가장 오래된 창가집이며 70편 정도의 애국창가가 수록되어 있다.
- 저급한 양지(洋紙)를 사용한 등사본이며 현재의 보관 환경은 좋으나 이전의 보관 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곰팡이(Foxing)가 짙은 갈색 반점처럼 산재해 있으며 장정은 철사끈(스테플러)으로 묶여있다. 네 모서리는 둥글게 마모되었고 장정(연결) 부분은 다소 꺾이거나 찢긴 상태이다.

2.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가. 명 칭 :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나.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59

다. 소유자 : 독립기념관

라. 대상물 개요

- 분 야 : 근대음악(악보)
- 수 량 : 1점(4쪽)
- 규 격 : 28×35cm
- 재 질 : 종이
- 제작연대 : 1936년 작곡, 1949. 4. 18 사보
- 현 상

-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의 자필 악보로 첫 번째 악보는 오케스트라 총보(總譜), 두 번째 악보는 피아노 반주가 붙은 합창보이다. 오케스트라 총보에는 <大韓國愛國歌>라는 이 곡의 원래의 제목이 붙어 있고, 합창보에는 <애국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 첫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관현악 총보로 된 반주보이다. 기악부분만 기록되어 있고, <애국가>의 가창부 즉, 노랫말은 적혀있지 않다. 악보 초두에 <大韓國愛國歌>라고 되어 있다. 기악 반주보는 모두 20마디인데 3장에 사보되어 있다. 두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피아노 반주악보이다. 성악 4성부를 기록한 것이고, 현행 <애국가>의 2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16마디가 적혀있다.
- 1949.4.18. 사보한 것이고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대한민국 <애국가>의 자필 반주악보로서 높은 완성도와 작품으로서의 독창성이 있어 가치가 높다.

마. 조사자 의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문화재명칭(안) :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의 자필 악보로 오케스트라 총보(總譜)와 피아노

반주가 붙은 합창보이다. 오케스트라 총보에는 <大韓國愛國歌>라는 이 곡의 원래의 제목이 붙어 있고, 합창보에는 <애국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 1949.4.18. 사보한 것으로 <애국가>의 자필 악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안익태-두 개의 <애국가> 반주악보>
- 이 유물은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반주 악보들이다. 이 유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주 악보가 남아 있다. 첫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관현악 총보로 된 반주보이다. 기악부분만 기록되어 있고, <애국가>의 가창부 즉, 노랫말은 적혀 있지 않다. 악보 초두에 <大韓國愛國歌>라고 되어 있다. 기악 반주보는 모두 20마디인데 3장에 사보되어 있다. 두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피아노 반주악보이다. 성악 4성부를 악보기록한 것이고, 현행 <애국가>의 2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모두 16마디가 적혀있고, 대략 2/3장에 사보되어 있다. 악보 초두에 한글로 <애국가>라고 써어 있다. 그런데, 이 악보에서는 <애국가>의 노랫말이 적혀있기는 하지만, 절구(絶句)를 무시했다. 안익태는 오선보의 기보 관례를 벗어나 노랫말을 기록해놓았다. 예를 들면, 현행 <애국가> 제1절의 노랫말은 소프라노 성부에 기록했고, 제2절은 알토 성부에 기록했다. 그 결과 이곡의 노랫말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성부 간 다른 노랫말을 동시에 연주하는 듯이 기록해둔 것이다. 이처럼 피아노 반주악보에서 <애국가>의 노랫말을 기보법 상의 옳지 않은 방식으로 기록했고, 그것도 제2절까지만 기록했던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기보법 상 옳지 않은 방식으로 기록한 것은 지면의 활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악보의 용도는 국내용이고 애국가를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이 유물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보지로 사용된 오선용지이다. 오선지의 하단부 끝에는 PARCHMENT BRAND No19-24lines / Printed in U.S.A. / Belwin Inc. New York, U.S.A라고 인쇄되어 있다. 안익태의 음악을 기록한 필사보들 가운데, 위와 같은 오선지를 사용한 경우는 독립기념관 소장 분류번호 1-760-4의 <한국환상곡>이다. 이 <한국환상곡>은 1952년 이전에는 기록될 수 없으므로, 이 필사본의 기록 연대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유물은 <애국가>의 작곡연대로 알려진 1935년 이후에 사보된 것이다.
- 한편, 이 유물은 특정 작품(<한국환상곡>)의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품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유물은 현행 <애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물론 현행 <애국가>의 모태가 출현했던 1937년부터 이 악보가 사보되었던 1950년대 초 이전까지 안익태의 자필악보 가운데 <애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악보에는 ‘大韓國愛國歌’ 혹은 ‘애국가’라는 제목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악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 초 사이의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안익태의 자필 <애국가> 원고가 더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미망인의 유물에는 이 이상의 것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현재로서는 독립 작품으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기록한 안익태의 자필 원고는 이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이 유물은 반주 악보로서는 높은 완성도와 작품

으로서의 독창성을 갖고 있다. 단, 이 유물은 근대 유물이기 보다는 현대유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이 악보는 현대 음악사의 출발점에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현재 국가(國歌)라는 자격이 있다. 비록 안익태는 친일 행위를 했지만, 이상과 같은 뜻에서 적어도 안익태의 이 유물에 한해서는 근대음악분야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현재 이 악보는 한 묶음으로 제본되어 있지만, 등록 시에는 이 유물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개의 반주 악보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 음악평론가 ○○○ >

- 안익태가 한국에서의 연주를 위해서 만든 악보이다. 애국가 악보의 초판본이 1936년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초판본의 악보 초고는 아니다. 이후 필사된 것으로 추측되며 안익태의 자필악보로 추정된다. 자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익태의 감수하에 제작된 것으로 사료 가치가 있다.

< 고창문화재연구소 ○○○ >

- 표지는 남색의 면(綿)천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두껍게 장정되어 있다. 연결부위는 약간 훼손되어 천 밑바탕의 종이가 드러나 있다.
- 고급 양지에 인쇄된 오선보에 펜으로 쓰여 졌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오선보의 노트 하단부에 오선보 노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하단부 왼쪽에 PARCHMENT BRAND No19-24lines / Printed in U.S.A. / Belwin Inc. New York, U.S.A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서 PARCHMENT는 양피(羊皮)지를 뜻하는 것이지만 실제 양의 부드러운 껍질로 제작된 종이는 아니고 양피처럼 곱게 제작된 담황색을 띤 양(良)질의 양지(洋紙, 필프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 장에 24줄의 오선이 인쇄되어 있는 오선보이다.

3. 광복군가집 제1집

가. 명 칭 : 광복군가집 제1집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

다. 소유자 : 한중수

라. 대상물 개요

- 분야 : 근대음악(악보집)
- 수량 : 1점(16쪽)
- 규격 : 13×18cm
- 재질 : 종이
- 제작연대 : 1943년
- 현상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편찬한 광복군가집이다. 한유한이 작곡한 <국기가>, <2지대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 수편의 광복군가를 숫자보로 편찬한 등사본 악보집으로 제1집의 일부만 남아있다. 작사·작곡자가 분명히 기록된 특징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 유일의 광복군가집으로서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군가집이다.

- 한유한(1910-1996, 본명:한형석)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928년 상하이 신화예술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업 후 첫 작품 <신혁명군가>를 작사·작곡한 것이 중국 전군에 보급되었으며 이후 이범석 장군을 만나 10여곡의 독립군가를 비롯하여 일백여 곡을 작곡한 음악가이다.

마. 조사자 의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문화재명칭(안) : 한유한의 <광복군가집 제1집>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편찬한 광복군가집이다.
- 한유한(1910-1996, 본명은 한형석)이 작곡한 <국기가>, <2지대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 수편의 광복군가를 숫자보로 편찬한 등사본 악보집이다. 이 중 <압록강행진곡>은 음악교재로 채택이 되어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 유일의 광복군가집인 동시에 유일한 원본 광복군가집이다.
- 한국음악사에서 미개척 분야인 광복군가 연구에 있어 결정적인 사료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 >

- 문화재명칭(안) : <광복군가집>
- 한유한(본명:한형석 1910-1996)은 5살 때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928년 상하이 신화예술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중국 산둥성의 한 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첫 작품 '신혁명군가'를 작사·작곡했다. 이 군가는 중국 전군에 보급됐으며 이후 그는 이범석 장군을 만나 10여 곡의 독립군가를 비롯, 100여 곡을 작곡했다.
- <광복군가집>은 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에서 편찬하여 전 광복군에 보급하였던 광복군가집이다. 모두 2집까지 편찬되었으나 현재는 제1집의 일부만 남아 있다. 체제는 초보자가 쉽게 익힐 수 있는 간단한 숫자보로 되어 있으며, 작사 및 작곡자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 이 광복군가집은 근대 한국음악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복군가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집으로 평가되며, 유일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현재 열악한 보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창문화재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한유한의 광복군가집
- 1943년 작으로 다른 군가와 달리 작사자와 작곡가가 명기되어 있다.
- 오선악보가 아닌 숫자로 고저장단이 표시되어 있으며 저급한 양지(洋紙)에 등사판으로 밀어서 제작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인쇄가 뚜렷하지 않으며 인쇄가 번진 곳은 글씨의 구분이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열악하고 급박한 정황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전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접혀서 두 겹으로 구성된다.
- 녹슨 클립 자국이 몇 군데 있으며 빨간 펜으로 밑 줄 표시가 군데군데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연필로 장 수가 적혀 있는 등 보충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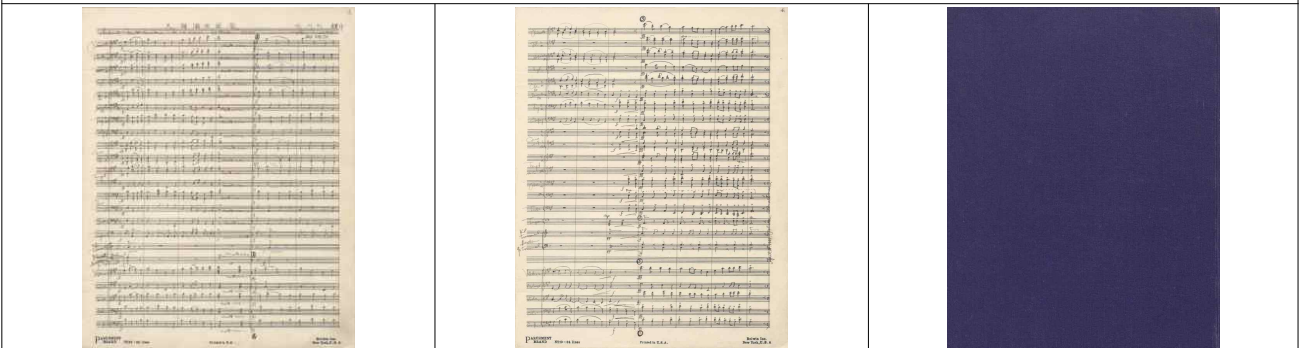
- 보관상태가 열악하여 얼룩이 많고 모서리 부분은 접히고 꺾인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지질은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보존·보관이 시급한 상태이다.

4. 유물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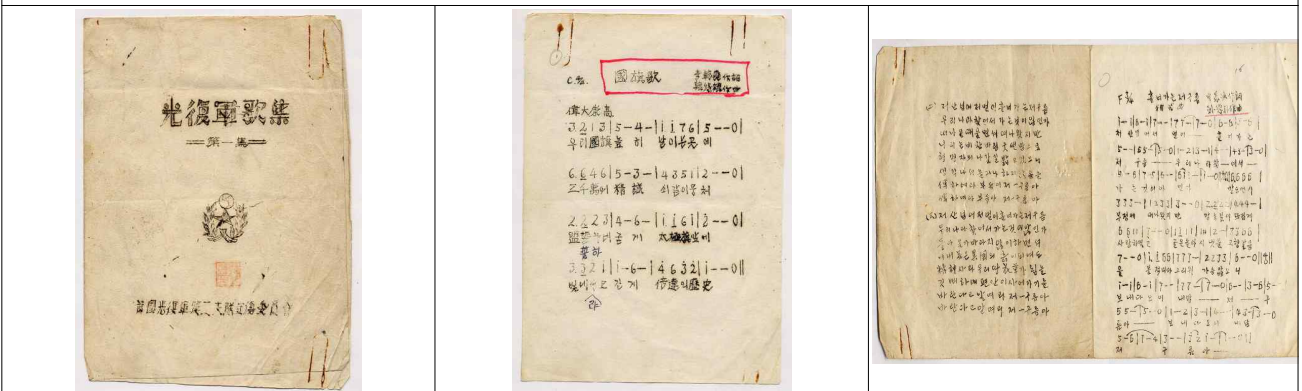
1. 애국창가 악보집



2.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3. 광복군가집 제1집



2. 「예산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등록 심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소재 수덕사의 만공탑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1.2.8)된 「예산 수덕사 만공탑」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예고기간(2011.06.29~07.28)을 거쳐 문화재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제7교구본사수덕사
- (2) 대상문화재
 - 명칭 : 「예산 수덕사 만공탑」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1-1
 - 수량 : 1기
 - 규모 : 높이 3.1m, 너비 2.41m, 난간석 너비 3.76m
 - 면적 : 17.2m²
 - 종류 : 기념탑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제7교구본사수덕사(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1)
 - 조성시기 : 1947년(탑 부분), 1968년 이후(난간 부분)
- (3) 주요추진경과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4.4)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경원대 교수 ○○○, 전남대 교수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검토('11.6.2)
 - 「예산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등록 예고 가결
 - 등록예고
 - 기간 : 2011.6.29~7.28(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심의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4.4) >

○ 문화재위원 ○○○ >

-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7년 세운 석탑이다. 평면과 입면에서 다양한 기하학적 구도를 볼 수 있고 입면석은 병풍석같이 삼면으로 펼쳐져 있으며 상부의 구형(球形) 돌 조각은 조형미가 돋보이며 둘러 친 난간석은 탑과 조화를 이룬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

○ 경원대 교수 ○○○

- 전통적 승탑(부도)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으로 조성한 20세기 최초의 사리탑 계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종교성을 감안하면서도 현대적 조형성을 가미한 선구적 사례로 역사적 평가를 할 만하고 근대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높은 바,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전남대 교수 ○○○

- 이 조형물은 불탑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고승대덕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공덕탑으로서 현대미술적 작품의 우수성은 인정하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 상근전문위원 ○○○

-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근대기 최고승의 탑이라는 점, 그리고 20세기 새로운 양식의 승탑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근대문화재과 의견 >

○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 수호를 위해 헌신한 근대기의 고승을 기념하기 위한 탑으로서 현대적 조형성을 지닌 선구적 사례로 근대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가결. 「예산 수덕사 만공탑」으로 등록함

○ 출석 11명, 찬성 11명

붙임 예산 수덕사 만공탑 조사보고서('11.4.4) 1부

예산 수덕사 만공탑 조사보고서('11.4.4)

1. 명 칭 : 예산 수덕사 만공탑

2.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1-1

3.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제7교구본사수덕사(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1)

4. 대상물 개요

○ 수 량 : 1기

○ 조성시기 : 1947년(비 부분), 1968년 이후(난간 부분)

○ 종 류 : 기념탑(부도의 성격을 지나나 사리는 봉안되지 않음)

○ 규 모 : 높이 3.1m, 너비 2.41m, 난간석 너비 3.76m

○ 면 적 : 17.2㎡(탑신 면적 5.5㎡, 난간까지의 면적 7.5㎡, 기단석 면적 17.2㎡)

5. 주변 입지

○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수덕사는 대웅전(국보 제49호)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찰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금강문, 사천왕문이 있고 그 옆에 2층 누각인 황하정루(지하는 근역성보박물관)가 있으며, 중앙 통로를 따라 축대 위로 오르면 대웅전에 이른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전각이 위치하는데 우측에 명부전, 앞쪽 좌우에 백련당, 청련당이 위치하고 있다. 산내 암자인 견성암(見性庵)을 비롯하여 금선대(金仙臺), 환희대(歡喜臺), 만공탑(萬空塔) 등이 있다.

○ 한말에 경허(鏡虛)가 이곳에 머물면서 선풍(禪風)을 일으켰고 1898년에 경허의 제자 만공(萬空)이 중창한 뒤 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현재 우리나라 4대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德崇叢林)이 있어 많은 수도승이 정진하고 있다.

○ 수덕사로부터 덕숭산 정상 방향으로 도상거리 550m 지점에 위치한 만공탑은 만공스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세운 것으로, 제자 중은스님이 당대에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한 기념탑이다.

6. 인물 현황

○ 만공스님(1871-1946)

- 속명은 송도암(宋道巖), 법호는 만공(萬空), 법명은 월면(月面)이다. 전라북도 태인에서 부친 송신통과 모친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3년 13세 때 김제 금산사에서 불상을 처음 보고 크게 감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주 동학사로 출가하여 진암(眞巖) 문하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경허스님을 따라 서산 천장사로 와서 태허(泰虛)스님을 은사(恩師)로 경허스님을 계사(戒師)로 사미십계를 받고 법명을 월면이라 하였다.

- 덕숭산에 와서 금선대(金仙臺)를 짓고 수년간 정진하며 수덕사, 정혜사, 견성암을 중창하고 일제강점기에 선학원(禪學院)의 설립과 선승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선우공제회운동(禪友共濟會運動)에 지도자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31본산 주지회의에 참석하여 조선 총독 미나미에게 직접 일본의 한국 불교정책을 힐책하였는데 이는 일제 치하의 치욕스런 불교정책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년에는 덕숭산 정상 가까이 전월사(轉月舍)라는 초가집을 짓고 지내다가 1946.10.20. 나이 75세에 입적하였다.

○ 작가 중은스님(1909년경-1951년경)

- 만공(萬空)의 제자. 일본 동경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지나 사찰에서도

본명을 알 수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사회주의 활동으로 인해 한국전쟁 중에 대전 교도소에서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기념탑 현황

- 만공탑은 육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괴임돌을 놓았다. 원형의 괴임돌 위에는 다시 부드럽게 모접이를 한 세 개의 기둥을 평면 Y字 형태로 세우고, 그 위에 큼직한 원상(圓相)을 올려놓았다. 기둥 세면의 빈 공간에는 따로 조성한 오석(烏石)으로 면석을 끼워 넣고 비석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면석의 정면에는 한글로 ‘만공탑’이라 탑명(塔名)을 음각하였고, 좌우측 면석에는 ‘世界一花’(세계일화), ‘百艸是佛母’(백초시불모)를 비롯한 만공스님의 친필과 행장(行狀), 법훈(法訓) 등이 새겨져 있다. 탑 주위는 육각의 돌난간을 둘렀는데, 1968년에 촬영한 사진자료에는 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1968년 이후 만공탑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 사찰측은 만공탑의 제자(題字)가 불교와 관련된 것 중 한글이 사용된 최초의 기념탑(부도)이라 하나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 기념탑 원문

[좌측면 비문]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

滿空大禪師
法名은 月面이요 俗姓은 礪山 宋氏로 檀紀四千二百四年 辛未¹⁾陰三月七日寅時에 全羅北道 泰仁邑에서 誕生하시니 十四歲에 入山하시니 二十五歲에 悟道하신 後 鏡虛禪師의 法脉을 이으샤 많은 佛事를 이룩하시니 모든 衆生을 濟度하시다가 世尊應化二千九百七十三年 丙戌²⁾ 陰十月二十一日에 涅槃하시니 스님의 法恩을 입은 者 힘을 습하여 이 塔을 쌓어 모시다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 丁亥³⁾十月 望

滿空스님 法訓」

사람이 萬物 가운데 가장 貴하다는 뜻은 「나」를 찾아 얻는데 있느니라」佛法은 理論이나 思量으로 아는 道理가 얹이니라」虛空이 가장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物心이라면 宇宙의 總稱인줄 알지마는 宇宙의 正體는 따로 있느니라」나의 法門 못 듣는 것이 나의 臨終偈니라」

[우측면 비문]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

世界一花⁴⁾ 權花筆⁵⁾ 滿空(낙관)

百艸 是佛母⁶⁾

三菩提者 是甚磨⁷⁾

갈쌀보리 봄쌀보리 룩모보리니라

滿空月面漏

千思不如一行⁸⁾

1) 단기4204년 신미는 서기 1871년에 해당

2) 불기 2973년 병술은 서기 1946년에 해당

3) 불기 2974년 정해는 서기 1947년에 해당

4) 世界一花 :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즉, 너와 나, 해와 달, 하늘과 땅, 공기와 물이 둘이 아니며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

5) 權花筆 : 무궁화 꽃으로 글을 썼다는 뜻

8.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 >

-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7년 세운 석탑이다. 평면과 입면에서 다양한 기하학적 구도를 볼 수 있다. 입면석은 병풍석같이 삼면으로 펼쳐져 있다. 상부의 구형(球形) 돌 조각은 보기 드문 조형미가 돋보인다. 만공탑을 둘러 친 난간석은 탑과 조화를 이룬다.
- 만공의 제자 스님이 해방 직후 만든 탑으로 시기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제작 스님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

< 경원대 교수 ○○○ >

- 만공탑은 전통적 승탑(부도)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으로 조성한 20세기 최초의 사리탑 계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만공탑은 3개의 기둥이 모여 보름달 같은 구체(球體)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구체는 만공스님의 법호인 월면(月面)을 의미하며, 3개의 기둥은 삼보(三寶)를, 육각기단은 육바라밀을 상징한다고 한다. 도력이 높았던 고승의 정신세계를 단순한 구조로 집약했으며, 이같은 단순미와 더불어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통해 현대적 감각을 자아냈다. 이러한 조형성은 마치 현대 추상작품의 조형의지와 맥락을 함께할 정도로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 정면 면석에 한글로 각인한 '만공탑'은 한자(漢字)의 시대에 한글로, 그것도 근래의 컴퓨터 자체(字體)인 듯 현대감각을 살렸다는 점에서도 만공탑의 선진성을 확인하게 한다. 탑의 후면은 만공스님의 '世界一花'같은 친필이 새겨져 있다. 이 글씨는 해방직후 붓 대신 무궁화 꽃봉오리로 쓴 것(槿花筆)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세계 일화는 그야말로 세계는 하나라는 뜻으로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친필 글씨로 '百艸是佛母' 같은 내용도 있어 탑의 건립 의미를 높여주기도 한다.
- 만공탑은 만공스님의 사리탑에 해당하는 조형물이다. 사리탑이라 칭하지 않고 만공탑이라고 명명한 것은 수덕사 문중의 독특한 풍습에 기인한다. 덕숭산 수덕사 문중은 다비식에서 사리를 수습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때문에 만공 사리탑의 경우, 사리를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공탑이 사리탑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 만공탑을 제작한 작가는 만공스님의 제자인 박중은 스님이다. 중은 스님은 출가 이전에 동경의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작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수덕사 소장 방함록에 의하면 중은 스님은 늦게 출가한 바, 1946년 37세의 나이로 선원(禪院)안거(安居)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고, 1950년 동안거까지 동참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수덕사에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하면, 중은 스님은 6.25전쟁 당시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고, 전쟁의 와중인 1.4후퇴 당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덕사박물관 정암 관장 전언). 중은 스님은 재주가 비상하고 박학다식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출가사문으로 수덕사에서 지낸 기간은 불과 5년 미만이었고, 특히 만공스님 문하에서 지낸 기간은 큰스님 만년의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6) 百草是佛母 : 백가지 풀이 모두 부처의 어머니이다. 즉,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

7) 三菩提者 是甚磨 : 3가지 보리라는 것이 무엇이나

8) 千思不如一行 : 천 번 생각하는 것은 한번 실천에 옮기는 것만 못하다

미술학교 출신답게 중은스님은 스승 만공스님의 정신을 획기적 조형물로 표현하는 진취성을 보여주었다.

- 만공탑이 보여준 창의성은 전통 사찰에서 하나의 범본이 되었다. 3대사찰의 하나인 해인사의 경우도 만공탑을 하나의 참고 선례로 삼았다. 20세기 한국이 낳은 고승 성철스님의 사리탑을 봉안할 때이다(1998). 성철 사리탑은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작품의 성격은 모방이 아닌 전통의 계승, 청빈사상, 올곧은 수행정신의 표현, 우리 시대의 독창적 조형물 등으로 삼았다. 이같은 정신은 뒤에 재일작가 최재은의 작품에 반영되어 시공되었다. 사리탑은 상륜부를 생략하고 커다란 구체를 반원형의 기단이 떠받치고 있는 매우 단순한 형상이었다. 현대작가가 사리탑을 설계했다는 자체부터 불교계는 물론 미술계에까지 화제에 올랐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건립 당시 사리탑의 상륜부 없음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사리탑 봉안을 주관했던 원택스님은 이렇게 답변했다. "상륜부 하시지만 50-60년 전에 벌써 만공 큰스님의 부도탑에서 상륜부를 없앴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변하고 있는데 왜 옛 것에만 매달려야 합니까?"(원택 지음,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참조). 이를 보면 현대식 성철 사리탑 건립에 만공탑이 좋은 선례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같은 창의성과 현대화에의 의지는 성철 사리탑 바로 아래 건립한 일타 사리탑으로 이어지는 사례로도 발전되었다(2008). 일타 대종사 사리탑은 작은 규모의 단순 사각형 석물의 네 군데에 사자 모습을 새긴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현대조각을 전공한 작가에 의해 건립된 일타 사리탑은 현대조형물로 손꼽힐만한 작품이기도 하다.
- 만공탑은 전통 사찰의 전통적 승탑(부도) 양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에 의한 새로운 사리탑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는 종교성을 감안하면서도 현대적 조형성을 가미한 선구적 사례로도 역사적 평가를 할 만하다. 만공탑은 근대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높은 바,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전남대 교수 ○○○ >

- 이 조형물은 불탑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고승대덕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공덕탑이라 할 것이다. 이 조형물은 만공스님이 추구한 불교사상을 기념비적 탑을 통하여 현대미술적인 상징성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 현대 미학적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부재 상호간의 비례와 구성요소들이 적절히 조합되고 구성되며, 전체와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 특히 기념비와 기념탑적인 성격이 하나의 개체에 혼합되어 완성을 이루고 있어서 승려들의 탑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제작기법을 일탈한 새로운 실험적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으며 이를 지정할 준거가 무엇인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건립연대가 낮고, 너무 현대적 조형성을 지니며, 근대기에 활동한 승려의 행적을 숭양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예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미술의 입장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 상근전문위원 ○○○ >

- 만공(滿空)스님(1871-1846)은 근대 선(禪)의 중흥조라 일컫는 사승(師僧) 경허(鏡虛)의 선풍을 계승한 근대기 한국 불교의 고승이다. 그는 1871.3.7. 전라북도 태인군 태인읍 상일리에서 아버지 여산(礪山) 송씨(宋氏) 신통(神通)과 어머니 김씨(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4.12.8. 서산 천장사(天藏寺)에서 태허(泰虛)를 은사로, 경허를 계사(戒師)로 사미계(沙彌戒)를 수지하고 법명을 월면(月面)이라 하였다. 1895년 7월 동쪽 벽을 의지한 채 서쪽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없어지면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오(大悟)하였다. 오도(悟道) 후 보임(補任)기간에도 그의 진리에 대한 탐구가 더욱더 성숙되면서 1904.7.15. 계사인 경허로부터 드디어 인가(印可)와 함께 전법계(傳法偈)를 받았다. 이때 만공(滿空)이란 호를 하사받고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도록 부촉(咐囑)받았다. 전법(傳法)을 부촉받은 만공은 1905년 봄에 송덕산(德崇山)에 이르러 조그만 모암(茅庵)을 짓고 금선대(金仙臺)라 이름 하였다. 여기서 40여 년간 제산(諸山)의 납자(衲子)들을 가르치어 용상대덕(龍象大德)을 배출하였다. 1936년에는 퇴락한 수덕사 대웅전을 4년에 걸쳐 해체, 복원하고 덕숭산 중턱에 거대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였다. 또 수덕사의 산내암자인 정혜사에 능인선원(能仁禪院)을 열고 일제강점기 아래 한국 선종의 중흥지로 삼았다. 그는 특히 한국 최초의 비구니 선원(禪院)인 견성암(見性庵)을 건립하여 한국 비구니 수도의 본산이 되게 하였다. 말년에는 덕숭산 동편 산정에 전월사(轉月寺)를 지어 달과 더불어 지내다가 1946.10.20. 입적하였다. 이때 세수 75세이며, 법랍 62년이였다. 그는 일제의 불교정책에 따른 한국불교의 변질과 왜색화(倭色化)를 바로잡고 계율을 회복하고 전통 선맥(禪脈)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선학원 창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선학원의 수도부이사(修道部理事)와 이사장(理事長) 그리고 종정(宗正)을 역임하여 선풍 진작과 대중화에 힘썼다.
- 만공탑은 만공월면(滿空月面)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로 동경의 미술학교 출신 박중은(朴重隱) 선사(禪師)가 1947년에 건립한 것이라고 전한다. 이 탑은 전통적인 승탑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불교의 교리와 만공스님이 추구한 사상을 현대적 조형 감각을 통해 구현한 탑인데, 사리를 모시지 않는 덕숭산문(德崇山門)의 전통에 따라 이 탑은 만공스님의 높은 가르침을 받들고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법사리탑(法舍利塔)으로 볼 수 있다.
- 만공탑을 이루고 있는 각 부재는 불교의 교리와 만공스님이 추구한 사상적 경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육각기단은 육바라밀(六婆羅蜜: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을, 세 개의 면석과 기둥은 불교의 삼보(三寶:佛, 法, 僧) 또는 삼법인(三法印:諸行無常, 諸法無我, 涅槃寂靜)을, 상부에 얹힌 원상(圓相)은 만공월면(滿空月面)의 법신(法身)이자 그가 추구했던 불교의 절대 진리로서의 원(圓)일 것이다. 현재 비슷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띤 승탑의 사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1993년 11월에 입적한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식(善知識) 성철(性徹)스님 탑(塔) 제작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승탑은 통일신라 9세기에 출현하여 각 시대마다의 양식과 사상을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보수적인 종교미술에서 하나의 양식이 탄생해 유행하는데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공탑은 향후 20세기나 21세기의 시대 분위기를 흠뻑 담은 승탑(僧塔)의 조형(祖型)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만공탑은 불교의 교리와 만공 월면이 추구한 사상을 탑이라는 조형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보수적인 종교미술임에도 불구하고 형식면에서 전혀 없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조형적으로도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감 있는 비례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 이 만공탑은 탑과 비가 하나로 구성된 일체형 승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탑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탑신에 스님의 행장을 새겨 넣는 방식은 조선후기 승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만공탑은 이러한 전통적인 기반 하에 동경에서 신미술사조를 접하고 돌아온 박중은 선사기 앞선 시기의 승탑 양식을 과감히 버리고 20세기다운 조형세계를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이 탑은 이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철스님 탑 제작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만큼, 20세기의 시대정신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된다. 탑과 함께 탑의 주인공인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倭色佛敎)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근대기의 고승(高僧)이라는 점도 더불어 평가되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 탑은 근대기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근대기 최고승의 탑이라는 점, 그리고 20세기 새로운 양식의 승탑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黃貞洙, 「鏡虛·滿空의 思想的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김경집, 「滿空 月面의 사상과 활동」, 『불교학연구』 12, 불교학연구회, 2005.12.
 - 李炳熙, 「日帝强占期 修德寺의 禪風振作과 滿空」, 『湖西史學』 41, 호서사학회, 2005

9. 유물 현황사진



3.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앞 진입로 설치 현상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목포시 소재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앞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구 목포일본영사관」 앞 화단에 계단을 설치하고자 한 사항으로 화단의 수군절도사 신공비 및 만호방공 치적비와 전 시장 송덕비 등 총 6기의 비석 이설 및 계단설치, 도로정비를 하고자 하는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 : 구 목포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3) 신청내용
 - 사업내용
 - 도로정비 150m
 - 비석이설 6기(수군절도사 신공비 1기, 만호방공 치적비1기 , 송덕비 2기, 임광행 보해양조회장 공덕비 1기)
 - 계단설치 10m
 - 수목정비 1식
 - 위치 : 문화재보호구역과 10M 이격(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 (4) 심의사항 : 진입도 정비 및 비석 이설 등 심의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 계획 원안대로 검토함

- 수군절도사 신공비와 만호방공 치적비는 당초 목포진에 위치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영사관 뒤뜰에 묻혀 있던 것을 광복 후 현 위치에 옮겨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두 비는 임시로 근대 역사관 건물에 전시하였다가 목포진 복원공사(2003~2015) 완료 후 목포진에 이설 계획임
- 기타 4개비는 전 시장 송덕비와 보해양조 임광행회장 공덕비 등으로 화단 아래 인도 옆에 이설 계획임
- 수목정비 내용은 진입로에 위치한 수목을 주변으로 이식하고 영사관 건물 주변의 수목을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것이며, 아스콘 포장은 기존 진입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사항임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
 - 계단 설치 필요성 및 직선동선의 경관 측면을 검토
 -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함
- 출석 11명, 찬성 11명

4. 등록 제406호 「칠곡 왜관철교」 복구를 위한 현상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등록 제406호 「칠곡 왜관철교」 복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1년 6월 25일 등록 제406호 「칠곡 왜관철교」가 호우로 인하여 교각 1기 및 상판(강트러스 포함)이 유실되어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허가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2) 대상문화재 : 칠곡 왜관철교(등록 제406호)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 교량재원 : 1905년 가설 / 인도교로 사용 중
 - 연 장 469m, 폭 4.5m, 교각 9기, 상판 10경간, 트러스교
- (3) 신청 내용
 - 목 적 : 유실된 교각1기 및 탈락된 상부트러스를 복구하기 위함
 - 사업규모 :
 - 유실된 교각 1기(P2) 복구
 - 탈락된 상부 트러스(1,2경간) 126m 및 상부 콘크리트 바닥판 포장 (690㎡)
 - 사업내용 : 탈락부분 해체 및 교각, 트러스 재설치

구 분	내 용
기본방향	원 구조물의 자재를 가능한 한 유용하여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

상부 트러스	재사용 가능한 부재는 보수 후 재사용하며, 녹으로 인한 단면 감소·충격으로 인한 좌굴 및 파손·유실 등에 의해 재사용이 불가할 경우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제작
교각	탈락된 화강석을 최대한 재사용하여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
기초	P3~P6과 동일한 형식으로 복구

(4) 심의사항 : 철곡 왜관철교 복구공사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1차 현지조사('11.7.1.)>

- 문화재 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 복구는 적법 절차에 따르고,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 문화재 복구 시 상부 트러스 등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기록화 철저
 - 철교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 훼손되지 않은 하부교각 기초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조사 및 보강토록 하고, 훼손된 교각 기초는 재시공

<관계전문가 2차 현지조사('11.7.19.)>

- 문화재 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동아대학교수 ○○○

1. 기록화작업 실시범위 대상

- 본건 관련사고, 해체, 복원과정에 대한 기록만 추진
-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록화는 별도로 추진
- 해체, 복원의 전 과정은 문화재등록업체 입회하에 기록, 사진촬영 유지

2. 구 왜관철교 해체 및 복구 관련

- 물속에 장기방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조속한 해체 작업 및 복구
- 구조물의 시급성 및 안전성 고려
- P1은 기초 지반에 대한 보완/ P2는 P3~P6과 동일한 양식으로 복원
- 교각 : 화강석 석재를 최대한 회수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복원
- 트러스 : 수직재가 주요부재, 가능한 한 손상을 최소화 할 것
- 부재 절단 최소화(15~20m 규모)
- 교량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복구할 것
- 상현재, 하현재 등 변형자재도 최대한 유용
- 시공사 해체안은 재사용이 곤란함
- 볼트이음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보완(용접 사용 가능)
- 바닥판 투명 상판 사용은 복구완료 후 지차제에서 별도 진행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현상변경 가결
- 출석 11명, 찬성 11명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1-04-005

5.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2차) 검토

가. 제안사항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근대음악분야 유물 중 음악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검토회의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등 5건(4점 2식)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소유자	비고
1	빅타레코드 금속 원반	1식 (586매)	지름25cm,17cm	1935- 1945	(주)로엔엔터테인먼트	
2	찬양가	2점	14.5×21cm	189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5×21.7cm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3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1식 (51매)	14×20×2cm	1930	단국대학교	
4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1점	15×23cm, 234쪽	1935	단국대학교	
5	배재학당 피아노	1점	146.3×98×168cm	191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 주요 추진경과

- '10.4.8~10.7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208건 목록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1.3.10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11.4.15~4.29 근대음악유물 1차 문화재 등록조사(5개소, 9건)
 - '11.6.2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검토
 - '11.6.29~7.28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예고(3건)
 - '11.6.15~6.29 근대음악유물 2차 문화재 등록조사(7개소, 10건)
 - 조사일 : 6.15(수), 6.16(목), 6. 29(수)
 - 조사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 동원대학교 부교수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고창문화재연구소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11.7.21 근대음악분야 문화재 등록(2차) 검토회의
 -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등 5건(4점 2식)을 문화재 등록예고 검토
- (4) 검토사항 : 근대음악 관련 유물 5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예고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6.15,6.16,6.29)>

- 문화재전문위원 ○○○ 등 6인 의견 : 불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등 5건의 유물은 근대 음악 관련 유물로서 음악 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4건 4점) 가결
 -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찬양가」(연세대학교 소장본),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배재학당 피아노」
 -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는 제외함(추후 검토)
- 출석 11명, 찬성 11명

불임 :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2차) 보고서 1부

<붙임>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2차) 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근대음악분야 유물 중 음악사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고자 함
- 근대음악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해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을 제고함

2. 추진경과

- '08.5.22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조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0.4.8~10.7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208건 목록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1.3.10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11.4.15~4.29 근대음악유물 1차 문화재 등록조사(5개소, 9건)
- '11.6.2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검토
- '11.6.29~7.28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예고(3건)
- '11.6.15~6.29 근대음악유물 2차 문화재 등록조사(8개소, 10건)
- '11.6.29~7.28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예고(3건)
- '11.6.15~6.29 근대음악유물 2차 문화재 등록조사(7개소, 10건)
- '11.7.21 근대음악분야 문화재 등록(2차) 검토회의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등 5건을 문화재 등록예고 검토)

3. 조사개요

가. 조사일자 : 2011.6.15(수), 6.16(목), 6.29(수)

나. 조 사 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동국대학교 교수 ○○○
- 동원대학교 부교수 ○○○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고창문화재연구소 ○○○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다. 조사내용 : 관계자 인터뷰, 음악유물 실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등

4.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가. 근대음악유물 목록화 조사용역 ('10.4.8~10.7,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우리나라 근대음악사 개관 및 연혁, 근대음악유물 현황 실태조사
- 자필악보류, 악기류, 서적류, 음반류 등 208건 목록화

나. 조사대상 선정

- '10년 목록화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사대상 9건 선별)
- 현지조사 대상 조정(9건→10건)
 - 희소가치 부족 유물 조사대상에서 제외(2건) : 통속창가집, 신유행창가
 - 추가 조사(3건) : 찬송가, 동요 인쇄원판, 음악만필 자필원고
 - * 1차 현지조사 시 제시된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

다. 조사방법

- 유물의 외형·구조 및 보존실태 등을 현지조사, 용역결과와 비교 검토
- 소장처 관련자와 출처, 소장 경위 등 인터뷰 및 추가자료 수집·연구

5. 등록기준(안)

- 근대음악 유물 중 음악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상징성이 크며 희귀하거나 유일한 것
- 한국 근현대 음악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 민족의 애환을 반영하고 민중과 함께 하는 '민족 음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6.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 및 일자

소장처	일자	수량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11.6.15(수)	1건 1점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1건 1식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1.6.16(목)	2건 2점	찬송가, 찬양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	2건 2점	찬양가, 콩쥐팥쥐
독립기념관		1건 1점	안익태 첼로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11.6.29(금)	3건 (2점, 1식)	홍난파 바이올린 홍난파 동요악보원판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1건 1점	배재학당 피아노
계 7 개소	3일간	10건 (9점, 2식)	

나. 조사자 검토의견 종합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도	소유자	조사자의견					
						민경찬	배연형	부길만	권도희	송정주	이장직
1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1	27×34cm	미상	국립 중앙박물관	×	-	-	○	○	-
2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1식 (36매)	지름 25cm, 17cm	1935- 1945	(주)로엔 엔터테인먼트	○	○	-	○	-	-
3	찬양가	1	14.5×21cm	189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	-	×	×	-	-
		1	15×21.7cm	1894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	-	○	○	-	-
4	찬송가	1	15×22.5cm	1909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	-	×	○	-	-
5	콩쥐팥쥐	1	18×26cm, 67쪽	1940 년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	-	×	○	-	-
6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1식 (51매)	14×20×2cm	1930 이전	단국대학교	○	-	-	○	-	○
7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1	15×23cm, 234쪽	1935	단국대학교	○	-	-	×	-	○
8	안익태 첼로	1	121×43×13.5cm (뒷판 69.0cm)	1766	독립기념관	×	-	-	×	-	○
9	홍난파 바이올린	1	60×21×4cm (뒷판 33.5cm)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	-	×	-	△
10	배재학당 피아노	1	146.3×98×168cm	191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	-	○	-	○

7. 근대음악분야 문화재 등록(2차)조사 검토회의

가. 회의일시 : 2011. 07. 21(목) 14:00~16:00

나. 참석자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 ○○○)
- 음악분야 전문가 (○○○, ○○○), 문화재전문위원 (○○○, ○○○)
- 근대문화재과 (○○○, ○○○, ○○○)

다. 주요내용

-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검토
- 등록 대상 유물 선정

라. 검토결과

○ 근대음악 유물 중 등록 검토 대상유물 선정 (5건, 4점 2식)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소유자	비고
1	빅타레코드 금속 원반	1식 (586매)	지름25cm,17cm	1935- 1945	(주)로엔엔터테인먼트	
2	찬양가	2점	14.5×21cm	189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위원회 현물 검토
			15×21.7cm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3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1식 (51매)	14×20×2cm	1930 이전	단국대학교	
4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1점	15×23cm, 234쪽	1935	단국대학교	
5	배재학당 피아노	1점	146.3×98×168cm	191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근대악기 전반 조사필요

8. 유물별 주요특징 및 가치

가.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 분 야 : 근대음악(악보)
- 명 칭 :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 소 유 자 : 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점
- 규 격 : 가로(접었을때 27.5cm, 폼을때 55cm)×세로34cm
- 재 질 : 종이(양지)
- 제작년도 : 미상
- 현 상
 - 안익태가 작곡한 대한민국 애국가의 자필악보로 표지에는 'KODALY ZOLTAN MAGYAR NEPZENE'라고 적혀있으며, 악보 초두에 <KOREAN NATIONAL HYMN>라고 되어 있음
 - 첫 번째 악보는 애국가에 대한 관현악 총보로 된 반주보로 모두 20마디인데, 모두 3장에 사보되어 있음. 두 번째 악보는 애국가의 피아노 반주악보로 성악 4성부와 피아노 반주부를 사보한 것으로 현행 애국가의 2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총 15마디임

- 독립기념관 소장 중인 이본(異本) <대한국애국가>와 비교시 제6마디 “보호하사” 부분의 한마디가 누락되어 있고, 사보일자가 적혀있지 않음
- 독립기념관 소장 <대한국애국가>(大韓國愛國歌)(등록예고 중) 과의 비교

구 분	애국가(국립중앙박물관)	대한국애국가(독립기념관)	비 고
용 도	관현악 총보(20마디), 피아노 반주용 악보(15마디)	관현악 총보(20마디), 피아노 반주용 악보(16마디)	
제목 및 작곡가명 가사 표기	로마자/ 한글	한자/한글	
사보상태	매우 양호	양호	
사보일자	미상	1949. 4. 18	
악보의 차이점	피아노 반주용 악보(15마디) “보호하사”부분 누락	피아노 반주용 악보(16마디) “보호하사”부분 명기	
사보용지	동일(PARCHMET BRAND No.19-24 lines Belwin Inc. New York, U.S.A).		

나.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 분 야 : 근대음악(음반)
- 명 칭 :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 소 유 자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
- 수 량 : 1식(586매)
- 규 격
 - 일련번호 1~554(554매) : 지름 25cm(10인치 규격반)
 - 일련번호 555~586(32매) : 지름 17cm(8과1/2인치 아동용 레코드)
- 재 질 : 금속
- 판 종 : 빅타 주니어 레코드(Victor Junior 혹은 대중반, 보급반)
- 제작연대 : 1935~1940년
- 제 작 처 :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사
- 현 상
 -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사는 1928-1945년 일제강점기 말까지 약 1,005장(추정) 가량의 한국 유성기음반을 발매하였음. 이 가운데 주니어반을 찍던 금속원반 586매가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주)서울 미디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음
 - 이 유물에는 전통음악, 대중음악 등이 포함됨. 특히 빅타판 춘향전전집은 판소리사의

불후의 명연에 속하는 녹음으로 꼽히며, 그밖에도 당대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장르가 취입되어 있음

- 원래 유성기음반을 생산하던 일본 빅타 레코드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1992년 일본 빅타(JVC)회사에서 마스터 원반을 정리·폐기하는 과정에서 한국 음악 원반을 당시 이 회사와 제휴하고 있던 (주)서울음반(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것임. 구 (주)서울음반에서는 이 원반을 이용하여 1992년 4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총 24종의 전통음악, 대중가요 등을 CD로 복각하여 빅타 원반시리즈를 발매하였는데, 잡음이 없는 양질의 음원이 복각됨으로써 유성기음반의 복원에 큰 기여를 함
- 이 유물은 유성기음반의 음원이란 측면에서 당대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되며, 이것을 제작한 곳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레코드 회사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음악은 한국인이 노래한 한국의 음악이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대중문화의 초기 발전과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임

- 붙임 1.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목록
- 2. 빅타 원반 시리즈 목록

다. 찬양가

- 분 야 : 근대음악(악보집)
- 명 칭 : 찬양가
- 소유자, 소재지, 수량 및 규격

구 분	소 유 자	소 재 지	수 량	규 격	비 고
1	송실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1점	가로14.5×세로21cm	표지 및 속지 보존처리
2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점	가로15×세로21.7cm	
계			2점		

- 재 질
 - 송실대본 : 종이로 된 표지에 끈을 밖으로 노출시켜 제본
 - 연세대본 : 요철로 꽃무늬가 있는 검은색 종이 표지에 제본용 끈이 보이지 않도록 안에서 묶음
- 형 식 : 양장본
- 발 행 처 : 예수성교회당
- 제작연대 : 1894년
- 현 상

-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가 1894년에 발행한 찬송가집으로 4성부(四聲部)로 악보가 실린 우리말 찬송가임. 1894년 '예수성교회당'에서 간행하였으며 인쇄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했고, 판매보급은 삼문출판사에서 함
- 모두 117장의 노래 중 88곡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1894년 초판 이후 1895년(재판), 1896년(삼판), 1900년(사판)까지 중판을 거듭하였음
- 한 면의 상반부 이상은 악보가 인쇄되고 그 아래 하단에는 가사가 인쇄된 형태로 서양식 악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악보집으로 이 중 몇 곡은 창가, 애국창가의 선율로 활용되는 등 한국근대음악사에서 중요한 유물임

라. 찬송가

- 분 야 : 근대음악(악보집)
- 명 칭 : 찬송가
- 소 유 자 : 숭실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수 량 : 1점
- 규 격 : 가로 15×세로 22.5cm
- 재 질
 - 표 지 : 가죽
 - 내 용 : 종이
- 형 식 : 양장본
- 발 행 처 : 재한복음주의 선교부공의회
- 제작연대 : 1909년
- 현 상
 - 찬송가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감로교연합찬송가로 재한복음주의 선교부공의회에서 총 267편의 찬송가를 수록·간행함. 1908년 가사만 있는 찬송가집을 먼저 출판한 다음, 1909년 악보집으로 출판하였음. 본 유물은 1909년 초판본으로 인쇄된 5,000권 중 하나임
 - 찬송가는 인쇄처였던 일본 요코하마 후쿠인인쇄소에서 1908년에 6만부, 1910년까지 22만5천부, 1912년에 5만부가 간행됨
 - 「찬송가」에 실린 267편의 찬송가는 이후 간행된 「신편찬송가」(1935), 「합동찬송가」(1949), 「통일찬송가」(1983)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선율은 창가, 애국창가, 독립군가 등으로 활용되었음
 - 가사의 세련과 문학적인 향상이 현저했고, 오늘날 찬송의 원본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찬송가 자체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근대시기 한국인의 음악에 영향을 많이

준 악보집 중의 하나임

마. 콩쥐팥쥐

- 분 야 : 근대음악(악보 및 대본)
- 명 칭 : 콩쥐팥쥐 또는 안기영 향토가극 콩쥐팥쥐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수 량 : 1점(67쪽)
- 규 격 : 가로 18×세로 26cm
- 재 질 : 저지(楮紙)
- 종 류 : 등사본
- 제작연대 : 1940년대 초반
- 현 상
 - 안기영의 향토가극 「콩쥐팥쥐」의 악보 및 대본으로 모두 67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콩쥐팥쥐」는 12경(景)으로 구성된 악극으로 이 유물의 대본부에는 제2경부터 제8경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악보부에는 제1경부터 제12경까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11경은 없음
 - 이 작품은 1940년에 발표된 안기영 작곡, 설의식 작사의 가극 <견우직녀>의 뒤를 이은 것으로 조선의 독창적인 색채가 있는 가극이라는 뜻에서 ‘향토가극’이라 명명하였음. 「견우직녀」는 악극 전체 중 한 두 부분이 일반에 공개되어 전반적인 내용 및 공연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콩쥐팥쥐」는 음악적 내용 및 공연 상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의 악극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안기영이 전통적인 민요의 선율과 이를 차용한 노래들로 구성된 향토가극 중 희귀하게 발견된 귀중한 유물로서 창작음악극의 효시 중에 하나임

바. 흥난파 동요 악보원판

- 분 야 : 근대음악(원판)
- 명 칭 : 흥난파의 동요 악보원판
- 소 유 자 : 단국대학교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6
- 수 량 : 1식 51매(49곡)
- 규 격 : 14×20×2cm
- 재 질 : 나무, 금속
- 제작연대 : 1930년 이전

○ 현 상

- 홍난파가 자작 동요집인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을 발간할 때 사용된 인쇄 원판으로 나무 위에 오선보를 새긴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달마중>을 제외한 49편에 해당하는 원판 51개가 남아있음
- 홍난파는 1929년 연악회에서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25편, 50편)을 발간, 1930년 삼문사서점에서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초판(50편) 및 1931년 재판(50편), 1933년에 완성된 <조선동요백곡집>을 발행하였음
- 단국대학교 소장 원판은 <조선동요백곡집>과 삽화, 쪽수, 악보체, 가사체 등에서 일치함
- 홍난파의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하여 보관중이며,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풍당 풍당>, <하모니카>, <작은별> 등 한국창작동요를 상징하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 온 곡들이 포함되어 있음
- 홍난파의 초기 동요 및 우리나라 동요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곡들의 원판으로서 악보 인쇄 기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유물로서, 일본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의 오선활판이 한국에서 인쇄되었다는 점 또한 가치가 큼

붙임 3. 조선동요백곡집(1931년 재판본) 및 홍난파 동요인쇄 활판 목록 비교

사.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 분 야 : 근대음악(자필원고)
- 명 칭 :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 소 유 자 : 단국대학교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6
- 수 량 : 1점(234쪽)
- 규 격 : 15×23cm, 240자(24×10칸) 원고지
- 재 질 : 종이
- 제작연대 : 1935년
- 현 상
 - 홍난파가 1938년에 출간된 「음악만필」의 출판을 위해 원고지에 쓴 것으로 240자 원고지(24×10칸) 234쪽임. 표지는 훼손되었지만, 내용은 보관 상태가 양호함
 - 음악만필 자필원고에는 총 92편의 수필 및 소설, 평론이 실려있고, 서문(Prologue)은 1935년 12월 5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악만필」(1938년 출판)은 총 11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은 1938년 7월 1일로 기록되어 있음

- 홍난파의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하여 보관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평론집 및 수상집 자필 원고로서 1938년 이전의 우리나라 음악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유물임

붙임 4.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와 「음악만필」(1938년 발간) 목차 비교

아. 안익태 첼로

- 분 야 : 근대음악(악기)
- 명 칭 : 안익태의 첼로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59
- 수 량 : 1점
- 규 격 : 몸통 121×43×13.5cm, 뒷판 69cm
- 재 질 : 목재
- 상 표 : Ferdinandus Gagliano Filius Nicolai fecit Neap 1766
- 제작연대 : 1766년
- 현 상
 - <애국가>의 작곡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첼로 연주자인 안익태가 사용했던 첼로임
 - 악기 몸체 안 뒷판에 내부에 부착된 라벨에는 "Ferdinandus Gagliano Filius/ Nicolai fecit Neap 1766"이라고 적혀 있어 현악기 제조 가문 니콜라이 갈리아노의 아들 페르디난도 갈리아노(1706-1781)가 1766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음
 - 악기 외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첼로 하단에 각봉이 떨어져 있고 앞판과 뒷판의 울림을 연결해주는 버팀막대가 이탈되어 있으며 현의 제일 높은 음을 내는 a줄이 없고 세 줄만 남아있으며, 뒷판에 균열이 있고, 몸체의 테두리가 부분적으로 깨져있음
 - 안익태의 유가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안익태가 첼리스트로서 국내 및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무렵에는 이 악기가 아니라 다른 악기(일제 스스키)를 사용하였으므로 안익태가 이 악기를 언제 구입했고 어떤 음악회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자. 홍난파 바이올린

- 분 야 : 근대음악(악기)
- 명 칭 : 홍난파의 바이올린
- 소 유 자 : 단국대학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6
- 수량 : 1점
- 규격 : 몸통 60×21×4cm, 뒷판 33.5cm
- 재질 : 목재
- 제작연대 : 미상
- 현상
 -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홍난파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으로 그는 어린 시절 국내에서 선교사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일본의 동경음악학교와 고등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1924. 1. 19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하였음
 - 이 바이올린은 홍난파의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는 바이올린, 활, 여벌 현, 송진, 브릿지, 조임쇠, 현 보관용 봉투, 기타 줄 상자 등과 같은 소모품 일습이 들어있음
 - 악기 케이스에 미국행 배편(N.Y.K.LINE ShiyōMARU)과 하와이의 호텔(Alexander Hotel HONOLULU HAWAII)의 라벨이 붙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미국 유학을 떠난 1931년 8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임
 - 이 유물은 홍난파가 도미했을 때 바이올린을 휴대했던 정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1931. 8. 6 배안에서 개최한 선상연주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악기의 제조상황, 홍난파 연주사실 등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차. 배재학당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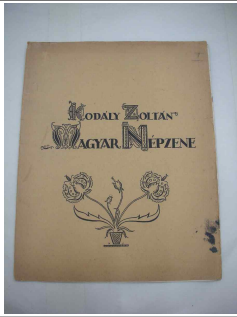
- 분야 : 근대음악(악기)
- 명칭 : 배재학당 피아노
- 소유자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 수량 : 1점
- 규격 : 146.3×98×168cm
- 제작연대 : 1911년
- 재질 : 목재
- 현상
 - 배재학당 강당에 있던 피아노로 배재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음
 - 배재학당의 H. D. Appenzeller(설립자 아펜젤러 아들, 1920~1939년 교장 재직)가 학교 대강당을 신축하면서(1932~33년경) 들여온 연주회용 그랜드 피아노임
 - 1911년 독일의 블뤼트너(Blüthner)사에서 제작하여 4현 방식(Aliquot)의 제작

- 기술이 적용되어 기본현 외에 공명현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음
- 배재학당은 1930년대 초반 이후 김순열, 김순남, 이흥렬, 한동일, 백건우 등 많은 음악가를 배출하였고, 1950년대 중반까지 많은 음악가들을 성장시키는 요람 역할을 했음
 - 제작년도와 국내 반입 배경, 연주 이력 등이 확실하며,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끼친 영향이 큰 유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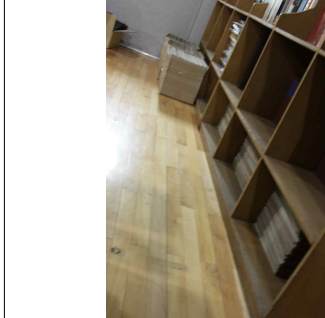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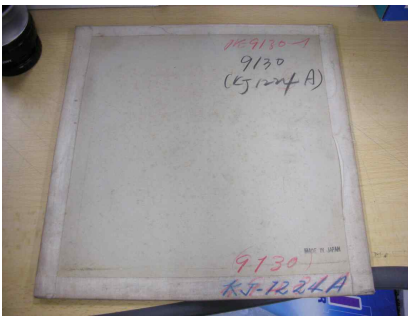
붙임 5. 배재학당 피아노 참고자료

9. 유물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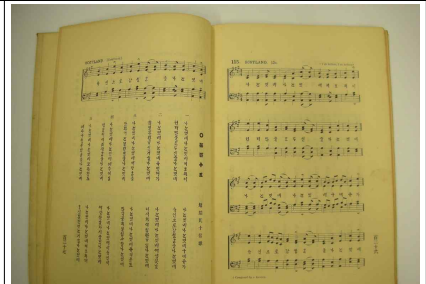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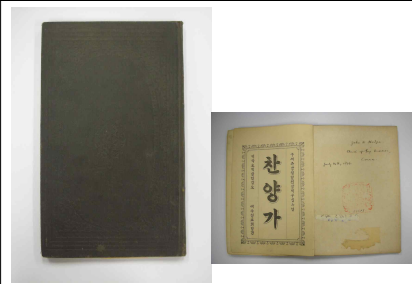
1.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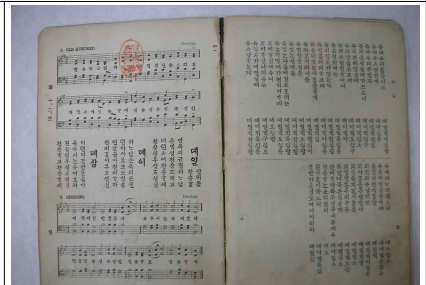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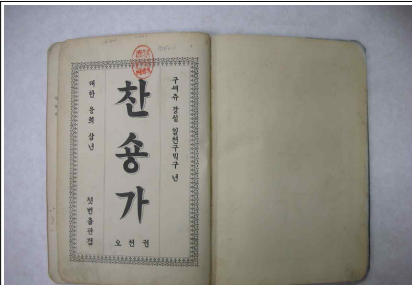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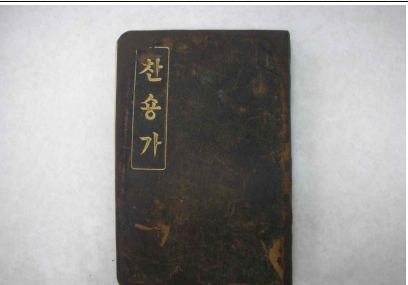
2.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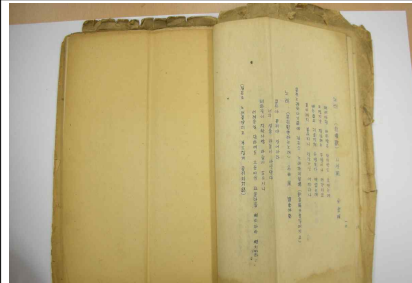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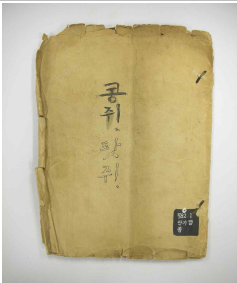
3. 찬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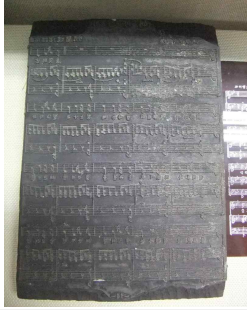
4. 찬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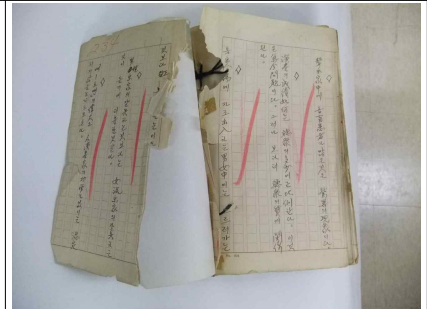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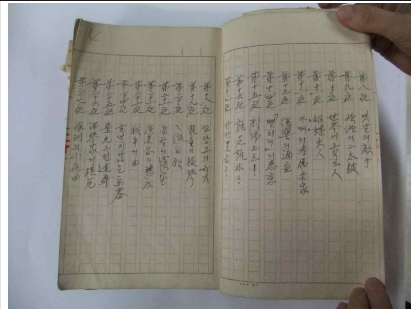
5. 콩쥐팥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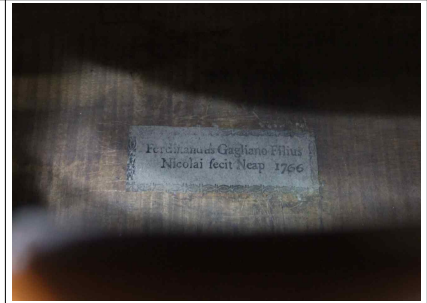
6. 흥남파 동요 악보원판



7. 흥남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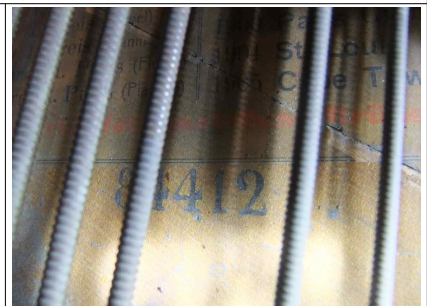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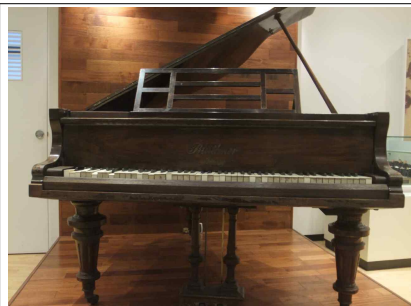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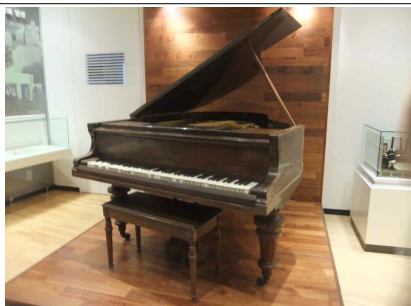
8. 안익태 첼로



9. 흥남파 바이올린



10. 배재학당 피아노



10.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가. 안익태 애국가 자필악보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자필악보
-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된 총보(總譜)와 피아노반주용으로 편곡된 악보

○ 내용 및 특징

- 안익태가 작곡한 대한민국의 <애국가>의 자필악보로, 작곡자의 친필 악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알아보기 쉽게 정사하였다.
- 안익태의 자필 악보는 대부분 본인의 서명과 함께 사보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명과 사보한 날짜가 없다.
- 피아노 반주 악보에 일부 누락된 마디가 있다.

○ 문헌자료

- 전정임. 『안익태』, 시공사, 1998.

○ 기 타

- 유가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

○ 종합의견

- 사보한 날짜가 없어 제작 연월일을 알 수 없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이 유물은 안익태가 작곡한 현행 <애국가>의 반주 악보“들”이다. 이 유물의 내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애국가> 반주 악보이다. 이 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따로 따로 검토해야한다.
- 첫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관현악 총보로 된 반주보이다. 따라서 기악 부문만 기록되어 있다. 즉, <애국가>의 가창부 즉, 노랫말은 적혀있지 않다. 악보 초두에 <KOREAN NATIONAL HYMN>라고 되어 있다. 기악 반주보는 모두 20마디인데, 모두 3장에 사보되어 있다. 이 악보와 같은 내용의 이본 즉, 안익태 애국가 반주보 자필악보의 이본이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있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제목과 작곡가 이름에 로마자·한자가 사용되는 점이 다르고, 사보시 그래픽 기호와 지시어들이 약간 다르다. 다만, 양자의 관현악법이 다르지 않고, 사보지가 같은 점은 이 유물의 이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두 이본의 제목의 기록 방식을 보면, 이 유물은 독립기념관 소장 유물과 함께 당시 애국가 연주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즉, 이 악보는 독립기념관의 이본과 내용은 같지만, 제목이 로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즉,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도 연주되었을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
- 두 번째 악보는 현행 <애국가>의 피아노 반주악보이다. 성악 4성부와 피아노 반주부를 사보한 것이다. 현행 <애국가>의 2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모두 15마디가 적혀있다. 그런데 악보 초두에는 앞부분의 관현총보와 달리 한글로 제목이 적혀있다. 독립기념관의 이본과 비교해보면, 양자의 거의 같다. 단, 이 악보는 독립기념관 이본과

비교하여 한 마디가 빠져있다. 즉, 독립기념관의 이본은 16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물에는 15마디만 사보되었다. 즉, 이 유물에는 제6마디 “보호하사”부분의 한 마디가 사보 시에 누락되었다. 나아가 이 유물의 전반부에 있는 관현악반주보와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사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예컨대 시각적으로 마디의 배열이 일정하지 못하다.

- 이처럼 사보 시 한 마디의 누락 및 마디 배열의 시각적 불안정감은 이 악보가 미리 계산된 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이다. 다행히 이 악보와 같은 내용의 이본이 완성된 상태로 독립기념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물 역시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 이 악보에서 사용된 오선지의 하단부 끝에는 “PARCHMET BRAND No.19-24 lines Belwin Inc. New York, U.S.A.”라는 인쇄구가 있다. 안익태의 음악을 기록한 필사보들 가운데, 위와 같은 오선지를 사용한 경우는 독립기념관 소장 분류번호 1-760-4의 <한국환상곡>과 1-760-5 <대한국애국가> 둘이다. 이 중에서 <한국환상곡>은 1952년 이전에는 기록될 수 없으므로, 이 사료의 기록 년대는 빨라도 1952년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보고서

○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음악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악보에서 한 마디의 누락은 치명적인 음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유물은 본질적으로 음악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이 유물을 통해 음악적 의사소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유물의 음악사적 가치가 음악적 의사소통의 기능 외에 충분히 인정되는 한 이 유물의 등록 문화재로서의 등록은 가능한 일이다.
- 현재, 이 유물의 경우 두 종류의 악보 중 성악 부분에만 한 마디의 누락이 있고, 해당 음악에 대한 완전한 이본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적 완성도와 사보상의 완결성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또, 애국가 자필악보가 갖고 있는 여러 음악사적 요건들이(근대음악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보고서 참조)인정되는 한 이 악보 역시 등록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다.
- 단, 이 유물은 내용을 담은 이본(독립기념관의 필사본)과 동시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악보만 문화재로 등록되어서는 이상에서 거론한 이 악보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두 필사본이 동시에 등록된다면, 이 악보는 작품으로서의 가치 외에 애국가가 연주되었던 다양한 음악환경들, 예컨대 국내외의 연주 상황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유물이 될 것이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고창문화재연구소 ○○○ >

- 구 성 : 앞, 뒤 표지와 4면의 흰색 내지로 구성되어 있다.

○ 현 상

- 표지는 갈색의 洋紙이며 표지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얇은 두께이다.
- 내지는 고급 양지에 인쇄된 오선보에 검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옮겨 적은 듯이 쓰여졌다.

-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앞 표지는 오른쪽 하단부가 먹이 묻어 있으며, 네 모서리가 산화되어 짙게 변색되어 있다.
- 각 장마다 네 모서리 부분의 여백이 Foxing(곰팡이)이 짙은 갈색 반점 모양으로 산재해 있다.
- 오선보의 노트 하단부에 오선보 노트에 관한 기록이 있다.
- 하단부 왼 쪽에 PARCHMENT BRAND No19-24LINES 로 인쇄되어 있다.
- 마지막 장의 가사 부분은 6마디 째(-보우하사)가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나. 빅타레코드 금속원반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1928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 빅타 레코드사에서 제작한 조선 음악 금속 원반
 - 금속 원반 총 586매가 원반의 자켓 속에 1매씩 보관되어 있다.
 - 유성기 음반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음원이다.
- 내용 및 특징
 - 유성기 음반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음원
 - 1928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음반 제작용으로 구입한 조선 음악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 음반 제작용으로 구입한 음원을 음반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원반으로, 음반은 대량 생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반은 하나밖에 없다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 문헌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留聲機音盤總目錄』, 민속원, 1998.
- 기 타
 - 로엔 엔터테인먼트 전신인 (주)서울음반이 일본 빅타 레코드사에서 구입
- 종합의견
 - 1920년대에서 40년대 초 조선의 중요한 음악을 대거 구입한 원반이라는 점,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많은 영향을 준 음반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 밖에 없다는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재 등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일본 빅터는 전기녹음 기술을 확보한 이후 조선에 진출했다. 일본 빅터는 1928년부터 해방 무렵까지 1,000여 장(2,000여 면)을 발매했다. 일본 빅터의 레이블은 대략 세 종류-정규반, 주니어반, 기타반으로 나누어진다. 이 유물은 이 중에서 빅터 주니어반에 해당한다. 이 유물은 빅터 주니어 음반 중 발매번호 KJ1031-KJ3016 사이에 있는 586매의 금속 원반이다.
 - 금속원반이란 음반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사용되는 금속으로 된 음반이다. 그런데 금속 원반이라 칭하는 것에는 마스터, 마더, 스템퍼 세 종류가 있다. 이 유물은 그 중에서 마스터(혹은 마스터 스템퍼)라 불리는 것으로, 금속 원반 중에서도 녹음된 음향의 음질이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는 단계의 금속원반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빅터는 조선 시장에 진출한 이후, 조선음악가들 혹은 공연자로 하여금 조선 음악, 예컨대 전통음악, 대중음악, 양악(서양음악이 아닌 양악)은 물론이고 드라마 등을 녹음하도록 했다. 이 유물에는 이 중에서 전통음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중음악, 드라마 순이다.

○ 내용 및 특징

- 1907년 이후 조선에서 첫 상업용 음반이 발매된 이후 한국음악사회는 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다. 유성기 음반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내용의 음악이 향유하게 되면서 음악 사회의 일상은 변화하게 되었다. 물론 복제된 음악의 대량 생산은 초기에는 음향기술의 미비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음악에 한해서는 전기 녹음이 시작되면서 음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 이후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음반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생산하게 되었다.
- 일반 청자들이 듣는 음반이 소비재인데 비하여 이 유물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음반은 감상용 음반이 아니라 공장에서 음반을 생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만든 장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전까지 음반의 기계적 생산은 조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식민자본은 생산재에의 투자에 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음반의 경우 단순한 소비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의 정체가 반영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본 유물은 일본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음악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 문헌자료

-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음반의 기계적 생산지는 일본이지만, 그 내용 즉 녹음된 내용이 조선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재고해봐야 할 점이다. 이 음반을 통해 식민지 조선이라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 특히 대중문화와 음악에서 조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유물이 음악은 물론이고 사회사나 문화사적 시각에서 다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유물에는 음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드라마도 상당 수 포함하고 있다.
- 음반의 담긴 음악의 내용들은 대략 1930년대를 기준으로 당대의 명인들의 유일한 녹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한 세대 전의 명인들의 유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럿이다. 나아가 이 음반들에 녹음된 레퍼토리를 통해 근대적 대중문화의 초기적 성장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녹음 레퍼토리는 당시 대중들의 지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조사자는 이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동국대학교 교수 ○○○ >

- 문화재명칭(안) : 일본 빅타레코드 한국 유성기음반 금속원반
(약칭 : 빅타 금속원반)

○ 금속원반에 대하여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2월부터 1940년까지 일본 빅타 레코드(Victor Record)에서 발매하던 '빅타 주니어 레코드(Victor Junior 혹은 大衆盤, 普及盤)'를 찍던 금속 원반(Stamper)이다.

일본 빅타 레코드는 1927년 9월 미국 빅타 레코드가 100% 출자하여 일본 현지에 세운 현지 법인으로, 1928년 6월 4일 서울에서 첫 한국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이래 1928-1945년 일제 강점기 말까지 약 1,005장(추정) 가량의 한국 유성기음반을 발매하였다. 빅타 레코드는 정규반 492장, 주니어반 389장과 함께 기타 약간의 별매반을 발매하였다. 이 가운데 주니어반을 찍던 금속원반이 바로 본 유물이다.

유성기음반의 제작과정은 부드러운 왁스(Wax)반에 처음 ①로 소리꼴을 새긴 다음, 여기에 두껍게 도금(鍍金)을 하여 ②로 된 금속반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마스터 스템퍼(Master Stamper)이다. 왁스반은 마스터 스템퍼 제작과 동시에 사라진다. 마스터 스템퍼는 음반을 찍는 금형(金型) 틀이므로 이것으로 직접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 음반을 눌러 찍어서 듣게 되는 것이다.

마스터 스템퍼는 유일한 음원이므로 마모를 우려하여 이것으로 직접 음반을 찍지는 않고, 여기에 도금을 하여 다시 ③(Mother)을 만든다. 마더(Mother)반은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도금을 하여 ④(Stamper)을 만들며, 이 스템퍼로 직접 음반을 찍는 것이다. 스템퍼는 소모품이므로 마모되면 다시 Mother에서 Stamper를 떼내어 계속 찍을 수 있다.

①①(Wax반)→②②(Master Stamper)→③③(Mother)→④④(Stamper)→
→⑤⑤(유성기음반)

본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은 유성기음반의 음원에 해당하는 ②마스터 스템퍼(Master Stamper)로 후일에 다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레코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의 소장 경위

테이프 레코더가 발명된 이래 음반회사에서는 모든 음원을 테이프로 보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겁고 부피가 큰 금속원반을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레코드 회사에서는 보관과 관리에 많은 공간과 비용이 드는 유성기음반 금속원반을 테이프로 복사한 후 폐기처분 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의 레코드 회사들도 기존에 보관하던 금속원반을 복사한 후 폐기하였다. 일본 콜럼비아와 빅타 레코드에서는 그때까지 보관하던 한국 유성기음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뒤 콜럼비아에서는 한국음악 금속원반을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전량 기증하였고, 이 복사 녹음은 일본 NHK를 통해 1987년 KBS에 복사 테이프 형태로 전량 기증된 바 있다. 빅타 레코드(JVC)에서는 한국음악 금속원반을 1992년 당시 기술제휴를 하고 있던 (주)서울음반(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의 현황

빅타 레코드 주니어반은 389장이 발매되었으므로 원래 마스터 스템퍼는 그 배수인 778장이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원래 제작사에서 분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75%인 586매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주)서울 미디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이 회사에서도 LP레코드의 금속원반은 모두 폐기하였으나 빅타 레코드의 금속원반만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고 있다.

유성기음반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매체인데다 이제는 국내의 어느 레코드 회사도 마스터 스템퍼를 이용해서 마더반을 제작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 따라서 빅타 레코드의 금속원반은 이제 다시 소리를 재생하기는 어려운 매체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금속원반은 국내에 입수될 당시 이미 모든 음원을 디지털로 복사하여 대부분 복각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할 필요는 없다.

빅타 금속원반은 이미 실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되는 음원은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금속원반은 일제강점기의 음악을 담고 있는 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유성기음반의 원반인데다 자료적인 가치나 학술적인 활용의 여지는 아직 많기 때문이다.

○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의 내용

빅타 주니어 레코드는 원래 열가반으로 발매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음악적인 가치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코드 회사의 판매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대중적인 히트곡도 많고, 전통음악에서도 명인 명곡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빅타판 춘향전전집은 판소리사의 불후의 명연에 속하는 녹음으로 꼽힌다. 그밖에도 당대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장르가 취입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미 복각음반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세부 내용과 곡목은 별첨함)

○ 문화재의 등록

본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은 음악을 담고 있으므로 실제 시각적인 전시용이나 실용적인 청취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담긴 음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인은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음반의 음원이란 측면에서 당대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물론 이것을 제작한 곳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레코드 회사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음악은 엄연히 한국인이 노래한 한국의 음악이고, 여기에는 근대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빅타 금속원반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공연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기록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근대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 등록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 찬양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자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편찬
- 예수성교회당 발행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
- 총 117편의 곡이 악보와 함께 수록

○ 내용 및 특징

- 한국 최초의 오선보 악보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한국 최초의 악보 붙은 찬송가집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 가사는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음
- 4성부 악보집으로 되어 있어, 한국인에게 화음(화성)의 감각을 심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고, 합창 음악의 효시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 이 중 몇 곡은 창가, 애국창가의 선율로 활용되는 등 한국근대음악에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 발행된 지 117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
-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찬송가100년사』, 예술, 2002
 -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 음악사-양악편』, 두리미디어, 2005
- 종합의견
 - 최초의 오선 악보집인 동시에 최초의 찬송가집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근현대음악사, 한국기독교역사, 한국어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책임연구원 권도희(한국음악사) >

- 현 상
 - 본 조사에서 확인한 『찬양가』는 모두 두 곳에 각 1권씩 소장되어 있었다. 숭실대학교본(이하 송대본)과 연세대학교본(이하 연대본)의 내용은 같지만, 표지의 장정 상태, 책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송대본은 종이로 된 표지에 끈을 밖으로 노출시켜 제본했고, 연대본은 요철로 꽃무늬가 선명한 검은색 종이 표지에 제본용 끈이 보이지 않도록 안에서 묶었다. 또한 책의 크기는 송대본이 좀 더 작다. 송대본의 경우 보존 처리 시 가장자리를 자른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 『찬양가』는 미국 출신 장로교파 선교사 언더우드(1859-1916)가 편집한 것으로 모두 117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 가운데 단 88곡만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악보가 있는 88곡을 대상으로 음악사적 기여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88곡 중 대부분이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의 노래책을 저본으로 해서 선택된 것이고, 극히 일부만 한국인이 지은 노래이다.
 - 이 유물은 개신교 노래 악보집으로는 최초의 것이고, 한편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예수선교회당 간행으로 되어 있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개인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더우드는 개인적으로 출판자금을 조달하여 일본 YOKOHAMA SEISHI BUNSHA에서 악보를 인쇄하여 서울로 들여와 유통시켰다한다. 따라서 이 악보는 서울 근교의 신자들이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악보집은당시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판 이후 1895년(재판), 1896년(삼판), 1900년(사판)까지 중판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악곡의 수가 증가했다. 악보집 『찬양가』는 또 다른 개신교 악보집 『찬송가』(1909)가 출간되기 전까지 음악으로서 조선의 개신교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1909년 이후 장로교의 음악에 대한 입지의 약화는 이 악보집의 유통을 한정되게 만들었다.
- 문헌자료
 - 조숙자, 『한국개신교찬송가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3.
 - 조숙자, 『찬양가(1894) 연구자료집』 서울: 장로교신학대학 교회음악연구원, 1994)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와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도서출판예술, 2001.
 - 민경배, 『한국교회찬송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한영재, 『한국성서찬송가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나운영, “한국교회음악의 진로” 『기독교사상』 1958.5.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악보집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간행된 이후 중판을 거듭할 만큼 널리 유통됨

으로써 한국교회사 및 한국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라는 개인에 의해 편집되고 인쇄되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교과와 교단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09년 감리교-장로교 연합 개신교 노래책인 『찬송가』의 유통 이후로 『찬양가』의 영향력은 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책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악보집으로, 또 조선 말 및 대한제국 시기에 사용되었던 개신교 오선악보 인쇄물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최초로 조선인이 작곡한 개신교용 창작 음악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작곡사적 입장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이 악보집은 여러 점에서 근대음악의 유산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자는 비교적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소장유물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기를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동원대학교 교수 ○○○ >

○ 현 상

- <찬양가>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펴낸 것으로, 악보가 실린 최초의 우리말 찬송가이다. 서지사항은 1894년 ‘예수성교회당’ 간행으로 나와 있는데, 인쇄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했고, 판매보급은 서울 삼문출판사에서 한다고 적혀 있다. 1892년 감리교 선교사 존스와 로드와일러가 처음으로 우리말 찬송가인 <찬미가>를 발간한 바 있지만, 악보 없이 가사만 번역된 찬송가 27편이 수록된 소책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하여 <찬양가>는 117편의 찬송가를 서양식 악보와 함께 수록한 본격적인 최초의 음악책으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종교적 측면에서 기독교의 토착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독교 초창기에는 예배를 볼 때 중국어 또는 한문의 우리말 발음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선교사들을 따라 영어로 찬송가를 불렀다. 이 <찬양가>의 발행은 한글성서의 보급과 함께 우리 언어와 한국 문화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찬양가> 중에는 한국인 작사 찬송도 9편이 들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둘째, 음악사의 측면에서 서양 음악의 보급과 현대 한국 음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셋째, 문학적 측면에서 찬송가의 가사들이 널리 퍼지면서 서구 문학의 유입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찬송가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교회 부흥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는데, 당시 불렸던 찬송가 가사의 대부분은 18~19세기 영미문학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계열 작가의 시에서 나왔다. 그 결과 서구의 문예 사조가 찬송가를 통하여 한국에 전파됨으로써 우리 시문학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보존 상태

- 숭실대 박물관 소장의 경우, 보존 처리를 잘하여 백년이 넘는 종이책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로 제본한 표지는 뜯어져서 새로 제본하였다. 또한 표지의 책명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제본해 놓았으며 보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세대 도서관 국학자료실의 경우, 책이 양장 제본이었으며 표지의 제목과 문양이 그대로 잘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책을 조그만 종이 포장 상자에 담아 잘 보존하고 있다.

○ 종합의견

- 희귀본의 면에서나 역사적 가치 면에서 연세대 보관분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고창문화재연구소 ○○○ >

1. 표지 비교

연세대 (15·×21.7) (가로×세로,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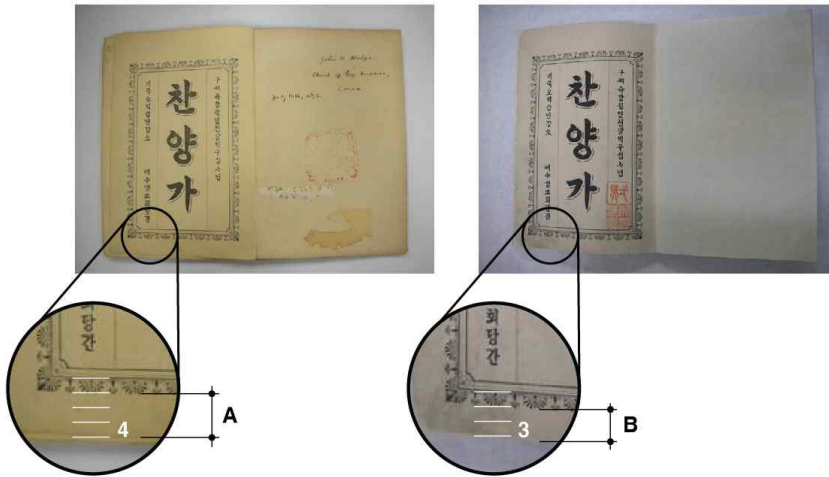
승실대 (14.5×21) (가로×세로, cm)



1-1. 의견

	연 세 대	승 실 대
1	뒷표지 사진	앞표지 사진
2	원본 표지의 문양과 문양의 요철이 잘 살아 있다.	- 사진상 표지의 문양과 문양의 요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제첩부분이 넓게 붙여진 상태였으나 떼어낸 자국이 있으며, 가장자리가 전면 수리되었다.
3	서양제본	- 동양식 제본(사침안정법) - 원본은 서양식 제책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보존처리 과정에서 제책 방식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2. 첫 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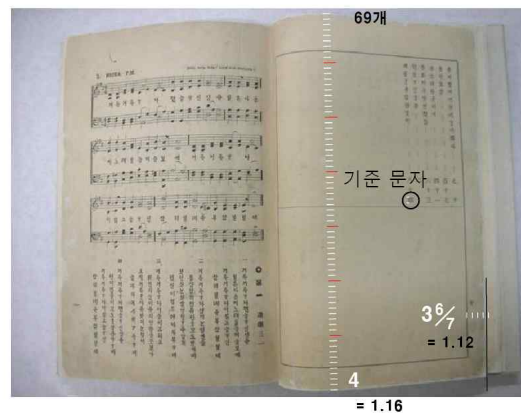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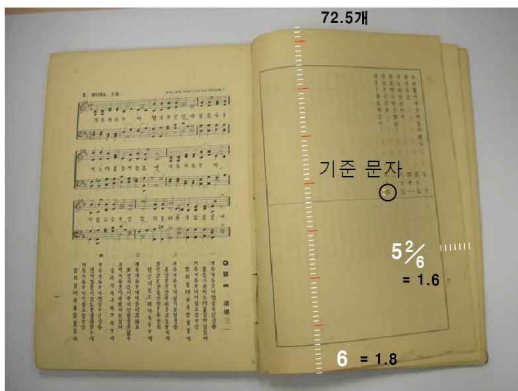
∴ A : B = 3 : 2

2-1. 의견

	연 세 대	숭 실 대
1	사진상의 색감으로 판단하면 안 쪽 장의 변·퇴색이 심하다.	표지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안 쪽 장의 변·퇴색이 심하지 않고 백색도가 높다.
2	표지의 뒷면 장(사진상의 오른쪽 면에 해당됨)이 원본으로 추정된다.	표지의 뒷면 장(사진상의 오른쪽 면에 해당됨)이 원본이 아니라 보존처리 과정에서 한지로 교체되었다.
3	하단부의 길이 차이가 3 : 2 (연세대 : 숭실대) 정도의 비율이므로 숭실대 찬양가가 길이가 짧다(윗 사진 참조)	

3. 중간 장의 비교

단위 : cm



3-1. 의견

연세대의 책길이 15×21.7 (가로×세로, cm) , 송실대의 14.5×21cm 길이와 기준 문자(위 사진 참조)를 바탕으로 각 각의 책의 길이와 오른 쪽 장의 여백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연 세 대	송 실 대
1	하단 여백의 길이 : 1.8cm 오른 쪽 장의 여백 : 1.6cm로 추정된다. (위 사진 참조)	하단 여백의 길이 : 1.16cm 오른 쪽 장의 여백 : 1.12cm로 추정된다. (위 사진 참조)

4. 종합의견

- 하단 여백의 길이 : 1.8 - 1.16cm×0.64, 오른 쪽 장의 여백 : 1.6 - 1.12cm×0.48이므로 연세대 책 보다는 송실대 책이 세로 0.64cm, 가로는 0.48cm 길이가 작다.
- 길이 차이의 원인 추정

추정 1. 보존처리 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가장자리의 훼손이 심한 것이 원인이다.

추정 2. 보존처리 과정에서 제책 방식을 바꾸면서 책 표지와 내지와의 크기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약간의 길이가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존처리의 기본 개념은 현상유지이다. 그러나 제책 방식을 바꾼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찬송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1909년 재한복음주의 선교부 공의회에서 편찬
-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
- 1908년 가사만 있는 찬송가집을 먼저 출판한 다음, 이듬해 악보가 있는 찬송가집으로 재출판하였다.

○ 내용 및 특징

- 267편의 찬송가와 함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색인이 수록
-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통합 찬송가집
- 현행 찬송가집의 모체
- 찬송가로 뿐만 아니라 그 선율이 창가, 애국창가, 독립군가 등으로 활용
- 근대 초기 한국인의 가창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악보집 중의 하나이다.
- 1931년까지 총 43판, 874,000부를 발행하였음

○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찬송가100년사』, 예술, 2002.
-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 음악사-양악편』, 두리미디어, 2005

○ 종합의견

-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통합 찬송가집이라는 점, 현행 찬송가집의 모체라는 점, 당시

수만 부를 발행했다는 점, 근현대 한국인의 가창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악보집 중의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선율이 창가, 애국창가, 독립군가 등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점 등 그 가치가 매우 높지만, 여러 부가 현존하고 있어 희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장로교와 감리교는 1905년 재한복음주의 선교단체를 결성하고 공용 노래책의 편찬을 결의한 바 있고, 그 결과로 1908년 노래 가사집인 『찬송가』를 출판했다. 여기에는 262곡의 노래가사가 수록되어있다. 이듬해인 1909년 노래 가사집인 『찬송가』는 개정본으로 악보집으로 출판되었다. 이 조사에서 대상이 되었던 유물은 1909년의 초판본으로 인쇄된 5,000권 중 하나이다. 이 악보집은 일본에서 인쇄되었다.
- 이 악보집의 장정은 가죽이고 글자는 금색이다. 이로 보아 고급판으로 보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악보집에는 총 267편의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되는 노래의 악보가 실려 있다.

○ 내용 및 특징

- 선교사 베어드(Mrs. Baird), 밀러(F. S. Miller), 벙커(D. A. Bunker) 등은 장로-감리교 통합공의회 찬송가 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당시 사용되던 미국의 찬송가집들을 저본으로 하여 『찬송가』의 표제곡들을 선정했다. 선정의 일차 결과물은 1908년 간행된 『찬송가』 가사본이고, 최종본은 1909년 『찬송가』 악보본이다. 1909년본에 실린 267곡은 이후 간행된 『신편찬송가』(1935), 『합동찬송가』(1949) 『통일찬송가』(1983)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적게는 1/3 많게는 거의 대부분의 『찬송가』의 곡조들이 실리는 등 이 유물은 기독교 가창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문헌자료

- 조숙자, 『한국개신교찬송가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3.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와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도서출판예술, 2001.
- 서정민, “한국찬송가 개관” 『한국기독교사료전시회 자료집』 3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악보집에 실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미 충분히 진행된 바 있고, 나아가 이 악보집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 악보집(찬송가류)에 끼친 영향도 이미 선명하게 밝혀진 바 있다. (참고문헌 참조). 특히 후자의 연구를 통해 이 악보집의 한국근·현대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알 수 있다.
- 한편, 이 악보집의 초판본(1909년)은 모두 5,000권이 인쇄되었다. 이 악보집은 1894년 장로교과의 악보집과 달리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 유물의 전국적인 유통은 이 악보집의 영향력 역시 전국에 미쳤음을 추정하게 한다. 현재 개신교 교회의 노래가 특정 악보집의 제목인 “찬송가”로 범칭되는 것은 바로 이 책의 영향 때문이다. 당시 개신교 노래책은 다른 제목도 있었다. 이처럼 1909년 『찬송가』 이 악보집은 그 영향력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 본 조사 시에 이 악보집이 숭실대학교에 모두 3점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소장자 측에서 그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이 유물 1점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조사했다. 따라서 이 유물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퍼져있는 각종, 각 규모의 기독교 교회박물관 혹은 오래된 교회에서 이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에 본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동원대학교 교수 ○○○ >

○ 현 상

- 감리교, 장로교 합동 찬송가는 1908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나 악보가 없는 가사판 찬송가였다. 이번에 조사한 <찬송가>는 1909년에 발행된 악보판으로 제대로 된 최초의 본격적인 연합 찬송가이다.
- 이 찬송가의 발행은 개신교 초창기에 한국에 온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교파연합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연합운동과정에서 결성된 선교부 연합공의회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찬송가의 편찬을 결의하고 찬송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합 찬송가를 발행하게 한 것이다.
- 이 악보판 <찬송가>는 출판경비 관계로 선교사 피터스(A. A. Pieters)가 개인적으로 5천 부를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기독교세가 확장되면서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발행량도 크게 늘어났다.
- <찬송가>는 기존의 찬송가들을 개정 보완하고 새로운 찬송가들도 첨가하여 267편을 수록하였으며, 번역도 예전 찬송가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져 현행 찬송가의 모태가 되었다.
- <찬송가>에 실린 267편을 살펴보면, 작사자의 경우, 영국인이 114편(17세기 4편, 18세기 56편, 19세기 54편), 미국인이 88편(19세기 86편, 20세기 2편), 독일인이 3편(16세기 1편, 18세기 2편) 등으로 18·19세기의 영·미 찬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외국 찬송가들은 선교사들의 번역으로 불렸는데, 가장 많은 찬송가를 번역한 사람은 베어드 부인(A. A. Baird)으로 무려 48편이나 된다. 그 다음은 밀러(F. S. Miller, 19편), 언더우드(Underwood, 8편)의 순이다. 처음부터 우리말로 나온 찬송가도 있는데, 한국인 창작이 9편, 선교사의 한글 창작이 32편으로 알려졌다.
- 작곡가의 경우도 미국과 영국 음악가의 곡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인이 202곡(18세기 3곡, 19세기 197곡, 20세기 2곡)이며, 영국인이 47곡(17세기 1곡, 18세기 16곡, 19세기 30곡), 독일인이 3곡(16세기 1곡, 18세기 2곡)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찬송가 작곡가인 메이슨(L. Mason)이 2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는 10편을 지은 루트(G. F. Root)가 차지한다. 한국 고유 곡조로 되어 있는 찬송도 6편이 들어 있다.
- 특기할 사항으로 <찬송가>의 마지막 장에 ‘백만 명 구원하기를 간구함’이라는 찬송을 실고 있다. 이 찬송은 1909년 백만 인의 심령을 구원하자는 전도활동인 ‘백만명구령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온 곡이다. 미국인 부흥사들과 함께 한국에 온 하크네스(R. Harkness)가 이 운동을 보고 감동받아 작사·작곡한 찬송가인데, 백만명구령운동의 주제가로 사용되었다.

○ 보존상태

- 보존 상태는 가죽 제본과 종이 제본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합의견

- 역사적 가치 면에서는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희귀본의 측면에서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함

마. 콩쥐팥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안기영 작곡, 설의식 작사의 가극 <콩쥐팥쥐>의 대본 및 악보집
- 1941년에 공연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41년 경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 1940년대 초 민족음악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창작 가극의 하나
- 우리나라 창작 가극사를 개척한 작품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940년에 발표된 안기영 작곡, 설의식 작사의 가극 <견우직녀>의 뒤를 이은 것이다.
- 1940년대 일제의 황민화 정책으로 우리 말 사용이 금지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강제 폐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우리말과 우리 음악과 우리 예술을 지키자는 뜻에서 가극운동을 전개시켰다. 중심인물은 서항석(연출)과 설의식(대본)과 안기영(작곡)이었고, 이들은 <견우직녀>(1940년), <콩쥐팥쥐>(1941년) 등 우리의 민담을 소재로 한 창작음악극을 만들어 ‘가극’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를 후에, 조선의 독창적인 색채가 있는 가극이라는 뜻에서 ‘향토가극’이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콩쥐팥쥐>는 <견우직녀>의 뒤를 이은 창작음악극의 효시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문헌자료

- 박용구. 『박용구 작품집 흠비』, 해보라, 1985

○ 기 타

- 1987년 고제경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

○ 종합의견

- 한국창작가극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이지만, 동일한 작곡가가 작곡한 <견우직녀> 보다는 상징적, 역사적, 예술적인 면에서 가치가 덜 하다. 따라서 <콩쥐팥쥐> 보다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견우직녀>를 발굴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콩쥐팥쥐>는 처음 공연될 때부터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악극이다. 이 유물악극 <콩쥐팥쥐>를 수록한 등사본이다. 등사본의 표지에는 손으로 “콩쥐팥쥐”라고 써 두었다. 이 유물의 전반부에는 음악적 지시가 있는 연극대본이 실려있고, 후반부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다. 이 유물의 대본부에는 제2장부터 제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악보부에는 제1장부터 제12장까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11장은 없다.
- 이 유물의 전반부, 즉 연극대본 부분은 대사를 정교하게 기록해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음악이 들어가는 순서와 방법을 정교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등장인물간의 대사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노랫말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등사본 위에 수기로 무대암전 등과 같은 각종 지시어를 적어 둔 곳이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유물의 전반부가 비록 악보는 아니지만, 음악공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음악 유물로 볼 수 있다.
- 이 유물의 후반부에는 악보가 있는데, 각 장에 사용되는 노래들의 제목과 내용이 악극의 진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악보에 적혀있는 일련번호에 의하면, <콩쥐

팔쥐>는 모두 25곡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악보에는 그 표시가 불분명한 곳도 있다. 예컨대 제7곡, 제8곡, 제11곡의 경우, 제목은 적혀있지 않지만 악곡은 독립적으로 그려져 있고, 또, 제5경의 음악은 리듬의 변화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오선 악보로는 없고, 대본에만 적혀있다. 또, 제4곡, 제12곡, 제13곡, 제22곡, 제24곡에는 악곡 제목도 없고 악곡도 그려져 있지 않다(이하 표 목록 참조) 한편, 제11경의 경우 모두 25곡일 경우 음악의 적어도 한 곡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각 악보에는 박자표 음표 외에도 독창, 남성·여성·혼성 합창등과 같은 연주법을 지시해 놓았다. 그러나 공연 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악보만으로는 소략하다. 이에 대한 보완은 이 유물의 전반부인 대본 부분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악곡의 대본 부분에는 반주 형태가 피아노 반주, 관악반주, 현악반주, 관현반주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두었고, 노래의 표현 역시 명곡풍, 민요풍, 창극풍, 사설풍, 동요풍, 리듬풍(리듬풍)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본 부분을 통해 가창자는 전후의 맥락을 통해 가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경 그리고 제8경이후로는 대본이 없어서 공연시 음악 표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 <콩쥐팍쥐>의 음악은 화성이라는 음질서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안기영은 이 가극을 위해 새로 노래를 작곡하거나 전통적인 민요 혹은 풍류방의 기악음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화성적 음질서 속에 재구성했다. 그러나 안기영은 민족교육을 시행했던 배재 출신답게 화성적 음질서 속에서도 전통적인 음계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5음 음계 혹은 반음이 최소화된 음계를 사용하여 노래를 작곡했고, 또, 종지음을 전통음악의 방법처럼 사용함으로써 완결된 화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한편, 전통적인 악곡의 경우 당시 유행하는 잡가, 향토 민요, 창극조를 폭넓게 사용했고,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기악음악(제25곡) 마저도 가창 음악으로 전환시켜 활용했다. 이러한 점은 안기영이 이 작품을 작고할 때, 향토가극이라는 이념에 부합하도록 작품의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기영이 악곡을 작곡하던 당시 대부분의 악곡이 기존의 유행가 가사를 개사하거나 일본식 유행가풍으로 작곡된 점에 비해 이 작품은 개인의 독창성과 민족의 음악적 특성을 근대 서양식 작곡행위로 잘 승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안기영은 3성부 합창곡과 남녀 합창곡을 작곡할 때, 단순한 선율선의 전개를 극복하고 음악 양식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다른 악곡의 악곡들보다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하는 이 유물의 의해 가극 <콩쥐팍쥐>에 속해 있는 하위 악곡 목록을 연극의 전개에 따라 나누어놓고, 각 악곡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景	번호	악곡명	작곡·편곡	연주	비고
1	1	나물 캐는 노래	민요	여성합창	도라지
	2	김매는 노래	안기영작곡	남성합창	민요 형식-메기고(甲乙丙丁) 받음(합창)
	3	콩쥐來歷	안기영작곡	합창	5음음계
	4	악보 없음			
2	5	팍쥐모의 吐心曲	안기영작곡	독창	반종지

	6	팔쥐의 흥打令	민요	독창	경기흥타령
	(7)	콩쥐의 自歎歌(其一)	안기영작곡		
3	(8)	콩쥐의 自歎歌(其二)	안기영작곡		반주보 포함
	9	검은소의 노래	안기영작곡		반주부의 적시
4	10	感恩歌	안기영작곡	독창/합창	반주부 포함
6	(11)	팔쥐母女의 耽食하는 노래	안기영작곡	독창교환창	반주부포함
	12	악보 없음			
	13				
(7)	14	건나마을 안생원	안기영작곡		
	15	잔치구경 생각에	안기영작곡		
8	16	콩쥐 自歎歌(其三)	안기영작곡		
	17	물길는 노래	안기영작곡		민요
	18	참새 방아 찧는 노래	안기영작곡		3성(T/S/B)
	19	베짜는 노래	안기영작곡		민요
	20	기쁨의 노래	안기영작곡	합창	
9	21	비단 신 한 짝	안기영작곡	혼성합창	남녀교환창/합창
	22	악보 없음			
10	23	신임자 나왔네	안기영작곡	전원연주	
	24	악보 없음			
12	25	아가씨 행복	영산회상타령	반주 포함	전통기악곡

()는 악보집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정 가능한 것
T/S/B는 각각 tenor/soprano/bass의 약자

- 이상의 표에서 제5경에는 해당하는 음악은 악보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대본에 의하면 제5경에도 음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경에는 “리듬風”의 악곡 즉 리듬이라는 요소만을 변화시킨 음악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리듬의 변화만 전개되기 때문에 오선악보가 없었던 것이다. 단 제11경에는 악보도 대본도 없다. 그러나 악보집의 편재 상황 보면 제23곡과 제25곡이 모두 한 장에 그려져 있으므로, 제24곡 하나가 제11경의 악곡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이 유물을 통해 악극 <콩쥐팥쥐>의 전모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 한국 악극이 막간극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영역을 개척한 시기는 대략 1930년대 중반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삼천가극단, 배구자악극단과 같이 전문적인 악극단체가 결성되었고, 한편으로는 동양극장과 같은 대중극 전문 공연장의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악극이 점차로 상승세를 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한편, 악극의 발달은 이와 별도로 1930년대 이후로 양악식 대중가요가 성장했는데 이것은 측면에서 악극의 발달을 견인했다. 예컨대 1930년대 이후로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음반사가 적극적으로 조선 대중음악계에 참여했고, 이들간의 경쟁을 통해 조선의 대중가요계는 급격하게 성장·팽창했다. 조선 대중가요계의 팽창에는 투자 자본의 규모가 커진 점도 있지만, 신민요, 유행가, 만요, 재즈송 등과 같은 다양한 가창 갈래의 등장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 하에 1940년대 이후에는 음반사는 음반외에도 악극을 후원했다. 음반회사는 악극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악극이 대중적 공연물로 공고히 자리를 잡도록 하였다.
- 1940년대 전후로 만들어진 악극의 경우 작곡가와 연출자에 의해 음악과 대본이 창작되었다. 악극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이 전개되었던 1940년대에는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은 향토가극이다. 향토가극은 작품의 양식은 물론이고 그 이념적 지표로 조선적 정체를 드러내는 공연물이다. 안기영의 <콩쥐팥쥐>는 <견우직녀>와 함께 대표적인 향토가극으로 꼽힌다. 그간 <콩쥐팥쥐>는 향토가극이라는 하위 갈래명을 얻기 전에 오페라 혹은 악극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가요계에서는 서양고전음악을 전공했던 작곡가의 작품과 이에 참여한 대학생 출신 전문 성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오페라라고 불렀고, 연극계에서는 향토악극의 연출과 음악이 여타 악극과 다를 바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냥 악극이라고 불렀다.

- 안기영의 <콩쥐팥쥐>는 거의 대부분 1940년대 여러 하위 악극 갈래를 연출했던 전문 연출가 서항석에 무대화되었고, 대중가요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의 음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음악가들도 참여했다. 이 점 때문에 안기영의 작품은 다른 악극들과 구별되기도 했다.
- <콩쥐팥쥐>의 플롯은 당대의 것이지만 이야기 내용은 구전설화와 잇닿아 있고, 악곡 역시 안기영이 양악의 음구조를 중심에 놓은 작품이지만 그 구조는 전통적인 음악과도 통한다. 실제로 안기영이 <콩쥐팥쥐>에서 작곡·편곡한 악곡들 가운데 상당수가 민요, 창극, 정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음악 갈래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새로 작곡한 작품 역시 전통적인 음악 진행법을 구현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안기영은 당대의 작곡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음악적 가창물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연의 참여자 등에서 <콩쥐팥쥐>는 당대의 음악 및 공연 역량이 총집중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콩쥐팥쥐>는 1941년 9월 콜럼비아 음반사의 악극단(이후 라미라가극단으로 개칭)에 의해 초연된 이후 약 15개월 간 최소 8차례 이상 공연되었고, 1944년부터 해방까지는 약 2년 간은 빅터 음반사의 반도가극단에 의해 최소 10여 차례 이상 공연되었다. 이는 현재 확인되는 기록만으로 확인된 숫자이다. 이는 이 공연물의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콩쥐팥쥐>의 음악의 경우도 역시 공연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곡조가 다수 사용·활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호응은 클 수밖에 없었다.

○ 문헌자료

- 김호연, 『한국근대악극연구』 서울: 민속원, 2009.
- 박찬호, 『한국가요사』 1 서울: 미지북스, 2009.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악보는 작품의 음악적 독창을 보일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이다. 그런데 이 악보의 경우 일반적 가창, 예컨대 음악공연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무대 공연예술인 가극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 유물에서는 악보를 통해 음악을 또 대본의 지시어를 통해 악보의 공연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료는 근대 시기에 악극의 모습을 보다 총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료로 평가된다.
- 근대 시기에 번영했던 가극의 악보로 학계에 소개된 것은 현재 둘이다. 하나는 안기영의 <견우직녀>(1941)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유물인 안기영의 <콩쥐팥쥐>이다. <콩쥐팥쥐>는 그 음악적 내용의 전모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음악 공연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의 악극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유물은 악보가 있기 때문에 음악사적 가치를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음악과 공연의 관계도 알려준다. 이 때문에 이 사료는 근대 연극 혹은 공연예술사의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연극사에서 해방 전 작품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본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점은 한국근대연극사의 이해와 서술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한 점이다. 그러나 본 사료를 통해 악극의 대본으로서의 구조 즉, 일반 연극대본에 음악적 공연내역이 추가된 구조를 완결성 있게 보여줄 수 있고, 그간의 단절되어 기록되었던 한국연극사 혹은 공연예술사의 연속적 전개를 설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본 사료는 음악사에서의 위치는 물론이고 연극 및 공연예술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며, 이에 본 조사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동원대학교 교수 ○○○ >

○ 현 상

- 안기영이 1940년대에 작곡한 향토가곡 악보 및 대본임
- 등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상태는 별로 양호하지 않음
- 전통적인 민요의 선율과 이를 차용한 노래들로 구성된 향토 가곡 중 드물게 발견된 귀중한 악보로 음악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함

○ 보존 상태

- 책 본문의 종이가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음
- 향후 보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책의 보존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바. 흥난파 동요악보 원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1930년에 발간된 흥난파의 창작동요집인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의 인쇄 원판
-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에는 흥난파가 작곡한 창작 동요 50편이 수록
- 50편의 창작 동요 중 <달마중>을 제외하고 전부 남아 있다.
- 50편의 곡 중 48편의 곡은 한 곡 당 한 쪽이며, 2편의 곡은 한 곡 당 2쪽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1곡이 한쪽인 것 48개와 1곡이 2쪽인 것 2곡(하모니카, 어머니 가슴)의 4개 그리고 없는 것 1개 등(48+4-1) 모두 51개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의 곡명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의 숫자는 쪽수이며 6. <달마중>의 원판은 없고, 16. <하모니카>와 33. <어머니가슴>은 2판(2쪽)으로 되어 있다)
- 1. 속임(7) 2. 도레미파(8) 3. 휘스바람(9) 4. 할미꽃(10) 5. 해바라기(11) 6. 달마중(12) 7. 쪼각빚(13) 8. 조희배(14) 9. 봄편지(15) 10. 엄마생각(16) 11. 두루맥이(17) 12. 옴바생각(18) 13. 수레(19) 14. 고향의봄(20) 15. 아가야자장자장(21) 16-1. 하모니카(22), 16-2 하모니카(23) 17. 은행나무아래서(24) 18. 식골길(25) 19. 감동병아리(26) 20. 나무넙(27) 21. 뱃사공(28) 22. 집신씩(29) 23. 빨간가락뿔(30) 24. 초생달(31) 25. 낮에나온반달(32) 26. 돌다리(33) 27. 가을바람(34) 28. 고향하늘(35) 29. 풍당풍당(36) 30. 병정나팔(37) 31. 달(38) 32. 무명초(39) 33-1. 어머니가슴(40)

33-2. 어머니가슴(41) 34. 동리의원(42) 35. 작은별(43) 36. 박꽃아가씨(44) 37. 골목대장(45) 38. 바닷가에서(46) 39. 어머니(47) 40. 장미꽃(48) 41. 봉사꽃(49) 42. 옥톡기(50) 43. 푸른언덕(51) 44. 쫓겨난동생(52) 45. 쓸돼지(53) 46. 노래를불러주오(54) 47. 가을밤(55) 48. 기력이(56) 49. 참새(57) 50. 밤세톨을굽다가(58)

- 우리나라 동요사에 있어 초기의 창작 동요에 해당하며 한국창작동요를 개척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으로 시작하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으로 시작하는 <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로 시작하는 <풍당 풍당>, “욕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후에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이라는 가사로 바뀌었다)으로 시작하는 <하모니카>, “반짝 반짝 아름다운 작은 별들”로 시작하는 <작은별> 등, 한국창작동요를 상징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 온 곡들이 대거 있다.
- 오선보 악보 인쇄는 문자 인쇄와는 달리 특수 인쇄에 해당한다. 20세기 초까지는 일본에서 인쇄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의 악보 인쇄 역사 및 기술과 특징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료라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가장 오래된 악보 인쇄 원판 및 1930년 당시 인쇄 원판 중 현존하는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동요백곡집은 1929년 연악회에서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을 발행하였으며(25편 수록), 1929년 11월 같은 연악회에서 다시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을 발행(50편 수록)하였다. 그렇지만 1929년판은 단국대학교에 있는 원판을 쓰지 않았고 등사한 것으로 보인다(삽화와 악보가 다름). 1930년 삼문사서점에서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을 초판 발행하였으며, 1931년 재판을 발행했다.
- 1991년 <조선동요백곡집>이란 영인본이 발행되었으며, 1933년 완성된 조선동요백곡집이 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33년에 발행된 것을 영인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 수록된 앞부분의 50곡은 모든면(삽화, 쪽수, 악보체, 가사체 등)에서 1930년 삼문사서점에서 <조선동요백곡집> 상편과 같은 원판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단국대학교에 있는 원판이 계속 쓰인 것으로 보임

○ 문헌자료

-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편).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경기도지회·민족문제연구소, 2006.
- 홍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삼문사서점, 1930.

○ 기 타

-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한 것

○ 종합의견

- 한국동요사를 개척한 작품이라는 역사성과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범민족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라는 상징성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악보 인쇄 원판 및 1930년 당시 인쇄 원판 중 현존하는 유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단국대학교에는 『조선동요백곡집』(1930)을 간행했던 오선보활판이 소장되어 있다.

활판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보관 역시 잘 되어 있다. 활판은 전시장 안에 진열되어 있다.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중앙에 전시장이 6개가 있는데, 각 장마다 상·하 혹은 상·중·하로 활판을 인쇄본과 함께 진열해 놓았다. 창가 쪽에 진열장이 3개, 문 쪽에 또 3개가 있다. 창가 쪽부터 출입문 쪽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소장된 활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장	위치	동요 제목
1	상	바닷가에서, 감동병아리, 장미꽃, 봄편지
	하	푸른 언덕, 노래불러주어, 나무잎
2	상	엄마생각, 가을밤, 죽임, 어머니가슴(6번장의 악곡 계속)
	하	벧사공, 시골길, 기럭이, 옥톡기
3	상	병영나팔, 풍당풍당, 할미꽃, 하모니카
	하	돌다리, 가을바람, 도레미파, 고향의봄
4	상	제목없음, 해바라기, 꿀돼지, 쫓겨난 동생
	하	달, 두루막이, 읍바생각, 낮에 나온 반달
5	상	밤 세톨을 굽다가, 봉사꽃, 빨간가랑잎, 집신방, 골목대장
	중	참새, 처마끝 새 한 마리, 새벽닭, 버들피리, 설날
	하	수레, 어머니, 작은 별, 아가야 자장자장, 무명초
6	상	어머니가슴, 조각빛, 박꽃 아가씨, 초생달
	하	휘파람, 조희배, 은행나무 아래서, 동리의원, 고향하늘

※ ‘처마 끝 새한마리’, ‘새벽닭’, ‘버들피리’, ‘설날’, ‘제목없는 원판’ 각 1매는 조선동요백곡집 미수록곡임

○ 내용 및 특징

- 20세기 전반기에 동요는 현재의 동요와 다른 음악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당시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인 동시에 낯선 서양음악의 음질서를 조선의 감수성 속에 편입시키는 방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라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조선 작곡사의 전개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 홍난파가 귀국한 직후 만들었던 『조선동요백곡집』(1930)은 윤극영의 『반달』(1919)만큼이나 당대에 널리 영향을 미쳤던 악보집이다. 그 음악사적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 악보집의 간행이 흥미로운 점은 비단 음악사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조선에서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국대학교의 오선활판은 지금으로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오선활판이다. 만약 오선활판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선악보의 활판이 당시 조선인의 손에 있었던 점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오선활판의 존재는 이 악보의 수요가 컸던 점을 반영한다.

○ 문헌자료

- 민경찬 편저, 『홍난파자료집』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1930)이 근대음악 형성에 기여한 점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악보집의 원천이 되는 오선활판은 더 이상의 음악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따라서 오선악보의 원천이 되었던 활판은 한국 근대음악사의 사료로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요 오선 활판은 음악사료로서의 가치도 외에도 그것의 출판문화사적 영향 역시 크다. 1920년대까지 조선인의 음악작품 혹은 조선에서 소용되는 악보가 인쇄될 때에는

일본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1930년대에 오선 활판이 조선인의 손에 있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문화사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당시 인쇄업계 내에서도 오선 인쇄가 낯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판을 만들었던 점은 『조선동요백곡집』 생산량과 일반에서 그것의 수용량도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지어 오선보 독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오선 악보의 인쇄활판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한국음악사는 물론이고 한국출판문화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조사자는 악보 활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난파 동요 원판

○ 현 상

- 단국대가 소장 중인 난파 동요 인쇄 원판은 초창기 악보 인쇄 기술을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무엇보다도 난파 자신이 직접 악보를 그려 넣었다는 점에서 필사본 못지않은 권위를 인정받는다.
- 동요 악보가 인쇄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낯장 악보이건 동요집이건 당시 동요가 요즘의 유행 가요처럼 널리 불려졌음을 시사한다.
- 난파가 남긴 음악 작품 가운데 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동요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등 사람들의 뇌리에서 오래 기억되고 있는 장르가 동요이기 때문에 이 동요 원판의 가치도 그만큼 값진 것이다.

○ 종합의견 : 등록가치 있음

사. 홍난파 음악만필 자필원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1938년에 출간된 홍난파의 저서 『음악만필』의 자필 원고로, 이전에 발표한 글을 모아 출판을 위해 원고지에 다시 쓴 것이다.
- 200자 원고지 234장에 달하는 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원고의 순서는 출판된 책의 순서와 대체로 같다.

○ 내용 및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평론집 및 수상집의 자필 원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한 『음악만필』은 우리나라의 음악평론을 개척한 단행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홍난파 자신이 쓴 수상록과 평론 등을 모아 1938년 『음악만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 『음악만필』은 최초의 음악평론집 및 수상집이며, 1938년 이전의 우리나라 음악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저서이다.
-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의 음악관을 알 수 해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근대 음악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 책의 저자의 자필 원고

○ 문헌자료

-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편).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경기도지회·민족문제연구소, 2006
- 홍난파, 『음악만필』, 연악회, 1938

○ 기 타

-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한 것

○ 종합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평론집 및 수상집의 자필 원고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의 음악관을 알 수 해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근대 음악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 책의 저자의 자필 원고라는 중요성 및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홍난파는 음악가로서도 알려져 있지만, 1910년대부터 이미 음악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잡지에 기고했고, 일본 유학 시절에는 유학생들과 함께 잡지를 창간하기도 할 만큼 문인로서의 자질도 충분했다. 1910년대 이후 잡지 등에 음악에 대한 글들을 발표했고, 이후 1938년에는 국내 최초로 음악관련 수상집 『음악만필』을 출판했다. 『음악만필』은 근대적 음악관을 소개한 최초의 개인 저자의 단행본이었다.
- 이 유물은 1938년 출판된 『음악만필』의 초고이다. 24x10간의 일본산 원고지에 자필로 쓴 원고인데, 표지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내용은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 자필 원고의 중간에는 인쇄용 표시 및 수정 사항을 적은 것이 곳곳에 눈에 띄고, 원고의 정서한 부분도 선명하다.

○ 문헌자료

- 민경찬 편저, 『홍난파자료집』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단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홍난파의 자필원고 《음악만필》은 홍난파의 문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소설과 수필이고, 음악적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의 소설과 수필이 문학사에의 기여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 없고, 음악에 대한 진술 내용 역시 어떻게 당대의 음악 비평계 혹은 음악지성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본 조사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의 의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보류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홍난파 평론집 육필 원고

○ 현 상

- 난파 홍영후가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를 겸했던 당시 국내 음악계에서 음악가의 전공은 그리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펜을 들어 신문, 잡지 등에 음악 관련 에세이를 집필하는 등 음악평론 분야에 손을 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음악만필'은 한국 최초의 음악평론집이다. 내용 면에서는 아마도 일본을 통해 전해진 서양음악사의 뒷얘기와 연주자 관련 에피소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 음악회에 대한 연주평은 거의 없어 수필집에 가까운 게 사실이지만, <가정음악에 대하여> <재즈 음악에 대하여> <색채 음악에 대하여> 등은 당시 음악계의 화두로 등장한 이슈들을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조명한 본격 비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서양 음악의 비교>는 이후 현재까지도 음악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한국음악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938년 영창서관에서 초판이 나온 이 책은 1976년 음악예술사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초창기 한국 음악계의 단면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다.
- '음악만필' 육필 원고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록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덜한 음악계에서 매우 값진 의미가 있는 근대문화재로 사료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아. 안익태의 첼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애국가>의 작곡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첼로 연주자였던 안익태가 소장했던 첼로
- “Ferdinandus Gagliano Filius Nicolai fecit Neap 1766”라는 상표가 붙어 있다. 고가(高價)로 추정되는 악기이다.
- 악기 케이스가 없고, 첼로는 네 줄인데 한 줄이 없고, 활이 없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 안익태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첼리스트였다. 따라서 첼로로 음악을 시작한 안익태가 소장한 첼로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첼리스트로서 국내 및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무렵에는 이 악기가 아니라 다른 악기(일제 스스키)를 사용하였다.
- 안익태가 이 악기를 언제 구입했고 어떤 음악회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고가의 악기라는 점과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무렵에는 다른 악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지휘자로 성공을 한 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이 악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언제 구입했고 어떤 음악회에 사용하였는지 등 악기 이력에 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문헌자료

- 전정임. 『안익태』, 시공사, 1998.

○ 기 타

- 유가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

○ 종합의견

- <애국가>의 작곡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첼로 연주자였던 안익태가 소장했던 첼로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언제 구입했고 어떤 음악회에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 보류 의견을 제시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안익태의 유족이 기증한 첼로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활은 없고 첼로만 보관되어 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 보관용 나무틀을 짜고 내부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악기를 올려 놓았다. 악기 외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 불가능하다. 첼로 하단에 각봉이 떨어져 나갔고, 앞판과 뒷판의 울림을 연결해주는 버팀막대(soundpost)는 이탈되어 첼로 내부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현은 제일 높은 음을 내는 a줄이 없고 세 줄만 남아있으며, 왼쪽 옆면

각봉을 쫓는 하단 부분 그리고 뒷판에 균열이 있는데 특히 뒷판의 상단 부분이 심하다. 또한, 몸체의 테두리가 부분적으로(특히 상단) 깨져 있다.

- 악기의 몸체 안 뒷판에 “Ferdinan○○s Gagliano Filius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Ferdinandus로 해석하고 있음)/ Nicolai Fecit Neap 1766”이라는 레이블이 찍혀 있고, 현을 놓는 브릿지에는 “PARRAMON ”과 “BA○○○○”이라는 문자가 박혀 있다. 즉, 이 악기에는 18세기 이태리 명장이 만든 악기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독립기념관에는 이 악기의 내용에 대해 보증서나 기증자의 증언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것이 Gagliano의 진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진품여부는 전문적인 서양 현악기 악기장樂器匠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이 악기를 조사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뒷판에는 나무의 결이 매우 고르게 나 있다. 그러나 이외의 특징 예컨대, 도장의 두께와 정도, 악기의 모양에 따른 제작 상황의 유추, 악기 부위별 목재의 두께 등 음향 물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향물리적 판단은 이 악기 사용자의 전문성과 음악적 가능성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안익태는 국내 최초의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익태는 음악가로서 성장한 후 첼로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지 않고 지휘자 혹은 작곡가로서 활동했다. 첼로 연주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연주 시 본 조사대상이 된 유물로 했는지는 현재 알려진 바 없다.
- 이 악기에 붙어 있는 제작기 중 “Gagliano”는 현재 국내의 첼로 전문연주자에게도 잘 알려진 이름이다. 갈리아노는 유럽 최고의 명기는 아니지만, 고가의 악기(진품인 경우 4-5억)로 꼽힌다. 따라서 이 악기가 안익태 생존 시 그의 악기로 사용되었다면,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더욱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알려진 안익태의 음악적 행보 때문이다. 안익태의 경우 음악적 중장년기를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지휘자 혹은 작곡가로 보냈기 때문에 이 악기로 전문적인 연주 무대에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악기가 안익태의 일본 시기의 악기인지, 유럽 혹은 미국 시기의 악기인지에 대해서, 또 이 악기가 전문가가 사용할만한 악기인지 여부 등은 악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

○ 문헌자료

- 전정임, 「안익태」 서울:시공사, 1998.
- 김경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서울:현암사, 1991.
- 김경래, 「안익태 그 영광과 슬픔」 (서울: 안익태기념재단, 2006).
- 안익태, “서양 음악에 대하여; 음악공부를 의망하는 니에게 (상·하)” 「동아일보」, 1934년 4월 18일, 19일
- “대한국 애국가”, 「신한민보」 1936년 3월 26일.
- “歐洲音樂旅行記 (上·下)”, 「동아일보」, 1936년 8월 8일, 9일
- 기자, “대담-안익태 씨와의 인터뷰” 「세계일보, 1960년 3월 13일.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안익태의 한국음악사에서의 기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들은 중 대부분이 안익태의 전기적 행적에 한정된다. 특정 음악가의 음악사적 기여는 그의 음악행위가 다음 세대 혹은 활동 당시의 음악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을 때 설명 가능하다. 안익태의 경우 현재 전기적 기록들이 음악사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다.

- 안익태 첼로를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안익태의 첼로 주자로서의 기여를 선명히 해야만 하는데, 현재로서 그 영향력은 당대나 후대나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다. 물론 안익태가 위대한 조선의 작곡가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구체적인 기여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애국가 작곡가 혹은 국위를 빛낸 지휘자의 경우로 한정된다.
- 현재 안익태의 전기적 기록과 사실들이 음악사적 평가를 받기에는 그 관계가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많아서 이 상황에서 이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안익태라는 한 개인의 유명세로 이 악기가 문화재로 등록되기에는 현재 근대 음악유물로 더 시급히 등록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 이에 본 유물은 좀 더 조사한 후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종합의견 : 정밀조사 후 등록 여부 검토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안익태 첼로

○ 현 상

- 악기 몸통 내부에 부착된 라벨에는 "Ferdinandus Gagliano Filius/ Nicolai fecit Neap 1766"이라고 적혀 있다. '니콜라이 갈리아노의 아들 페르디난도가 1766년에 나폴리에서 만들었다'라는 뜻이다. 갈리아노 집안은 아마티,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버금가는 현악기 제조 가문이다. 페르디난도 갈리아노(1706-1781)가 1766년에 만들었으니 원숙기의 작품에 해당된다. 페르디난도 갈리아노의 아버지인 니콜로 갈리아노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제자다. 참고로 같은 해인 1766년에 페르디난도 갈리아노가 만든 바이올린이 199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2000만 파운드(약 1억원)에 팔렸다. 첼로가 바이올린에 비해 약간 덜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악기 자체의 골동품적 가치도 결코 적지 않다. 약간의 수리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도 실제 무대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음색을 뽐낼 수 있는 악기다. 수리 후에 국내 정상급 연주자가 안익태의 작품을 첼로로 연주하는 시연회를 열어도 좋을 듯하다.
- 안익태는 첼로와 함께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작곡가, 지휘자이기 이전에 첼리스트였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첼로는 매우 소중한 악기다. '한국 환상곡'에서도 다른 악기는 관현악법이나 작곡법 상에 문제점이 다소 드러나고 있지만 첼로 파트만큼은 악기를 알고 썼다.
- 유족이 한국 정부에 기증해 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 소장 중인 이 첼로는 제작 연도와 메이커는 확실하나 언제 연주되었는지의 정황이 불명확하다.
- 안익태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 틈틈이 첼리스트로 활동하는데 이 정도의 악기 정도가 되어야 프로페셔널 연주자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 종합의견 : 등록가치 있음

자. 홍난파 바이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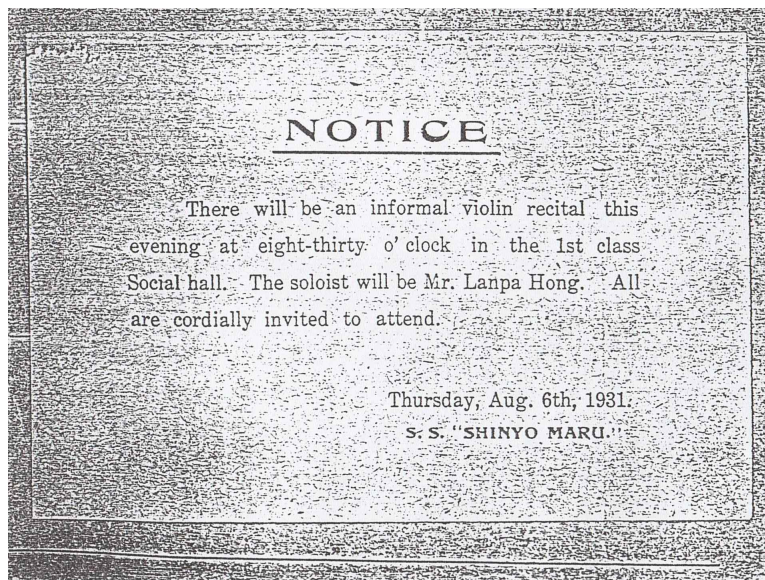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홍난파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 바이올린은 네 줄인데 한 줄이 없는 상태임(악기케이스와 활은 있음)
- 상표가 없어, 제조회사 및 제조날짜 등을 알 수 없다.

○ 내용 및 특징

- 홍난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일본의 동경음악학교와 고등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였고, 1924년 1월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음악회는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독주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바이올린 교육자로서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양성하였다.
-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홍난파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악기에도 이력이 있는데, 제작 년도와 제품명, 홍난파가 언제부터 사용했고 어떤 음악회에서 연주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 다만, 악기 케이스에 미국 행 배편(N.Y.K.LINE ShiyoMARU)과 하와이의 호텔(Alexander Hotel HONOLULU HAWAII)의 라벨이 붙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미국 유학을 떠난 1931년 8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홍난파의 여권에 의하면 하와이 호놀룰루 도착이 1931년 8월 7일이고 호놀룰루 출발이 1931년 8월 21일이다.
- 홍난파는 미국 유학을 가던 배 안에서 선상독주회(船上獨奏會)를 개최하였다. 그 초대장에는 “오늘 저녁 8시 30분에 1등석 사교실에서 바이올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연주자는 홍난파씨이고 모든 분들은 참석하시도록 정중히 초대합니다. 1931년 8월 6일 화요일 SHINYOMARU”라고 되어 있다.



홍난파 선상 초대장

- 그렇지만 언제 구입했고 어떤 음악회에 사용하였는지 등 악기 이력에 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문헌자료
 -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편),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경기도지회·민족문제연구소, 2006.
 - 기 타
 - 유가족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한 것
-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현재 단국대학교에는 홍난파의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바이올린, 활, 여벌 현, 송진, 브릿지, 조임쇠, 현 보관용 봉투, 기타 줄 상자 등과 같은 소모품 일습이 들어있다. 이 중 바이올린이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현은 3개만 브릿지 위에 올려져 있다. 바이올린의 제작 상황은 알 수 없고 브릿지에는 ANDREW S. KIM이라고 찍혀있다. 소모품 중에는 여벌 브릿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올린의 브릿지와 달리 M. FRANKE WISBADEN이라고 찍혀있다. 또 현 보관용 비닐 봉투 네 개가 있는데, 그 중 세 개는 바이올린 D현의 봉투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타 줄 봉투이다. 활과 악기 케이스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악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 이상을 조사하지 못했다.
- 악기 케이스는 NOISHIKI라 찍힌 금속 잠금장치가 있고, 케이스 표면에는 여러 개의 스티커들이 붙어있다. 이 중 스티커는 홍난파의 행적과 통하고 있다. 예컨대 앞면에 3개 측면에 1개가 붙어있는데, 앞면에 붙은 두 개의 스티커에는 N.Y.K. LINE (도미 배편) 로고가 그려져 있고, 다른 스티커에는 N.Y.K. LINE이 로고는 물론이고 이 배의 일등석 좌석 번호와 악기 주인 즉, 홍영후의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있다. 앞면에 붙은 또 다른 하나의 스티커에는 "HONOLULU HAWAII" 와 "Alexander Yong Hotel"이라는 문구와 호화로운 호텔 그림이 있다. 이는 배편에 따라다니는 광고 이거나 홍영후가 묵은 숙소로 추정된다. 측면에 붙은 스티커는 "F-015920"이라는 일련기호만 찍혀 있는데, 그 정체는 현재 알 수 없다.

○ 내용 및 특징

- 홍난파가 바이올린은 주자로서 활동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유물은 홍난파가 도미渡美 했을 때 바이올린을 휴대했던 정황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유물의 구체적 용도, 즉 언제 어떤 연주를 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고, 나아가 이 유물의 악기상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 문헌자료

- 민경찬 편저, 『홍난파자료집』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홍난파는 근대음악사에서 다면적으로 기여한 음악가이다. 그의 기여는 선행 연구에서 상당히 밝혀져 있다. 이에 의하면, 홍난파의 음악가로서의 정체는 매우 다양한 국면에서 평가 가능하고, 그의 바이올린 주자로서의 자질 역시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나 그의 바이올린이 그의 음악사적 기여의 상징물이 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급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홍난파의 여러 유물들 가운데 홍난파의 음악사적 기여를 우선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먼저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 과정에서 바이올린 주자로서 홍난파의 행적보다 더 큰 음악사적 기여가 발견되었으므로 그의 바이올린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 종합의견 : 정밀조사 후 등록 여부 검토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난파 바이올린

○ 현 상

- 단국대가 홍난파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소장 중인 바이올린은 난파가 생전에 연주했던 악기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구입 경로나 구체적인 연주 정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 바이올린이 담겨 있는 케이스에는 193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선했던 여객선에서 발행한 화물표가 부착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6일 배에서 열었던 선상음악회에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다.
 -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는 뉴저지 브룬스위크에서 만든 현(string) 케이스와 쓰다 남은 현, 송진 등이 함께 들어 있다. 줄을 담고 있는 비닐 케이스에 적혀 있는 상표로 볼 때 이는 시카고 유학 시절에 구입한 것 같다.
 -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노이시키(Noishiki)라는 메이커가 쇠판에 새겨져 있고 F-015920이라는 일련번호가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다.
 -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NYK Line(여객선명), State Room(객실 등급) 등이 적혀 있는 딱지 위에 펜글씨로 난파의 본명인 '홍영후'(Mr. Young Hoo Hong)라고 적혀 있다. 미국행 여객선이 중간 기착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묵었던 것으로 보이는 Alexander Young Hotel 스티커가 붙어 있다.
 - 난파는 1933년 5월 6일 경성공회당에서 귀국 독주회를 연다. 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바이올린이 미국 유학시절에 연주했던 악기가 맞다면 33년 귀국 독주회에서도 같은 악기로 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 홍난파는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등 다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고 지금에 와서는 작곡가로서 재조명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바이올린을 통해 작곡의 영감을 얻었고 그의 음악, 그의 동요는 바이올린 선율을 연상케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바이올린은 매우 소중하고도 매우 의미있는 악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악기이며 어떻게 구입한 것이며 언제 연주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 종합의견 : 등록하기엔 다소 미흡함

차. 배재학당 피아노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현 상

- 독일 Blüthner 피아노
- 우리나라 중요 음악회장의 하나였던 배재학당 강당에 있던 피아노로, 배재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박물관의 상시 전시물로 전시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우리나라 중요 음악회장에서, 전봉초, 김순열, 김순남, 황병덕 등 당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했던 피아노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주요 연주회장에서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피아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한동일과 백건우 등이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피아노다. 특히 한동일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 이 피아노로 배재 강당에서 도미 고별 연주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 기 타

- 아펠젤러가 배재학당에 기증한 피아노로, 우리나라 중요 음악회장의 하나였던 배재학당 강당에서 사용을 한 후, 배재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박물관의 상시 전시물로 전시되고 있다.

○ 종합의견

- 우리나라 중요 음악회장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했던 피아노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주회장에서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피아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

○ 현 상

- 현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랜드 피아노 “Blütnner 84412”는 정동에 있었던 배재학당 대강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피아노는 학교의 설립자 아들인 아펜젤러(H. D. Appenzeller, 1920-1939)가 대강당 신축하면서(1932-1933) 들여온 것이다.
- 배재학당역사박물관측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1982-)에서 이 악기가 독일 부뤼트너 회사의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이며, 당시 이 회사의 음향기술 특허인 알튀퀴드 기법을 적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고증했다고 한다. 알튀퀴드 기법이란 피아노의 현에서 풍요로운 음색을 얻기 위해 기존의 현에 주차고 현을 하나 더 매 놓은 것을 말한다. 이후로 이 방법은 폐기되었지만 이 악기의 제작 당시에는 부뤼트너 회사는 알튀퀴드 기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단, 이 악기는 독일 악기이지만,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이 악기를 1930년대 초에 들여왔다고 한다.
- 현재 이 악기는 외형은 견고하지만, 악기적 기능은 사라졌고, 일반인에게 진열품으로 공개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대한제국기에 황실에 피아노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 악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악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교육의 맥락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역사적 악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1930년대 초반 이후 배재에서 수학을 했거나 배재의 강당을 이용했던 많은 음악가들이 이 피아노와 관련을 맺었다. 예컨대 김순열, 박은용, 김순남, 이흥렬, 김순남, 황병덕, 한동일, 백건우, 국민음악연구회 등과 같은 배재 졸업생과 음악가 혹은 음악가 단체는 이 피아노를 사용하여 배재학당 강당에서 연주를 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료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 배재학당은 1930년대 초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그랜드 피아노와 좋은 악기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음악가들을 성장시키는 요람 역할을 했다. 배재학당의 강당에 피아노가 있었던 점은 요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 이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된 유물, 배재학당 피아노는 교육의 도구로서 한편으로는 척박한 음악공연 환경을 개척해가면서 한국 근대음악사의 전개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민경찬, “배재와 근대음악” 『졸업앨범을 통해본 한국근대인물』 서울:배재학당역사박물관, 2011.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제공자료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유물은 처음 국내 출현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유럽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건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배재학당의 피아노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본 조사 시에 함께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측은 피아노에 대한 악기 전문가 집단, 즉,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고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악기의 음악사적 맥락과 기계적 맥락은 서로 상통할 수 있었다. 본 조사 과정에서 악기의 음악사적 위치가 악기 구조적으로도 확정된 경우는 이 경우뿐이다. 이 사료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될만한 역사적 자질을 갖고 있고, 동시에 조사 절차도 적절했으므로 이에 이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제안한다.

○ 종합의견 : 등록 가치가 있음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

○ 문화재명칭(안) : 배재학당 피아노

○ 현 상

- 배재학당은 배재중학교(현재의 배재고등학교)의 옛 이름이다. 이 강당은 전문 음악 연주홀이 없던 시절에 많은 연주자들이 섰던 유서 깊은 무대였다. 이 피아노는 국내 최초로 수입된 그랜드 피아노임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강당 개관 이후 줄곧 무대를 지켜온 배재학당에서 사용된 피아노라는 점에서 어느 피아노보다 값진 의미를 지닌다.
- 피아노는 라이프치히에서 율리어스 블뤼트너(Julius Blüthner)사가 제작한 것이다. 1853년에 설립된 회사다. 일련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조회한 결과 1911년에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피아노에는 당시 블뤼트너가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낸 '4현'(Aliquot) 방식의 제작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이 신기술은 1910년 브뤼셀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악기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19세기 후반 라이프치히는 독일 음악의 중심지였다. 영국의 런던, 오스트리아의 빈, 프랑스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음악 도시였다. 블뤼트너는 1900년 독일 최대의 피아노 메이커로 자리잡았다.
- 배재학당 박물관 3층에 상설 전시 중인 이 피아노는 배재 학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자료에도 자주 등장한다. 아펜젤러 박사가 직접 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이 피아노는 업라이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라는 점에서 아펜젤러 박사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강당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 종합의견 : 등록가치 있음

<참고>

- (사)한국피아노 조율사협회 회원인 ○○○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피아노라는 의견을 제시함

붙임 1.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유물목록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장

빅타 레코드 유성기음반 금속원반 목록

일련번호	소장번호 ⁹⁾	음반번호 10)	면	확장번호 ¹¹⁾	초판번호 ¹²⁾	면	곡목	연주자
1	LoenMT001	KJ1031	A	JRE-726-1			용탄어수(상)	조소옥
2	LoenMT002	KJ1031	B	(E-727-1)			용탄어수(하)	조소옥
3	LoenMT003	KJ1032	A	JRE-759-2			할머니편지 개구리	김정임
4	LoenMT004	KJ1032	B	JRE-747-1			꽃밭 눈, 꽃, 새	김정임
5	LoenMT005	KJ1033	A	KRE-714-1			충의(상)	황철
6	LoenMT006	KJ1033	B	KRE-715-1			충의(하)	황철
7	LoenMT007	KJ1034	A	KRE-752-1			가난타령	이소향(가야금병창)
8	LoenMT008	KJ1034	B	KRE-753-2			중타령	이소향(가야금병창)
9	LoenMT009	KJ1035	A	JRE-724-1			신연맞이(상)	김여란
10	LoenMT010	KJ1035	B	KRE-725-1			신연맞이(하)	김여란
11	LoenMT011	KJ1036	A	JRE-734-1			별상청배	김종조 박농옥
12	LoenMT012	KJ1036	B	JRE-735-1			염불	김종조 박농옥
13	LoenMT013	KJ1037	A	JRE-736-1			도서방	황철 추초선
14	LoenMT014	KJ1037	B	JRE-737-1			도서방	황철 추초선
15	LoenMT015	KJ1038	A	KRE-750-1			홍문연(상)	이소향
16	LoenMT016	KJ1038	B	KRE-751-1			홍문연(하)	이소향
17	LoenMT017	KJ1039	A	JRE-730-1			수제(상)	김여란
18	LoenMT018	KJ1039	B	JRE-731-1			수제(하)	김여란
19	LoenMT019	KJ1040	A	JRE-732-1			느린난봉가	김옥엽 민형식
20	LoenMT020	KJ1040	B	JRE-733-1			중난봉가	김옥엽 민형식
21	LoenMT021	KJ1041	A	KRE-728-1			육자가	조소옥
22	LoenMT022	KJ1041	B	JRE-729-1			홍타령	조소옥
23	LoenMT023	KJ1042	A	JRE-738-1			도는것 비누풍선	김정임
24	LoenMT024	KJ1042	B	JRE-749-1	(E-729)		햇빛은 짹짹 돌멩이	김정임
25	LoenMT025	KJ1043	A	JRE-1106-1			봉황국	정해시 심상건 김덕준 한성준
26	LoenMT026	KJ1043	B	JRE-1107-1			취포무	정해시 심상건 김덕준 한성준
27	LoenMT027	KJ1044	A	SRE-1121-1			명당정	신수덕
28	LoenMT028	KJ1044	B	JRE-1122-1			천수	신수덕
29	LoenMT029	KJ1045	A	JRE-1096-1			축원	하용남
30	LoenMT030	KJ1045	B	JRE-1097-1			고사	하용남
31	LoenMT031	KJ1046	A	JVE-7911-1			진양조	심상건 정해시 김덕준
32	LoenMT032	KJ1046	B	JVE-7912-1			평타령	심상건 정해시 김덕준
33	LoenMT033	KJ1047	A	JVE-7913-1			엇중머리	심상건 정해시 김덕준 한성준
34	LoenMT034	KJ1047	B	JVE-7914-1			잔머리	심상건 정해시 김덕준 한성준
35	LoenMT035	KJ1048	A	JRE-1125-1			호반의애가(상)	서일성 신은봉
36	LoenMT036	KJ1048	B	JRE-1126-1			호반의애가(하)	서일성 신은봉
37	LoenMT037	KJ1049	A	JRE-1113-1			회심곡	하용남
38	LoenMT038	KJ1049	B	JRE-1114-1			산염불	하용남
39	LoenMT039	KJ1050	A	JRE-1095-1			패성가	심상건
40	LoenMT040	KJ1050	B	KRE-1110-1			객래문아	심상건
41	LoenMT041	KJ1051	A	JRE-1128-1			인호상	조금옥
42	LoenMT042	KJ1051	B	JRE-1127-1			강산유람	조금옥
43	LoenMT043	KJ1052	A	JRE-1131-1			곡마단(상)	서일성 신은봉
44	LoenMT044	KJ1052	B	JRE-1132-1			곡마단(하)	서일성 신은봉
45	LoenMT045	KJ1053	A	KRE-1123-1			안진반	신수덕
46	LoenMT046	KJ1053	B	JRE-1124-1			장암염불	신수덕
47	LoenMT047	KJ1054	A	JRE-1108-1			황릉묘전편(상)	심상건(가야금병창)
48	LoenMT048	KJ1054	B	JRE-1109-1			황릉묘전편(하)	심상건(가야금병창)
49	LoenMT049	KJ1055	A	JRE-1104-1			지도서(상)	신수덕
50	LoenMT050	KJ1055	B	JRE-1105-1			지도서(하)	신수덕
51	LoenMT051	KJ1056	A	JRE-1098-1			오조	하용남
52	LoenMT052	KJ1056	B	JRE-1099-1			반백이	하용남
53	LoenMT053	KJ1057	A	JRE-1111-1			황릉묘후편(상)	심상건(가야금병창)
54	LoenMT054	KJ1057	B	JRE-1112-1			황릉묘후편(하)	심상건(가야금병창)
55	LoenMT055	KJ1058	A	JRE-1119-1			고산염불(상)	신수덕
56	LoenMT056	KJ1058	B	JRE-1120-1			고산염불(하)	신수덕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57	LoenMT057	KJ1059	B	KRE-1116-1			비련(하)	서일성 신은봉
58	LoenMT058	KJ1060	A	KRE-153-2			탈의상증(상)	김소희
59	LoenMT059	KJ1060	B	KRE-154-1			탈의상증(하)	김소희
60	LoenMT060	KJ1061	A	KRE-102-1			꽃모듬	구재회 김능사
61	LoenMT061	KJ1061	B	KRE-103-1			꽃모듬	구재회 김능사
62	LoenMT062	KJ1062	A	KRE-113-1			십대왕풀이	김주호
63	LoenMT063	KJ1062	B	KRE-114-2			산나림	김주호
64	LoenMT064	KJ1063	A	KVE-101-1			대탈선(상)	김영환 신은봉
65	LoenMT065	KJ1063	B	KVE-102-2			대탈선(하)	김영환 신은봉
66	LoenMT066	KJ1064	A	KRE-111-1			낭자출궁(상)	방진관
67	LoenMT067	KJ1064	B	KRE-112-1			낭자출궁(하)	방진관
68	LoenMT068	KJ1065	A	KRE-109-1			강산유람(상)	구재회 김능사
69	LoenMT069	KJ1065	B	KRE-110-1			강산유람(하)	구재회 김능사
70	LoenMT070	KJ1066	A	KRE-152-1			한강수타령	심상건 김덕진 환경준 정해시 김매홍
71	LoenMT071	KJ1066	B	KRE-151-2			홍타령	심상건 김덕진 환경준 정해시 김매홍
72	LoenMT072	KJ1067	A	KRE-133-1			가난타령	김초향
73	LoenMT073	KJ1067	B	KRE-134-2			중타령	이소향 김덕진 정해시 한성준
74	LoenMT074	KJ1068	A	KRE-175-1			성주풀이	김소희 조명수 김세준 임소향
75	LoenMT075	KJ1068	B	KRE-176-1			농부가	김소향 조명수 임소향
76	LoenMT076	KJ1069	A	KRE-165-1			추풍감별곡(상)	박윤희
77	LoenMT077	KJ1069	B	KRE-166-1			추풍감별곡(하)	박윤희
78	LoenMT078	KJ1070	A	KRE-155-1			동그랑땡	김영환 정태자
79	LoenMT079	KJ1070	B	KRE-156-1			패물이용	김영환 정태자
80	LoenMT080	KJ1071	A	KRE-105-1			배뱅이굿(1)	김주호
81	LoenMT081	KJ1071	B	KRE-106-1			배뱅이굿(2)	김주호
82	LoenMT082	KJ1072	A	KRE-107-1			배뱅이굿(3)	김주호
83	LoenMT083	KJ1072	B	KRE-108-2			배뱅이굿(4)	김주호
84	LoenMT084	KJ1073	A	KRE-125-1			고당상(상)	김소희
85	LoenMT085	KJ1073	B	KRE-126-1			고당상(하)	김소희
86	LoenMT086	KJ1074	A	KRE-139-1			긴방아타령	구재회 김능사
87	LoenMT087	KJ1074	B	KRE-140-1			자진방아타령	구재회 김능사
88	LoenMT088	KJ1075	A	KRE-137-2			박석티(상)	김초향
89	LoenMT089	KJ1075	B	KRE-138-1			박석티(하)	김초향
90	LoenMT090	KJ1076	A	KRE-119-1			강상풍월	김소희
91	LoenMT091	KJ1076	B	KRE-120-1			옥중상봉	김소희
92	LoenMT092	KJ1077	A	KRE-177-2			세령산	빅타조선악단
93	LoenMT093	KJ1077	B	KRE-178-1			상현	빅타조선악단
94	LoenMT094	KJ1078	A	KRE-115-1			곡목미상	미상
95	LoenMT095	KJ1078	B	KRE-116-2			곡목미상	미상
96	LoenMT096	KJ1079	A	KRE-123-1			곡목미상	미상
97	LoenMT097	KJ1079	B	KRE-124-2			곡목미상	미상
98	LoenMT098	KJ1080	A	KRE-157-1			곡목미상	미상
99	LoenMT099	KJ1080	B	KRE-158-1			곡목미상	미상
100	LoenMT100	KJ1081	A	KRE-127-1			곡목미상	미상
101	LoenMT101	KJ1081	B	KRE-128-1			곡목미상	미상
102	LoenMT102	KJ1082	A	KRE-101-1			인호상	이소향
103	LoenMT103	KJ1082	B	KRE-149-2			이별가	이소향
104	LoenMT104	KJ1083	A	KRE-148-1			탈춤	김주호
105	LoenMT105	KJ1083	B	KRE-147-1			언문뒤풀이	김주호
106	LoenMT106	KJ1084	A	KRE-179-2			타령	빅타조선악단
107	LoenMT107	KJ1084	B	KRE-180-1			군악	빅타조선악단
108	LoenMT108	KJ1085	A	KRE-121-1			곡목미상	미상
109	LoenMT109	KJ1085	B	KRE-122-2			개타령	김옥엽
110	LoenMT110	KJ1086	A	KRE-143-1			망월상별(상)	김소희
111	LoenMT111	KJ1086	B	KRE-144-1			망월상별(하)	김소희
112	LoenMT112	KJ1087	A	KRE-135-2			소상팔경(상)	김초향
113	LoenMT113	KJ1087	B	KRE-136-1			소상팔경(하)	김초향
114	LoenMT114	KJ1088	A	KVE-105-2			신장타령	김영환
115	LoenMT115	KJ1088	B	KVE-106-2			추풍위기곡	신은봉
116	LoenMT116	KJ1089	A	KRE-145-1			삼고초려(상)	방진관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117	LoenMT117	KJ1089	B	KRE-146-1			삼고초려(하)	방진관
118	LoenMT118	KJ1090	A	KRE-173-2			취타	빅타조선악단
119	LoenMT119	KJ1091	A	KRE-711-1			사발가	김옥엽
120	LoenMT120	KJ1091	B	JRE-710-1			경기흥타령	김옥엽
121	LoenMT121	KJ1092	A	KRE-142-1			황성행	김소희
122	LoenMT122	KJ1092	B	KRE-141-2			이별가	김소희
123	LoenMT123	KJ1093	A	KRE-104-2			녹음방초	방진관
124	LoenMT124	KJ1093	B	KRE-150-2			조군자탄	방진관
125	LoenMT125	KJ1094	A	KRE-167-2			패성가	박월정
126	LoenMT126	KJ1094	B	KRE-168-1			제전	박월정
127	LoenMT127	KJ1095	A	KVE-103-2			사랑은학질(상)	김영환 신은봉
128	LoenMT128	KJ1095	B	KVE-104-2			사랑은학질(하)	김영환 신은봉
129	LoenMT129	KJ1096	A	JRE-712-1			수심가(상)	김옥엽
130	LoenMT130	KJ1096	B	JRE-713-1			수심가(하)	김옥엽
131	LoenMT131	KJ1097	A	KRE-159-1			곡예단(상)	김영환
132	LoenMT132	KJ1097	B	KRE-160-1			곡예단(하)	김영환
133	LoenMT133	KJ1099	A	JRE-1101-1			양산도	빅타조선악단
134	LoenMT134	KJ1099	B	JRE-1100-1			방아타령	빅타조선악단
135	LoenMT135	KJ1100	A	KRE-131-2			홍보집터닭는데(상)	김소향
136	LoenMT136	KJ1100	B	KRE-132-1			홍보집터닭는데(하)	김소향
137	LoenMT137	KJ1101	A	KRE-117-2			호접몽(상)	이소향
138	LoenMT138	KJ1101	B	KRE-118-1			호접몽(하)	이소향
139	LoenMT139	KJ1102	A	KRE-171-1			금일경	이정렬
140	LoenMT140	KJ1102	B	KRE-172-2			과경	이정렬
141	LoenMT141	KJ1103	A	KRE-163-1			기생점고(상)	심상건(가야금병창)
142	LoenMT142	KJ1103	B	KRE-164-1			기생점고(하)	심상건(가야금병창)
143	LoenMT143	KJ1105	A	KRE-161-1			광한루경치(상)	신향심
144	LoenMT144	KJ1105	B	KRE-162-1			광한루경치(하)	신향심
145	LoenMT145	KJ1106	A	KRE-129-2			일절통곡	이소향
146	LoenMT146	KJ1106	B	KRE-130-1			호리건곤	이소향
147	LoenMT147	KJ1107	A	KRE-236-1			एं터리연설	신불출
148	LoenMT148	KJ1107	B	KRE-237-1			말씀아닌말씀	신불출
149	LoenMT149	KJ1108	A	KRE-235-1			쑥대머리	임방울
150	LoenMT150	KJ1108	B	KRE-234-1			편시춘	임방울
151	LoenMT151	KJ1109	A	KRE-189-1			본조신고산타령	김난홍
152	LoenMT152	KJ1109	B	KRE-190-2			애원성	김난홍
153	LoenMT153	KJ1110	A	KRE-194-1			팔자없는출세(상)	황철 심영 지경순 김선초
154	LoenMT154	KJ1110	B	KRE-195-1			팔자없는출세(하)	황철 심영 지경순 김선초
155	LoenMT155	KJ1111	A	KRE-196-1			춘향전전편(1)광한루(상)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156	LoenMT156	KJ1111	B	KRE-197-1			춘향전전편(2)광한루(하)	정정렬 임방울
157	LoenMT157	KJ1112	A	KRE-198-1			춘향전전편(3)추천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158	LoenMT158	KJ1112	B	KRE-199-1			춘향전전편(4)책방독서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159	LoenMT159	KJ1113	A	KRE-200-1			춘향전전편(5)박년가약(상)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김소희
160	LoenMT160	KJ1113	B	KRE-201-2			춘향전전편(6)박년가약(하)	정정렬 박녹주 임방울
161	LoenMT161	KJ1114	A	KRE-202-2			춘향전전편(7)사랑가(상)	정정렬이화중선
162	LoenMT162	KJ1114	B	KRE-203-1			춘향전전편(8)사랑가(하)	이화중선김소희
163	LoenMT163	KJ1115	A	KRE-204-1			춘향전전편(9)춘향이별(1)	정정렬 박녹주 임방울 김소희
164	LoenMT164	KJ1115	B	KRE-205-2			춘향전전편(10)춘향이별(2)	박녹주 김소희
165	LoenMT165	KJ1116	A	KRE-206-1			춘향전전편(11)춘향가이별(3)	박녹주 김소희
166	LoenMT166	KJ1116	B	KRE-207-1			춘향전전편(12)춘향가이별(4)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167	LoenMT167	KJ1117	A	KRE-208-1			춘향전전편(13)춘향가이별(5)	임방울 김소희
168	LoenMT168	KJ1117	B	KRE-209-1			춘향전전편(14)오리정이별(1)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169	LoenMT169	KJ1118	A	KRE-210-1			춘향전전편(15)오리정이별(2)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김소희
170	LoenMT170	KJ1118	B	KRE-211-2			춘향전전편(16)오리정이별(3)	정정렬 박녹주 김소희
171	LoenMT171	KJ1119	B	KRE-213-1			춘향전전편(18)기생점고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임방울
172	LoenMT172	KJ1119	A	KRE-212-1			춘향전전편(17)신연맞이	정정렬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173	LoenMT173	KJ1120	A	KRE-214-1			춘향전전편(19)신관춘향을 부름(상)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임방울
174	LoenMT174	KJ1120	B	KRE-215-2			춘향전전편(20)신관춘향을 부름(하)	정정렬 박녹주 임방울 김소희
175	LoenMT175	KJ1121	A	KRE-216-2			춘향전전편(21)형장(1)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176	LoenMT176	KJ1121	B	KRE-217-1			춘향전전편(22)형장(2)	정정렬 김소희 박녹주
177	LoenMT177	KJ1122	A	KRE-218-1			춘향전전편(23)형장(3)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김소희
178	LoenMT178	KJ1122	B	KRE-219-2			춘향전전편(24)춘향하옥	정정렬 이화중선
179	LoenMT179	KJ1123	A	KRE-220-1			춘향전전편(25)옥중장탄(상)	박녹주
180	LoenMT180	KJ1123	B	KRE-221-1			춘향전전편(26)옥중장탄(하)	박녹주
181	LoenMT181	KJ1124	A	KRE-222-1			춘향전전편(27)이도령과거장	임방울
182	LoenMT182	KJ1124	B	KRE-223-1			춘향전전편(28)어사남원	임방울
183	LoenMT183	KJ1126	A	KRE-226-1			춘향전전편(31)박석티를들라	정정렬 이화중선 박녹주 임방울
184	LoenMT184	KJ1126	B	KRE-227-1			춘향전전편(32)어사춘향집을	이화중선 임방울
185	LoenMT185	KJ1127	A	KRE-228-2			춘향전전편(33)어사옥종의 춘향을찾아(상)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186	LoenMT186	KJ1127	B	KRE-229-2			춘향전전편(34)어사옥종의 춘향을찾아(하)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187	LoenMT187	KJ1128	A	KRE-230-1			춘향전전편(35)부사생일연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188	LoenMT188	KJ1128	B	KRE-231-1			춘향전전편(36)어사출두	정정렬
189	LoenMT189	KJ1129	A	KRE-232-1			춘향전전편(37)이화춘봉(상)	정정렬 박녹주 김소희
190	LoenMT190	KJ1129	B	KRE-233-2			춘향전전편(38)이화춘봉(하)	정정렬 박녹주 김소희
191	LoenMT191	KJ1150	B	KRE-282-1			강남강북	유선화
192	LoenMT192	KJ1151	A	JRE-1100-1	49073	A	명기명창	이중선(독창)
193	LoenMT193	KJ1151	B	JRE-1101-1	49073	B	옥중가	이중선(독창)
194	LoenMT194	KJ1152	A	KRE-262-2			서울의지붕밑	이인근
195	LoenMT195	KJ1152	B	KVE-154-2			청춘의악단	설도식
196	LoenMT196	KJ1153	A	KVE-148			우리임날보고	박단마
197	LoenMT197	KJ1153	B	KVE-146-1			등글등글삼시다	김옥진
198	LoenMT198	KJ1154	A	KRE-239-2			울어도탄식해도	표봉철
199	LoenMT199	KJ1154	B	KVE-150			어이하나요	안옥경
200	LoenMT200	KJ1155	A	KVE-143			울고싶은마음	김복희 전옥
201	LoenMT201	KJ1155	B	KVE-149			끝없는방랑	조영은
202	LoenMT202	KJ1156	A	KVE-135			내마음알아주세요	김복희
203	LoenMT203	KJ1156	B	KVE-141			구슬픈야곡	김복희
204	LoenMT204	KJ1157	A	KVE-137-2			새로동동못잊어요	김복희 김해송
205	LoenMT205	KJ1157	B	KVE-139			명랑한양주	김복희 김해송
206	LoenMT206	KJ1158	A	KVE-153-1			달려라청춘마차	조영은
207	LoenMT207	KJ1158	B	KRE-269-1			돌아라물레야	김조홍
208	LoenMT208	KJ1159	A	KRE-286-1			어느여자의일기	노벽화
209	LoenMT209	KJ1159	B	KRE-252-1			홀리간로맨스	김해송
210	LoenMT210	KJ1160	A	KRE-266-1			미련의꿈	황금심
211	LoenMT211	KJ1160	B	KRE-274-1			월광연	황금심
212	LoenMT212	KJ1161	A	KVE-142-2			술집의비애	김복희
213	LoenMT213	KJ1161	B	KVE-138-1			애꽃은달만보고	김복희
214	LoenMT214	KJ1162	A	KRE-255-1			신관장한몽(상)	심영 한은진
215	LoenMT215	KJ1162	B	KRE-256-2			신관장한몽(하)	심영 한은진
216	LoenMT216	KJ1164	A	KRE-192-2			유산가(상)	조모란 김연옥
217	LoenMT217	KJ1164	B	KRE-193-2			유산가(하)	조모란 김연옥
218	LoenMT218	KJ1165	A	JVE-5020-2	49206		버리지말아요	이애리수
219	LoenMT219	KJ1165	B	JVE-4668-1	49184		순정	이애리수
220	LoenMT220	KJ1166	A		49251	A	사랑에올음	최남용(독창)
221	LoenMT221	KJ1166	B		49251	B	서른신세	강석연(독창)
222	LoenMT222	KJ1167	A	JVE-8256-1	49330	B	이팔청춘	이규남
223	LoenMT223	KJ1167	B	JVE-6657-1	49330		사절가	김옥진
224	LoenMT224	KJ1168	A	JVE-5028-2	49199	A	롬펜행진곡(상)	윤혁 이애리수 최남용
225	LoenMT225	KJ1168	B	JVE-5029-2	49199	B	롬펜행진곡(하)	윤혁 이애리수 최남용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226	LoenMT226	KJ1169	A	JVE-4329-1	49154	B	고요한장안	이애리수
227	LoenMT227	KJ1169	B	KVE-3502-2	49125	B	황성의적	이애리수
228	LoenMT228	KJ1170	A	6608-1	49305	B	배짜는처녀	이은과
229	LoenMT229	KJ1170	B	JVE-5344	49233	A	삼수갑산	강홍식
230	LoenMT230	KJ1171	A	6619-1	49304	A	애상곡	김복희
231	LoenMT231	KJ1171	B	KVE-7113-1	49337	B	탄식하는술잔	김복희
232	LoenMT232	KJ1172	A	8384-1	49430	A	무정의꿈	김복희
233	LoenMT233	KJ1172	B	KVE-8385	49429	B	잊으시면몰라요	김복희
234	LoenMT234	KJ1173	A	7926			고달픈신세	이규남
235	LoenMT235	KJ1173	B	JVE-7787			미상	김복희
236	LoenMT236	KJ1174	A	KVE-6626-1	49307	A	능라도타령	김옥진
237	LoenMT237	KJ1195	A	KRE-352-1			베들가	김주월
238	LoenMT238	KJ1196	A	KRE-380-1			이별후의꿈-비맞은	김연수
239	LoenMT239	KJ1196	B	KRE-381-1			하루가고-이별후독수	김연수
240	LoenMT240	KJ1197	A	KRE-294-1			알려주세요	황금심
241	LoenMT241	KJ1197	B	KRE-341-1			뿌리칠사정	김홍길
242	LoenMT242	KJ1198	A	KRE-348-1			전쟁가(상)	김종조
243	LoenMT243	KJ1198	B	KRE-349-1			전쟁가(하)	김종조
244	LoenMT244	KJ1208	B	KRE-383-1			토끼배가르는데(하)	김연수
245	LoenMT245	KJ1209	A	KRE-333-1			애정의매듭	안옥경
246	LoenMT246	KJ1209	B	KRE-310-1			정원애사	노백화
247	LoenMT247	KJ1210	A	KRE-368-1			눈물섞인하소연	김복희
248	LoenMT248	KJ1210	B	KRE-319-1			술잔에뜨고향	이인근
249	LoenMT249	KJ1211	A	KRE-248-3			청성곡	이병우
250	LoenMT250	KJ1211	B	KRE-249-3			염불	이병우
251	LoenMT251	KJ1212	A	KRE-390-1			고고천변	김연수
252	LoenMT252	KJ1212	B	KRE-391-1			일절통곡	김연수
253	LoenMT253	KJ1213	A	KRE-335-1			화용도(상)	김종조
254	LoenMT254	KJ1213	B	KRE-336-2			화용도(하)	김종조
255	LoenMT255	KJ1214	A	KRE-241-2			홀러라낙동강	표봉천
256	LoenMT256	KJ1214	B	KRE-323-1			누구십니까	김조흥
257	LoenMT257	KJ1215	A	KRE-324-1			새희망은부른다	조영은
258	LoenMT258	KJ1215	B	KRE-343-1			청춘개가	빅타합창단
259	LoenMT259	KJ1216	A	KRE-373-1			가지말라우요	김복희
260	LoenMT260	KJ1216	B	KRE-363-1			나는싫어요	유선화
261	LoenMT261	KJ1217	A	KRE-318-1			열정무한	황금심
262	LoenMT262	KJ1217	B	KRE-314-1			잡들리는가수	이인근
263	LoenMT263	KJ1218	A	KRE-301-1			꿈꾸는시절	황금심
264	LoenMT264	KJ1218	B	KRE-331-1			서러운맥내	이규남
265	LoenMT265	KJ1219	A	KRE-308-1			곡목미상	미상
266	LoenMT266	KJ1219	B	KRE-295			미상(유행가)	미상
267	LoenMT267	KJ1220	A	KRE-306-1			곡목미상	미상
268	LoenMT268	KJ1220	B	KRE-320-1			곡목미상	미상
269	LoenMT269	KJ1221	A	KRE-296-2			곡목미상	미상
270	LoenMT270	KJ1221	B	KRE-374-1			곡목미상	미상
271	LoenMT271	KJ1222	A	KRE-378-1			염불	조선정악전습소원
272	LoenMT272	KJ1222	B	KRE-379-1			타령	조선정악전습소원
273	LoenMT273	KJ1223	A	7776	49389	B	미상(신민요)	미상
274	LoenMT274	KJ1223	B		49339	A	미상(신민요)	미상
275	LoenMT275	KJ1224	A	9130	49481	A	그대와가게되면	이규남 박단마
276	LoenMT276	KJ1224	B	8844	49466	B	사랑은소근소근	이규남 백구선
277	LoenMT277	KJ1225	A	JRE-6616-1	49305	A	무정	손금홍(독창)
278	LoenMT278	KJ1225	B	JVE-7112-2	49342	A	애닦은편지	손금홍
279	LoenMT279	KJ1226	A	JVE-8713-1			변연히아시면서	김복희
280	LoenMT280	KJ1226	B	9120	49482	A	순정의상아탑	이규남 김복희
281	LoenMT281	KJ1227	A	KRE-309-1			곡목미상	미상
282	LoenMT282	KJ1227	B	KRE-364-1			곡목미상	미상
283	LoenMT283	KJ1228	A	KRE-299-1			곡목미상	미상
284	LoenMT284	KJ1228	B	KRE-362-2			곡목미상	미상
285	LoenMT285	KJ1229	A	KRE-316-1			곡목미상	미상
286	LoenMT286	KJ1229	B	KRE-361-1			곡목미상	미상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287	LoenMT287	KJ1230	A	KRE-377-1			곡목미상	미상
288	LoenMT288	KJ1230	B	KRE-365-1			곡목미상	미상
289	LoenMT289	KJ1231	A	KRE-386-1			평조회상	조선정악전습소원
290	LoenMT290	KJ1231	B	KRE-387			취타	조선정악전습소원
291	LoenMT291	KJ1242	A	KVE-3460-2	49101	A	이별가	김초향 김소향(병창)
292	LoenMT292	KJ1242	B	KVE-3461-2	49101	B	춘향모와어사대면	김초향 김소향(병창)
293	LoenMT293	KJ1243	A	JVE-1186-2	49089	A	개성난봉가	신해중월 표연월(병창)
294	LoenMT294	KJ1243	B	JVE-1187-2	49089	B	이팔가	신해중월 표연월(병창)
295	LoenMT295	KJ1244	A	KVE-02014-1	49019	A	영변가(상)	백운선
296	LoenMT296	KJ1244	B	KVE-02015-3	49019	B	영변가(하)	백운선
297	LoenMT297	KJ1245	A	KRE-2020-1	49018		관산용마	백운선(독창)
298	LoenMT298	KJ1245	B	KRE-2021-1	49018	B	박연폭포가	백운선(독창)
299	LoenMT299	KJ1246	A	KVE-3481-2	49117	A	권주가	조모란 김연옥
300	LoenMT300	KJ1246	B	KVE-3472-1	49117	B	여창지름	조모란 김연옥
301	LoenMT301	KJ1247	A		49167	A	군밤타령	이애리수 강석연
302	LoenMT302	KJ1247	B	JVE-4351-2	49167	B	베를가	이애리수 강석연
303	LoenMT303	KJ1248	A	KVE-01936-1	49033	A	새타령	이동백
304	LoenMT304	KJ1248	B	KVE-01948-1	49033	B	세월가	이동백
305	LoenMT305	KJ1249	B	KVE-123-1	49475	B	상사구백리	박단마
306	LoenMT306	KJ1249	A	KVE-119-1	49475	A	날두고진정참말	박단마
307	LoenMT307	KJ1250	A	JVE-8542-1	49438	A	애상의가을	설도식
308	LoenMT308	KJ1250	B	JVE-8528-1	49438	B	사막의 여인	이규남
309	LoenMT309	KJ1251	A	JVE-8836-1	49473	B	혈어진쪽배	설도식
310	LoenMT310	KJ1251	B	KVE-133-1	49473	B	유정십년	안옥경
311	LoenMT311	KJ1252	A	KRE-396-1			여창에 기대여	황금심
312	LoenMT312	KJ1252	B	KRE-398-1			알곳은운명	임영일
313	LoenMT313	KJ1253	A	KRE-393-1			행복시대	조영은
314	LoenMT314	KJ1253	B	KRE-399-1			사랑의황금열차	송달협 김복희
315	LoenMT315	KJ1254	A	KRE-453-1			망향의가을밤	선우일선
316	LoenMT316	KJ1254	B	KRE-412-1			눈물도말랏소	김복희
317	LoenMT317	KJ1255	A	KRE-410-1			대답좀해주세요	박단마
318	LoenMT318	KJ1255	B	KRE-403-2			너는아느냐	임영일
319	LoenMT319	KJ1256	A	KRE-350-2			긴아리	김종조
320	LoenMT320	KJ1256	B	KRE-351-2			자진아리	김종조
321	LoenMT321	KJ1257	A	KRE-353-2			배뱅이굿(1)	김종조
322	LoenMT322	KJ1257	B	KRE-354-2			배뱅이굿(2)	김종조
323	LoenMT323	KJ1258	A	KRE-355-2			배뱅이굿(3)	김종조
324	LoenMT324	KJ1258	B	KRE-356-2			배뱅이굿(4)	김종조
325	LoenMT325	KJ1259	A	KRE-357-2			배뱅이굿(5)	김종조 김추월(조창)
326	LoenMT326	KJ1259	B	KRE-358-2			배뱅이굿(6)	김종조
327	LoenMT327	KJ1260	A	KRE-359-1			배뱅이굿(7)	김종조
328	LoenMT328	KJ1260	B	KRE-360-2			배뱅이굿(8)	김종조 김추월(조창)
329	LoenMT329	KJ1261	A	KRE-346-2			긴염불	김종조
330	LoenMT330	KJ1261	B	KRE-347-2			자진염불	김종조
331	LoenMT331	KJ1262	A	KRE-326-1			수심가	조기탁 김종조
332	LoenMT332	KJ1262	B	KRE-327-1			연음수심가	조기탁 김종조
333	LoenMT333	KJ1263	A	KRE-420-1			육거리음식점	이규남
334	LoenMT334	KJ1263	B	KRE-421-1			장모님전상서	이규남
335	LoenMT335	KJ1264	A	KRE-437-1			신혼여행(상)	김원호 김선초
336	LoenMT336	KJ1264	B	KRE-438-1			신혼여행(하)	김원호 김선초
337	LoenMT337	KJ1265	A	KRE-406-1			야월선유가	김진명
338	LoenMT338	KJ1265	B	KRE-407-1			간장타령	김진명
339	LoenMT339	KJ1266	A	KRE-395-1			아가씨감격	김복희
340	LoenMT340	KJ1266	B	KRE-401-1			포구의이별	황금심
341	LoenMT341	KJ1267	A	KRE-416-2			방아타령	김난홍
342	LoenMT342	KJ1267	B	KRE-431-1			영변가	김난홍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343	LoenMT343	KJ1268	A	KRE-415-1			개성난봉가	김난홍
344	LoenMT344	KJ1268	B	KRE-429-1			경복궁타령	김난홍
345	LoenMT345	KJ1269	A	KRE-413-1			사발가	김난홍
346	LoenMT346	KJ1269	B	KRE-414-1			한강수타령	김난홍
347	LoenMT347	KJ1271	A	KRE-441-1			투전불님	김종조 김난홍
348	LoenMT348	KJ1271	B	KRE-452-1			장타령	김종조
349	LoenMT349	KJ1272	A	KRE-448-1			다리굿(1)	김종조 박농옥
350	LoenMT350	KJ1272	B	KRE-449-1			다리굿(2)	김종조 박농옥
351	LoenMT351	KJ1273	A	KRE-450-1			다리굿(3)	김종조 박농옥
352	LoenMT352	KJ1273	B	KRE-451-1			다리굿(4)	김종조 박농옥
353	LoenMT353	KJ1274	A	KRE-456-1			그렇지만은요	박단마
354	LoenMT354	KJ1274	B	KRE-457-1			울터이야요	황금심
355	LoenMT355	KJ1275	A	KRE-405-2			당신입니다	황금심
356	LoenMT356	KJ1275	B	KRE-459-1			항구에서만남여자	임영일
357	LoenMT357	KJ1276	A	KRE-424-1			이별곡	안옥경
358	LoenMT358	KJ1276	B	KRE-455-1			다시만날때까지	조영은
359	LoenMT359	KJ1277	A	KRE-468-1			추억의두만강	송달협
360	LoenMT360	KJ1277	B	KRE-397-1			길실에핀꽃	김복희
361	LoenMT361	KJ1278	A	KRE-425-1			오림에자롱출현	김연수
362	LoenMT362	KJ1278	B	KRE-426-1			패군모이는데	김연수
363	LoenMT363	KJ1279	A	KRE-427-1			가자어서가자	김연수
364	LoenMT364	KJ1279	B	KRE-428-1			가던토끼돌아서며	김연수
365	LoenMT365	KJ1280	B	KRE-434-1			애달픈패배	김복희
366	LoenMT366	KJ1280	A	KRE-458-1			새겨진상처	안옥경
367	LoenMT367	KJ1281	A	KRE-422-1			정다운우리	박단마
368	LoenMT368	KJ1281	B	KRE-463-1			신혼명랑보	박단마 임경일
369	LoenMT369	KJ1282	A	KRE-465-2			안오시나요	황금심
370	LoenMT370	KJ1282	B	KRE-460-1			야멸찬심사	송달협
371	LoenMT371	KJ1283	A	KRE-461-1			아가씨수첩	이인근
372	LoenMT372	KJ1283	B	JSE-241-2			안달이로다	이규남
373	LoenMT373	KJ1284	A	KRE-367-1			무정한사람	조백오
374	LoenMT374	KJ1284	B	KRE-402-1			이별뉘들리	황금심
375	LoenMT375	KJ1285	A	KRE-394-1			봄피리	박단마
376	LoenMT376	KJ1285	B	KRE-411-1			날라리바람	박단마
377	LoenMT377	KJ1286	A	KRE-418-1			스리스리봄바람	이인근
378	LoenMT378	KJ1286	B	KRE-419-1			봄풍경	이규남 박단마
379	LoenMT379	KJ1287	A	KRE-466-2			섬색시하소	안옥경
380	LoenMT380	KJ1287	B	KRE-454-1			사랑푸념	선우일선
381	LoenMT381	KJ1288	A	JSE-229-1			이래야만옳겠소	이규남
382	LoenMT382	KJ1288	B	KRE-370-1			황혼의언덕길	조백오
383	LoenMT383	KJ1289	A	KRE-432-1			농담대회(상)	손일평 김원호
384	LoenMT384	KJ1289	B	KRE-433-1			농담대회(하)	손일평 김원호
385	LoenMT385	KJ1290	A	JVE-6210-1	49332	A	노래가락	손금홍
386	LoenMT386	KJ1290	B	JVE-6211-1	49332	B	창부타령	손금홍
387	LoenMT387	KJ1291	A	JVE-1164-2	49065	A	사랑가(상)	이중선(독창)
388	LoenMT388	KJ1291	B	JVE-1165-2	49065	B	사랑가(하)	이중선(독창)
389	LoenMT389	KJ1292	A	KVE-3499-2	49102	A	열차식당(상)	윤백남 윤혁 이애리수 전수린
390	LoenMT390	KJ1292	B	KVE-3500-1	49102	B	열차식당(하)	윤백남 윤혁 이애리수 전수린
391	LoenMT391	KJ1293	A	KVE-3497-2	49114	A	무엇이그들을울렸나(상)	윤혁 박월정 윤백남
392	LoenMT392	KJ1293	B	KVE-3495-2	49114	B	무엇이그들을울렸나(하)	윤혁 박월정 윤백남
393	LoenMT393	KJ1294	A	JVE-1130-1	49081	A	제비가(상)	표연월 신해중윌(병창)
394	LoenMT394	KJ1294	B	JVE-1131-1	49081	B	제비가(하)	표연월 신해중윌(병창)
395	LoenMT395	KJ1295	A	JVE-02008-1	49051	A	경방아타령	김계선(대금)
396	LoenMT396	KJ1295	B	KVE-2009-1	49051	B	양산도 청춘가	김상순(양금)
397	LoenMT397	KJ1296	A	KVE-01454-1	49015	A	죽장망혜	오태석(가야금병창)
398	LoenMT398	KJ1296	B	K-1955-1	49015	B	심봉사방아타령	오태석(가야금병창)
399	LoenMT399	KJ1297	A	KVE-121-2			아무렴그렇지	이규남 김복희
400	LoenMT400	KJ1297	B	KVE-132-1	49477	B	노들강초록물	김옥진
401	LoenMT401	KJ1298	A	JVE-7919-1			봄노래	이규남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402	LoenMT402	KJ1298	B	JVE-8827-1	49497	B	북국만리	설도식
403	LoenMT403	KJ1299	A	KVE-124-1			함경도아가씨	김복희
404	LoenMT404	KJ1299	B	JVE-9135-1			여인호소	안옥경
405	LoenMT405	KJ1300	A		49025	A	부친이별가(상)	이동백
406	LoenMT406	KJ1300	B		49025	B	부친이별가(하)	이동백
407	LoenMT407	KJ1301	A	KRE-1114-1	49054	A	장부한(상)	심상건(가야금병창)
408	LoenMT408	KJ1301	B		49054	B	장부한(하)	심상건(가야금병창)
409	LoenMT409	KJ1302	A	JVE-1118-1	49055	A	진양조(상)	백낙준
410	LoenMT410	KJ1302	B	JVE-1119-1	49055	B	진양조(하)	백낙준
411	LoenMT411	KJ1303	A	JVE-1120-1	49056	A	증머리(상)	백낙준
412	LoenMT412	KJ1303	B	JVE-1121-1	49056	B	증머리(하)	백낙준
413	LoenMT413	KJ1304	A	JVE-1160-1	49057	A	엇머리(상)	백낙준
414	LoenMT414	KJ1304	B	JVE-1161-1	49057	B	잔머리(하)	백낙준
415	LoenMT415	KJ1305	A	1144	49062	A	추월강산(상)	이중선
416	LoenMT416	KJ1305	B	JVE-1145-1	49062	B	추월강산(하)	이중선
417	LoenMT417	KJ1306	A	KVE-3546-2	49108	A	오빠생각	김순임(독창)
418	LoenMT418	KJ1306	B	KVE-3545-2	49108	B	카나리아	김순임(독창)
419	LoenMT419	KJ1307 (1037)	A	K-3528-2	49146	A	영감님 꽃밭	김순임
420	LoenMT420	KJ1307	B	KVE-3544-2	49146	B	병정나팔 뱃사공	김순임
421	LoenMT421	KJ1308	A	JVE-4311-1	49166	A	토끼화상	오태석(가야금병창)
422	LoenMT422	KJ1308	B	JVE-4312-1	49166	B	주부출궁	오태석(가야금병창)
423	LoenMT423	KJ1309	A	V -4645-1	49198	A	길군악(상)	최섬홍
424	LoenMT424	KJ1309	B		49198	B	길군악(하)	최섬홍
425	LoenMT425	KJ1310	A	KRE-417-1			원춘사	임영일
426	LoenMT426	KJ1310	B	KRE-330-2			정한의홍사등	조영은
427	LoenMT427	KJ1311	A	JSE-230-1			사랑시대	이규남
428	LoenMT428	KJ1311	B	KRE-369-1			천리에일을두고	조백오
429	LoenMT429	KJ1312	A	KRE-462-2			외로운남아	송달협
430	LoenMT430	KJ1312	B	KRE-423-1			여인의길	서옥자
431	LoenMT431	KJ1313	A	KRE-446-2			결혼도피(상)	김원호 지경순
432	LoenMT432	KJ1313	B	KRE-447-1			결혼도피(하)	김원호 지경순
433	LoenMT433	KJ1314	A	KRE-408-1			금드렁타령	김진명
434	LoenMT434	KJ1315	A	KRE-344-1			공명가(상)	조기탁
435	LoenMT435	KJ1315	B	KRE-345-1			공명가(하)	조기
436	LoenMT436	KJ1316	A	KRE-471-1			속아야웁습니까	안옥경
437	LoenMT437	KJ1316	B	KRE-473-1			청춘기록	송달협
438	LoenMT438	KJ1317	A	KRE-477-1			끓어진테이프	박단마
439	LoenMT439	KJ1317	B	KRE-470-1			외로운가로등	황금심
440	LoenMT440	KJ1318	A	KRE-500-1			만포선천릿길	황금심
441	LoenMT441	KJ1318	B	KRE-511-1			왜몰라주나요	박단마
442	LoenMT442	KJ1319	A	KRE-491-1			술취한진서방	김용환
443	LoenMT443	KJ1319	B	KRE-504-1			낙화유수호텔	김용환
444	LoenMT444	KJ1320	A	KRE-494-1			에누리(상)	김원호 손일평
445	LoenMT445	KJ1320	B	KRE-495-1			에누리(하)	김원호 손일평
446	LoenMT446	KJ1321	A	KRE-487-1			여사춘향을찾아(상)	김연수
447	LoenMT447	KJ1321	B	KRE-488-1			여사춘향을찾아(하)	김연수
448	LoenMT448	KJ1322	A	KRE-503-1			정어리타령	김용환
449	LoenMT449	KJ1322	B	KRE-508-2			눈깔면노다지	김용환
450	LoenMT450	KJ1323	A	KRE-498-1			청춘의바다	이규남
451	LoenMT451	KJ1323	B	KRE-513-1			임자없는나룻배	안옥경
452	LoenMT452	KJ1324	A	KRE-480-1			날테려가소	황금심
453	LoenMT453	KJ1324	B	KRE-514-1			가야금야곡	박단마
454	LoenMT454	KJ1325	A	KRE-482-1			서도무악	김종조
455	LoenMT455	KJ1325	B	KRE-483-2			안택경(하)	김종조
456	LoenMT456	KJ1326	A	KRE-502-2			꿈꾸는녹야	이규남
457	LoenMT457	KJ1326	B	KRE-366-1			단오아가씨	조백오
458	LoenMT458	KJ1327	A	KRE-496-1			팔도풍경(상)	김원호 김윤심
459	LoenMT459	KJ1327	B	KRE-497-1			팔도풍경(하)	김원호 김윤심
460	LoenMT460	KJ1328	A	KRE-489-1			옥중오경(상)	김연수
461	LoenMT461	KJ1328	B	KRE-490-1			옥중오경(하)	김연수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462	LoenMT462	KJ1329	A	KRE-384-1			상현	조선정악전습소원
463	LoenMT463	KJ1329	B	KRE-385-1			하현	조선정악전습소원
464	LoenMT464	KJ1330	A	KRE-481-1			기다리느처녀	박단마
465	LoenMT465	KJ1330	B	KRE-475-1			입술을깨물면서	황금심
466	LoenMT466	KJ1331	A	KRE-485-2			꽃대기숙제	황금심
467	LoenMT467	KJ1331	B	KRE-492-1			연인의무덤앞에	김용환
468	LoenMT468	KJ1332	A	KRE-486-1			골목의오전일급시	이규남
469	LoenMT469	KJ1332	B	KRE-507-2			천당과지옥	김용환
470	LoenMT470	KJ1333	A	KRE-472-1			보내는심정	황금심
471	LoenMT471	KJ1333	B	KRE-469-1			추장한구석	황금심
472	LoenMT472	KJ1334	A	KRE-478-1			처녀화원	박단마
473	LoenMT473	KJ1334	B	KRE-501-1			멋쟁이춘풍	박단마
474	LoenMT474	KJ1335	A	KRE-509-1			변할수있나요	박단마
475	LoenMT475	KJ1335	B	KRE-499-1			꽃망태아리랑	김용환
476	LoenMT476	KJ1336	A	KRE-512-1			가거라청색차	정근수
477	LoenMT477	KJ1336	B	KRE-493-2			깨어진단심	김봉명
478	LoenMT478	KJ1337	A	KRE-510-1			향수마차	송달협
479	LoenMT479	KJ1337	B	KRE-476-1			추억의탱고	황금심
480	LoenMT480	KJ1338	A	KRE-479-1			어리석은애정	박단마
481	LoenMT481	KJ1338	B	JSE-544-2			애상의마도로스	이규남
482	LoenMT482	KJ1339	A	KRE-505-1			서울팔면상(상)	김윤심
483	LoenMT483	KJ1339	B	KRE-506-1			서울팔면상(하)	김윤심
484	LoenMT484	KJ1340	A		49053	A	보렘(상)	이화중선 이중선(병창)
485	LoenMT485	KJ1340	B		49053	B	보렘(하)	이화중선 이중선(병창)
486	LoenMT486	KJ1341	A		49059	A	화초사거리(상)	이화중선 이중선
487	LoenMT487	KJ1341	B		49059	B	화초사거리(하)	이화중선 이중선
488	LoenMT488	KJ1342	A		49244	A	진양 중머리	강태홍
489	LoenMT489	KJ1343	A	JVE-1168-1	49083	A	방아타령	이중선 표연월(병창)
490	LoenMT490	KJ1348	B	KRE-533-2			심봉사황성가는데	김옥련
491	LoenMT491	KJ1349	A	KRE-517-1			수심가(상)	송연화
492	LoenMT492	KJ1349	B	KRE-518-1			수심가(하)	송연화
493	LoenMT493	KJ1350	A	KRE-565-1			서울뜰결심	김봉명
494	LoenMT494	KJ1350	B	KRE-548-1			가시면그만이지요	한인덕
495	LoenMT495	KJ1351	A	KRE-542-1			오림에자롱나오는데(상)	정광수
496	LoenMT496	KJ1351	B	KRE-543-1			오림에자롱나오는데(하)	정광수
497	LoenMT497	KJ1352	A	KRE-531-1			앞산타령	김난홍
498	LoenMT498	KJ1352	B	KRE-539-1			뒷산타령	김난홍
499	LoenMT499	KJ1353	A	KRE-549-1			상해아가씨	박단마
500	LoenMT500	KJ1353	B	KRE-555-1			원망스럽소	황금심
501	LoenMT501	KJ1355	A	KRE-540-1			경사거리	김난홍
502	LoenMT502	KJ1355	B	KRE-541-1			자진난봉가	김난홍
503	LoenMT503	KJ1356	A	KRE-582-1			곡목미상	미상
504	LoenMT504	KJ1356	B	KRE-583-1			곡목미상	미상
505	LoenMT505	KJ1357	A	KRE-520-1			곡목미상	미상
506	LoenMT506	KJ1357	B	KRE-550-1			곡목미상	미상
507	LoenMT507	KJ1358	A	KRE-544-1			오리정이별	김연수
508	LoenMT508	KJ1358	B	KRE-545-1			오리정에서돌아와서	김연수
509	LoenMT509	KJ1359	A	KRE-584-1			울지마라미나리	조백오
510	LoenMT510	KJ1359	B	KRE-576-1			첩첩청산	조백오
511	LoenMT511	KJ1360	A	KRE-577-1			심청의노래	황금심
512	LoenMT512	KJ1360	B	KRE-519-2			심봉사의탄식	김용환
513	LoenMT513	KJ1361	A	KRE-562-1			여로인생	김봉명
514	LoenMT514	KJ1361	B	KRE-578-1			곡목미상	황금심
515	LoenMT515	KJ1362	A	KRE-527-2			여로의조각달	송달협
516	LoenMT516	KJ1362	B	KRE-552-1			미풍의언덕	박단마
517	LoenMT517	KJ1363	A	JSE-554-1			곡목미상	미상
518	LoenMT518	KJ1363	B	KRE-567-1			곡목미상	황금심
519	LoenMT519	KJ1364	A	KRE-563-1			임의공공놀이	박단마
520	LoenMT520	KJ1364	B	KRE-575-1			맹세를말아요	조백오
521	LoenMT521	KJ1365	A	KRE-568-1			광야에서	황금심
522	LoenMT522	KJ1365	B	KRE-535-1			그리운눈동자	박단마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523	LoenMT523	KJ1366	A	KRE-566-1			물레방아	박단마
524	LoenMT524	KJ1366	B	KRE-574-1			치마폭눈물	조백오
525	LoenMT525	KJ1367	A	KRE-522-1			신사절가	김난홍
526	LoenMT526	KJ1367	B	KRE-524-1			몽금포타령	김난홍
527	LoenMT527	KJ1368	A	KRE-523-1			흥타령	김난홍
528	LoenMT528	KJ1368	B	KRE-521-1			닐리리아	김난홍
529	LoenMT529	KJ1369	A	KRE-530-1			창부타령	김난홍
530	LoenMT530	KJ1369	B	KRE-529-1			노래가락	김난홍
531	LoenMT531	KJ1370	A	KRE-444 (T-996-1)			코타령(상)	신불출 지경순
532	LoenMT532	KJ1370	B	KRE-445-1			코타령(하)	신불출 지경순
533	LoenMT533	KJ1371	A	KRE-623-1			심봉사눈뜨는데(상)	임옥돌
534	LoenMT534	KJ1371	B	KRE-624-1			심봉사눈뜨는데(하)	임옥돌
535	LoenMT535	KJ1372	A	KRE-601-1			월급날(상)	손일평 김선초 김원호
536	LoenMT536	KJ1372	B	KRE-602-1			월급날(하)	손일평 김선초 김원호
537	LoenMT537	KJ1373	A	KRE-621-1			긴아리	김춘홍
538	LoenMT538	KJ1373	B	KRE-618-1			타령	김춘홍
539	LoenMT539	KJ1374	A	KRE-630			덕담	하용남
540	LoenMT540	KJ1374	B	KRE-631-1			화청	하용남
541	LoenMT541	KJ1375	A	KRE-599-1			대보름달맞이	박단마
542	LoenMT542	KJ1375	B	KRE-629-1			반달뜨는밤	황금심
543	LoenMT543	KJ1376	A	KRE-627			십년간조각편지	김봉명
544	LoenMT544	KJ1376	B	KRE-617-1			눈물의반청춘	조백오
545	LoenMT545	KJ1380	A	KRE-665-2			오돌독	조백오 목계옥
546	LoenMT546	KJ1380	B	KRE-666-2			영산홍록	조백오 목계옥
547	LoenMT547	KJ1381	A	KRE-636-1			순정의길	송달협
548	LoenMT548	KJ1381	B	KRE-663-1			장모님전향의	송용환
549	LoenMT549	KJ1382	A	KRE-646-1			여성행로	황금심
550	LoenMT550	KJ1382	B	KRE-595-1			청춘문답	김봉명
551	LoenMT551	KJ1383	A	KRE-650-1			천하태평	김강남월
552	LoenMT552	KJ1383	B	KRE-651-1			왕왕연하다	김강남월
553	LoenMT553	KJ1384	A	KRE-430-1			곡목미상	미상
554	LoenMT554	KJ1386	B	KRE-571-1			곡목미상	미상
555	LoenMT555	KJ3001	A	KCR-119-2			애라의하루(상)	계혜련 신흥동인회
556	LoenMT556	KJ3001	B	KCR-120-2			애라의하루(하)	계혜련 신흥동인회
557	LoenMT557	KJ3002	A	KCR-101-1			보름담	진정희
558	LoenMT558	KJ3002	B	KCR-104-2			아기별	계혜련
559	LoenMT559	KJ3003	A	KCR-117-1			개구리유치원(상)	신흥동인회
560	LoenMT560	KJ3003	B	KCR-118-1			개구리유치원(하)	신흥동인회
561	LoenMT561	KJ3004	A	KCR-109-1			풍당풍당	계혜련
562	LoenMT562	KJ3004	B	KCR-107-1			제비말	진정희
563	LoenMT563	KJ3005	A	KCR-111-1			동리의원	계혜련
564	LoenMT564	KJ3005	B	KCR-108-2			햇빛은쟁쟁	진정희 계혜련
565	LoenMT565	KJ3006	A	KCR-121-2			뒋골목행진곡(상)	신흥동인회
566	LoenMT566	KJ3006	B	KCR-122-1			뒋골목행진곡(하)	신흥동인회
567	LoenMT567	KJ3007	A	KCR-123-1			나의생일(상)	신흥동인회
568	LoenMT568	KJ3007	B	KCR-124-1			나의생일(하)	신흥동인회
569	LoenMT569	KJ3008	A	KCR-114-1			참새의춤	계혜련
570	LoenMT570	KJ3008	B	KCR-110-1			수레	진정희
571	LoenMT571	KJ3009	A	KCR-106-2			오뎅이	진정희
572	LoenMT572	KJ3009	B	KCR-102-2			도리도리짜짜궁	계혜련 진정희
573	LoenMT573	KJ3010	A	KCR-127-1			홍보와제비(상)	신흥동인회
574	LoenMT574	KJ3010	B	KCR-128-2			홍보와제비(하)	신흥동인회
575	LoenMT575	KJ3011	A	KCR-115-1			봄이왔다(상)	신흥동인회
576	LoenMT576	KJ3011	B	KCR-116-2			봄이왔다(하)	신흥동인회
577	LoenMT577	KJ3012	A	KCR-103-1			멤멤	진정희
578	LoenMT578	KJ3012	B	KCR-105-2			병아리	계혜련
579	LoenMT579	KJ3013	A	KCR-137-1			콩쥐와팥쥐(상)	신흥동인회
580	LoenMT580	KJ3013	B	KCR-138-1			콩쥐와팥쥐(하)	신흥동인회
581	LoenMT581	KJ3014	A	KCR-135-2			숨바꼭질	계혜련 진정희
582	LoenMT582	KJ3014	B	KCR-130-1			저녁때	계혜련

일련번호	소장번호	음반번호	면	확장번호	초판번호	면	곡목	연주자
583	LoenMT583	KJ3015	A	KCR-113-2			곡목미상	계혜련
584	LoenMT584	KJ3015	B	KCR-112-1			곡목미상	미상
585	LoenMT585	KJ3016	A	KCR-139-1			곡목미상	신흥동인회
586	LoenMT586	KJ3016	B	KCR-140-1			곡목미상	신흥동인회

※ 자료제공 : 문화재 전문위원 ○○○

9) 소장번호 : 소장처에서 부여한 번호

10) 음반번호 : 빅타 주니어 발매번호, 음반 일련번호(시리얼 넘버)

11) 확장번호 : 초판으로 정규반을 만든 후 다시 빅타 주니어반(대중반)으로 제작될 경우 부여되는 번호로 이 빅타 주니어판의 경우에는 왁스반 번호일 가능성이 높음

12) 초판번호 : 최초로 정규반으로 발매될 때 부여되는 번호

붙임 2. 빅타 원반 시리즈 목록(1992~1993년 디지털 복각)

순번	음반번호	앨범명	트랙	수록곡명
1	SRCD-1087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	1-1	광한루(상)
2	SRCD-1089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2	1	<심상건> 단가 대장부한
3	SRCD-109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3	1	<김종조> 배뱅이굿(1)
4	SRCD-1107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4	1-1	할머니편지
5	SRCD-110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5	1	본조신고산타령
6	SRCD-1115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6	1	<춘향가> 이별가(일절통곡)
7	SRCD-1124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7	1	<이화중선, 이중선> 남도민요 보림
8	SRCD-1125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8	1	산조합주 증몰이
9	SRCD-1126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9	1	남도 무속음악 명당경
10	SRCD-1135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0	1	김여란, 김소희 초기녹음선집
11	SRCD-1136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1	1	<김종조> 전쟁가
12	SRCD-1141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2	1	축원경
13	SRCD-1142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3	1	잡가 새타령
14	SRCD-1143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4	1	<김옥엽> 긴수심가
15	SRCD-114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5	1	<백남준거문고산조> 진양
16	SRCD-1149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6	1	수심가
17	SRCD-115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샘플러1	1	춘향가 중 사랑가(이화중선 외)
18	SRCD-1163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7	1	여류명창걸작집 1
19	SRCD-1170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8	1	<이소향> 단가 흥문연가
20	SRCD-1201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19	1	가사 길군악
21	SRCD-1202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20	1	경기민요 개성난봉가(박연폭포)
22	SRCD-1225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가요1	1	김송규, 김복희 명랑한 양주
23	SRCD-1232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가요2	1-1	김용환 풀망태 아리랑
24	SRCD-1233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가요3	1-1	빅터합창단 청춘개가

※ 자료제공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붙임 3. 조선동요백곡집(1931년 재판본) 및 흥난과 동요인쇄 활판 목록 비교

구 분	조선동요백곡집		인쇄 활판	비 고
	곡 명	쪽		
1	속 임	7	○	
2	도레미파	8	○	
3	휘스바람	9	○	
4	할미꽃	10	○	
5	해바라기	11	○	
6	달마중	12	×	
7	쏘각빚	13	○	
8	조희배	14	○	
9	봄편지	15	○	
10	엄마생각	16	○	
11	두루맥이	17	○	
12	옴바생각	18	○	
13	수레	19	○	
14	고향의 봄	20	○	
15	아가야자장자장	21	○	
16	하모니카	22~23	○(2매)	
17	은행나무 아래에서	24	○	
18	식골길	25	○	
19	감동병아리	26	○	
20	나무넙	27	○	
21	뱃사공	28	○	
22	집신씩	29	○	
23	빨간가락뿔	30	○	
24	초생달	31	○	
25	낮에나온반달	32	○	
26	돌다리	33	○	
27	가을바람	34	○	
28	고향하늘	35	○	
29	풍당풍당	36	○	
30	병정나팔	37	○	

구 분	조선동요백곡집		인쇄 활판	비 고
	곡 명	쪽		
31	달	38	○	
32	무명초	39	○	
33	어머니다슴	40~41	○(2매)	
34	동리의원	42	○	
35	작은별	43	○	
36	박꽃아가씨	44	○	
37	골목대장	45	○	
38	바닷가에서	46	○	
39	어머니	47	○	
40	장미꽃	48	○	
41	봉사꽃	49	○	
42	옥톡기	50	○	
43	푸른언덕	51	○	
44	쫓겨난동생	52	○	
45	솔돼지	53	○	
46	노래를불너주오	54	○	
47	가을밤	55	○	
48	기력이	56	○	
49	참새	57	○	
50	밤세톨을굽다가	58	○	
계			51매	

※ 자료제공 : 문화재전문위원 ○○○

붙임 4. 흥난과 「음악만필 자필원고」와 「음악만필」(1938년 발간) 목차 비교

구 분	음악만필 자필원고	음악만필	비고
	33야화(三三夜話)	35야화(35夜話)	
제1야	진주의 선물	이탈리아 소녀	
제2야	이태리소녀	진주의 선물	
제3야	묘수(猫手)의 흉포(胸飽)	옛날의 적수	
제4야	「마스카니」의 제자	마스카니의 제자	
제5야	키쓰의 벼락	이별의 소야곡	
제6야	사교와 음악	사교와 음악	
제7야	극장에서 천당으로	극장에서 천당으로	
제8야	옛날의 적수	묘수의 흉포	
제9야	구랍의 이태고(二太鼓)	유럽의 2태고	
제10야	세계에 오직 3인	세계에서 오직 3인	
제11야	호접부인(胡蝶夫人)	<호접부인>	
제12야	카페의 전속 악가	주점의 전속 악사	
제13야	복수의 주배(酒盃)	복수의 술잔	
제14야	「뵐리니」의 비련	뵐리니의 비련	
제15야	극장으로!	극장으로!	
제16야	숙시숙비(孰是孰非)	불가능의 사람	
제17야	한 잔 물을!	한 잔 물을!	
제18야	프랑크의 기재(寄才)	프랑크의 기재	
제19야	쌍둥이 제금(提琴)	쌍둥이 바이올린	
제20야	입옥 자원(入獄 自願)	입옥 자원	
제21야	악성의 침실	악성의 침실	
제22야	연주가의 태도	연주가의 태도	
제23야	전쟁의 곡	<전쟁의 곡>	
제24야	술 먹지 않는 악기	술 먹지 않는 악기	
제25야	영광스런 봉욕(逢辱)	영광스러운 봉욕	
제26야	양금가(洋琴家)의 횡포	피아니스트의 횡포	
제27야	이별의 소야곡	키스의 벼락	
제28야	침묵의 이유	<영웅 교향곡>	
제29야	운작(雲雀)의 노래	침묵의 이유	
제30야	로렐라이의 유래	<카르멘> 작곡 비문	
제31야	악마의 진음(顫音)	종달새의 노래	
제32야	이상한 보물	<로렐라이>의 유래	
제33야	월광의 곡	<악마의 트릴>	
제34야		이상한 보물	
제35야		<월광의 곡>	
		논초 1속(論抄 1束)	
		동서 음악의 비교	
		가정 음악에 대하여	
		색채 음악에 대하여	
		재즈 음악에 대하여	
		음악가로서 본 세인의 청감	

구 분	음악만필 자필원고	음악만필	비고
	<p>세익스피어와 음악</p> <p>한시한필(閑時閑筆)</p> <p>문호 시성(文豪 詩聖)의 음악관 과거 악성(樂聖)의 수명 구미(歐美)각국의 실내악단 세계의 대표적 교향악단 3B 3S 3M 바너-와 십삼(十三) 음악과 건강 음악과 대머리 음악과 문(蚊) 카루소의 인후(咽喉) 진문진답(珍問珍答) 피아노와 물 색의 음계 사옹(沙壅)과 음악</p> <p>수문수록(隨聞隨錄)</p> <p>1 정차명령(停車命令) 2 1만불의 두발(頭髮) 3 피육적 냉소(皮肉的 冷笑) 4 1인 이중주 5 기막힌 절평(絶評) 6 폐물음악회(廢物音樂會) 7 이악이의 방해 8 대양금가(大洋琴家)의 명답 9 본직(本職)은 문지기 10 엄청난 음악학교 11 「대가(貸家)」라고 12 이것은 「봄」이다 13 30만원의 제금(提琴) 14 방송료 5만원 15 내 노래를 쫓아오시오 16 생명보다 돈 17 관람료 6만불 18 제2 바이올린을 19 날러갔습니다 20 기막힌 이악이 21 제1 제금(提琴)만으로 22 간부(姦婦)의 남편 23 이리 오라고 해라 24 시집을 가시오 25 대신(大臣)의 증명</p>	<p>세익스피어와 음악</p> <p>한시한필</p> <p>문호 시성의 음악관 과거 악성의 수명 구미의 저명한 실내악단 세계의 대표적 교향악단 음악과 건강 음악과 모발의 관계</p> <p>爐邊 100話</p> <p>정차명령 1만불의 두발 시니컬한 냉소 1인 2중주 기막힌 절평 폐물 음악회 이야기의 방해 피아니스트의 명답 본직은 문지기 엄청난 음악학교 '대가'라고 이것은 '봄'이다 30만원의 바이올린 방송료 5만원 내 노래를 생명보다 돈 관람료 6만불 제2 바이올린을 날아갔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제1 바이올린만으로 간부의 남편 이리 오라고 해라 시집을 가시오 대신의 증명</p>	

구 분	음악만필 자필원고	음악만필	비고
26	너머 소인수(小人數)	너무 소인수	
27	인두 시문(人頭 試問)	인두 시문	
28	문서(門書)와의 대화	문지기와와의 대화	
29	툭으로 연주	툭으로 연주	
30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31	휘파람의 인사	휘파람의 인사	
32	「원무곡(圓舞曲)의 왕」의 기지(奇智)	원무곡왕의 기지	
33	홀륭한 반주	홀륭한 반주	
34	「구세주」의 개작(改作)	구세주의 개작	
35	과도(過渡)의 예우(禮遇)	과도의 예우	
36	알뜰한 보물	알뜰한 보물	
37	생색 없는 수고	생색 없는 수고	
38	「마왕(魔王)」의 작곡	<마왕>의 작곡	
39	자화자찬	자화자찬	
40	천직(天職)은 불가피	천직은 불가피	
41	신동(神童)의 예사(禮射)	신동의 예사	
42	욕심많은 부인	욕심 많은 부인	
43	잠 안오는 「자장가」	잠 안오는 자장가	
44	모차르트의 실연(失戀)	모짜르트의 실연	
45		승려의 전직	
46		진기한 사례	
47		불행한 예언	
48		실가심 후가심	
49		말보다 실행	
50		관대한 찬사	
51		솔직한 고백	
52		악기 도살자	
53		영구의 결별	
54		순진한 변명	
55		돈견으로 상쟁	
56		동전이 없습니다	
57		죽어서는 손	
58		구원된 명기	
59		3B, 3S, 3M	
60		바그너와 13의 수	
		악성 연사(樂聖 戀史)	
		베토벤의 불구의 총자	
		리스트의 국제적 연애	
		쇼팽과 그의 연인	
	광상소곡(狂想小曲)	광상소곡(狂想小曲)	
		‘ALOHA OE’ !	
		난파의 생애	

※ 자료정리 : 문화재청

붙임 5. 배재학당 피아노 참고자료

■ <배재학당 피아노> 연주회 이력사항

연번	일시	연주자	연주회 제목
1	1933. 6. 8.	대강당신축 기념음악회	배재학당 창립 47주년 및 대강당신축 낙성식 기념 음악회
2	1944.	이흥렬 (작곡가, 배재교사)	(이흥렬) 연주회
3	1946. 9.	작곡가 김순남	<산유화> 발표회
4	1946. 11. 13.	바리톤 이경팔 반주 김순열	바리톤 이경팔 제1회 독창회 <겨울나그네> 초연
5	1946. 12. 20.	이인선, 김자경, 박민중, 김순열	성탄축하음악회
6	1947. 11.	일라이 헤이모위츠 (Ily Haimowitz)	일라이 헤이모위츠 피아노 고별연주회 (미군정 문교부 음악고문관)
7	1948. 5. 27~28	소프라노 정훈모 테너 김창락 바이올린 박민중 피아노 김순열, 이영희	5인 음악회
8	1948. 11. 20.	테너 박은용	박은용씨 독창회
9	1948. 10. 30.	첼로 전봉초	전봉초 첼로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학장, 예총회장 역임)
10	1948. 11. 12~13	테너 박은용 반주 이인형	박은용 제5회 독창회 (김순남, 임동혁, 김성태, 이건우 등의 작품 18곡)
11	1953. 9. 22~23	피아노 한동일 바이올린 이희춘	천재소년 음악가 유학고별 음악회
12	1953. 11. 3.	첼로 전봉초 바리톤 김노현 피아노 김원복 외	학생의 날 기념 예술제 (서라벌예술대학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
13	1954. 9. 14.	안종심, 정진우, 김노현, 김상두, 오현명, 전봉초, 손윤열, 이상춘 반주 윤연	국민음악연구회 제6회 <9월음악회>
14	1954.	피아노 김순열	김순열 제1회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교수 역임)
15	1955. 11. 22.	테너 이기영 반주 곽은수 찬조 첼로 전봉초	테너 이기영 제1회 독창회

■ 배재출신 주요음악가

연번	이름	재직(재학)기간	주요내용
1	작곡가 김인식	1916~1936 음악교사 재직	-양악전문 한국 최초의 음악가, 최초의 작곡가, 최초의 음악교육자 -〈학도가〉 작사작곡, 1905 -〈보통창가집〉 출간, 1912, 1922 -헨델의 〈할렐루야〉,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등 번역 -〈영산회상〉, 〈여민락〉 등 전통음악을 최초로 오선보 채보 작업 -홍난파, 이상준, 안기영, 홍재유, 이유선, 최성진, 이철 등 제자양성
2	작곡가 피아니스트 이홍렬	1937~1945 음악교사 재직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어머니의 마음〉, 1939 발표 -〈섬집아기〉, 〈진짜사나이〉 작곡 -〈바우고개〉, 〈부끄러움〉, 〈고향그리워〉,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 발표 -배재부임 직후 동요집 『꽃동산』 발간
3	안기영	1917 졸업	-한국 창작동요, 창작가곡의 개척자 -최초의 뮤지컬인 향토가극의 창시자
4	이철(이억길)	1928 졸업	-오케이레코드사 사장, 조선악극단 설립자 -대중가요분야 개척자
5	작곡가 이유선	1928 졸업	-대한음악가협회 초대 이사장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작곡
6	바이올리니스트 홍재유	1925 졸업 (5년제)	-초창기 바이올리니스트 -관현악 운동의 선구자 -배재학생 청년회 음악부장 활동
7	최성진	1933 졸업	-경기음악협회 초대 이사장 역임
8	신경욱	1953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역임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장 역임
9	한동일	1953~1954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10	송방송	1960 졸업	-국립국악원장,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역임 -한국음악사학회 이사장
11	이영조	1961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
12	백건우	1958~1960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13	박병훈	1966 졸업	-첼리스트
14	황보엽	1965 졸업	-바이올리니스트

※ 자료제공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6. 「한글 속기 교재」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남상천 저술의 「한글 속기 교재」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1.7.6)된 「한글 속기 교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11.7.21)를 실시하고, 문화재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남상천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한글 속기 교재」
- 소 유 자 : 남상천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

(3) 신청대상 개요

명칭	수량(점)	저자명	규격(cm)	발행일	비고
속기교본	1	남상천	12.2×18.1cm, 226쪽	1956.9.15	초판의 3판본
속기학(상)	1		15.0×20.7cm, 189쪽	1968.12.1	
속기학(하)	1		15.0×20.7cm, 201쪽	1969. 4.1	
속 기	1		15.0×20.7cm, 204쪽	19○○	문교부 검정필 (저자년1972년 주장)
속기학	1		15.0×20.7cm, 190쪽	1960.2.1	초판의 3판본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1		15.3×22.3cm, 73쪽	2004.10.9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	1		15.3×22.3cm, 59쪽	2004.10.9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1		15.3×22.3cm, 101쪽	2004.10.0	
계	8점				

(4)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조사('11.7.21) >

○ 문화재위원 ○○○

-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속기법이 국회·지방자치단체·행정부 등 속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의 구술정보를 기록정보로 변환하는 정보 전달 매체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는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문화재 등록을 위한 가치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남천식 속기는 실용성이나 대중성이 결여되어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남천식 한글속기교재 8종 중 속기교본과 속기 2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초판이 아닌 3판에 해당되므로 근대문화재 등록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나머지 6종은 현대 출판물이므로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이 아님

○ 대한속기협회 ○○○

- 남상천 저술의 수필속기 교재는 보존이 필요하나, 다른 수필속기교재들도 많이 있음

< 서울시 의견 >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2011.6.30) : 등록 불가

○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 서울시문화재위원 ○○○ : 연대가 오래되지 않고 희소성도 없으며 독창적 이거나 예술적 가치도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시문화재위원 ○○○, ○○○ : 속기 교육에 관한 내용과 그 과정을 이해 하는 유용한 자료이기는 하나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대문화재과 의견 >

- 속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속기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후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결과 : 부결

○ 등록예고 부결함

○ 출석 11명, 찬성 11명

붙임 한글속기교재 조사보고서('11.7.21) 1부

한글 속기 교재 조사보고서('11.7.21)

1. 명 칭 : 한글 속기 교재
2. 소 유 자 : 남상천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3. 대상물 개요
 - 명 칭 : 한글 속기 교재(한글 速記 教材)
 - 소 유 자 : 남상천(남천속기연구소 소장)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
 - 재 질 : 갠지·모조지
 - 판 종 : 활판본·전자출판본
 - 형 식 : 양장(포배장본)
 - 제작연대 : 1956년 이후
 - 수 량 : 8종

명칭	수량(점)	저자명	규격(cm)	발행일	비고
속기교재	1	남상천	12.2×18.1cm, 226쪽	1956.9.15	초판의 3판본
속기학(상)	1		15.0×20.7cm, 189쪽	1968.12.1	
속기학(하)	1		15.0×20.7cm, 201쪽	1969.4.1	
속 기	1		15.0×20.7cm, 204쪽	19○○	문교부 검정필 (저지는 1977.2발행 주장)
속기학	1		15.0×20.7cm, 190쪽	1960.2.1	초판의 3판본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1		15.3×22.3cm, 73쪽	2004.10.9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	1		15.3×22.3cm, 59쪽	2004.10.9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1		15.3×22.3cm, 101쪽	2004.10.0	
계	8점				

4. 취득 경위 : 소유자 창작품
5. 속기의 역사

우리말 속기를 발달사적으로 구분할 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누어 8·15 이전을 창안발안기로 보고, 8·15이후를 실용기와 성장기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속기의 실용화 여부를 기준으로 8·15이전의 속기를 비실용속기, 그 이후를 실용속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 비실용속기법식(해방이전)

근대 속기방식 연구는 1588년 영국의 T. 브라이트가 고안 발표한 속기방식이 최초이며, 그 후 현재와 같은 세계 공통의 속기방식이 보급된 것은 1837년 창안자 I. Pitman에 의해 Pitman식 속기법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의 경우 1909년 박여일(朴如日)이 하와이에서 ‘조선어속기법(朝鮮語速記法)’을 창안하여 <신한민보>에 발표한 것이 시초이다.

이어 1925년 방익환(方翼煥)·이원상(李源祥)이 공동 고안한 ‘조선어속기술(朝鮮語速記術)’, 1927년 김한터의 ‘우리말속기법’, 엄정우(嚴正友)의 ‘조선속기술(朝鮮速記術)’, 1934년 김용호(金勇虎)의 ‘조선속기법’, 1936년 강준원(姜駿遠)의 ‘강준원식’이 발표되었으나,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의하여 일반에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나. 실용화속기법식(해방이후)

8·15 광복 후인 1946년 장기태(張基泰) 고안의 ‘일파식(逸波式)’, 박송(朴松) 고안의 ‘한국식’이 발표된 데 이어, 1947년 박연태(朴寅泰)의 ‘중앙식’, 1948년 김천한(金天漢)의 ‘고려식’, 이동한(李東根)의 ‘동방식(東邦式)’, 1950년 김세중(金世鍾)의 ‘세종식(世鍾式)’, 1956년 남상천(南相天)의 ‘남천식(南天式)’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수립과 더불어 구성된 국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를 채용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강준원식·일파식·고려식·중앙식·동방식 등 우리말 속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68년 국회사무처에서 ‘의회식(議會式)’ 속기법이 새로 창안되어 기존의 일파식·동방식·고려식과 함께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등록 신청된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1956년 3월에 남상천이 이른바 남천식 한글 문자 속기법을 창안·발표한 이래 1956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의 활판본(1·2·3·4·5)과 전자출판본(5·6·7·8)이 혼재된 판본의 한글 속기 교육교재이다.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 >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한글 속기 교재(한글 速記 教材)
- 소 유 자 : 남상천(남천속기연구소 소장)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현대월드타워 1603호(남천속기연구소)
- 수 량 : 8종
- 규 격 : 다양(서지기술사항 참간)
- 재 질 : 갱지·모조지
- 판 종 : 활판본·전자출판본
- 형 식 : 양장(包背裝本)
- 조성연대 : 1956년 이후
- 현 상

□ 서지기술 :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1)

速記教本 / 남상천 저. -- 활판, 3판[실은 초판 3쇄본]. -- [서울] : 덕수출판사, 단기 4289(1956)년 9월 15일.

226 p. 삽화(속기호), 18.5×12.5cm. 갱지. 양장(포배장).

초판발행: 단기 4289(1956)년 3월 20일.

서: 단기 4289(1956)년 3월 1일 국립공무원훈련원 학감 신호선.

추천사: 단기 4289(1956)년 3월 1일 문교부기술교육국장 박철재.

머리말: 병신(1956) 초춘[3월] 저자 씀.

재판[실은 초판재쇄]을 내면서: 4289(1956)년 6월 15일 아현동일우[우]에서 저자 적음

(2)

속기학 / 남상천 저. -- 활판, 3판[실은 초판 3쇄본]. -- [서울] : 문림사, 단기 4293(1960)년 2월 1일.

190 p. 삽화(속기호), 20.5×14.9cm. 갱지. 양장(포배장).

초판발행: 단기 4290(1957)년 11월 1일

머리말: 단기 4290(1957)년 11월 1일 지은이 적음.

(3)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 / 남상천 저. -- 활판, 초판. -- [서울] : 대경문화사, 1968년 12월 1일.

189 p. 삽화(속기호), 20.6×14.7cm. 갱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 / 남상천 지음.

표제지: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 / 남상천 지음.

초판인쇄: 1868년 11월 25일.

머리말: 1968년 늦가을 지은이 씀.

(4)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 / 남상천 저. -- 활판, 초판. -- [서울] : 대경문화사, 1969년 4월 1일.

201 p. 삽화(속기호), 20.6×14.7cm. 갱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 / 남상천 지음.

표제지: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 / 남상천 지음.

초판인쇄: 1869년 3월 25일.

머리말: 1968년 늦가을 지은이 씀.

(5)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 남상천 지음. -- 활판, 초판. -- [서울] : 대경문화사, 19[73]년 □월 □일.

204 p. 삽화(속기호), 20.6×14.6cm. 갱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 남상천 지음. 대경문화사. 문교부검정필, 1973년 □월 □일 제□호.

표제지: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 남상천 지음. 대경문화사. 문교부검정필, 1973년 □월 □일 제□호.

특기: <국민교육헌장 1968년 12월 5일> 수록.

(6)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 / 남상천 지음. --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초판의 재쇄]. -- [서울] :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73 p. 삽화(속기호), 22.1×15.1cm. 모조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남천속기의 기본편)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 남상천 지음.

표제지: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 / 남상천 지음.

(7)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 / 남상천 지음. --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초판의 재쇄]. -- [서울] :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101 p. 삽화(속기호), 22.1×15.1cm. 모조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남천속기의 약본편)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 남상천 지음.

표제지: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 / 남상천 지음.

(8)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 남상천 지음. --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초판의 재쇄]. -- [서울] :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59 p. 삽화(속기호), 22.1×15.1cm. 모조지. 양장(포배장).

표제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 남상천 지음.

표제지: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 남상천 지음.

□ 현상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1956년 3월에 남상천이 이른바 남천식 한글문자 속기법을 창안·발표한 이래 1956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의 활판본(1·2·3·4·5)과 전자출판본(5·6·7·8)이 혼재된 판본의 한글 속기 교육교재이다.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현대월드타워 1603호의 남천속기연구소장 남상천의 소유이다. 사용된 紙質은 更紙와 모조지이며, 표지의 양장(포배장)이다.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남천속기연구소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내용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1956년 3월에 남상천이 한글문자 속기법을 창안·발표한 이래 남상천의 한글속기법에 관한 각종 저술로, (1) 「속기교재」를 1956년 3월 20일 발행의 초판을 발행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2) 「속기학」, (3)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 (4)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 (5)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6)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 (7)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 (8)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등과 같이 서명과 판차를 달리하여 간행된 저술이다.

□ 특징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의 「속기교재」은 판권지에 단기 4289(1956)년 9월 15일 발행의 ‘3판’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은 단기 4289(1956)년 3월 20일에 발행된 ‘초판의 3쇄’본이다. ‘재판을 내면서’에서의 ‘재판’은 ‘초판의 재쇄’를 의미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인쇄출판문화가 수입된 이래 근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인쇄·출판계에서는 서양의 ‘Edition

(版)'과 'Printing(刷)'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쇄차를 판차로 기록하는 것이 관습화되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본 「속기교재」는 단기 4289(1956)년 3월 20일에 초판이 발행된 후 단기 4289(1956)년 6월 15일에 초판의 재(2)쇄가 발행되고 단기 4289(1956)년 9월 15일에 초판의 3쇄가 발행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속기교재」가 이론과학적인 내용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실용과학적인 내용의 저술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이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정도가 현대적 개념의 판차를 달리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것임에서도 쉽게 짐작되는 것이다.

(2)의 「속기학」은 판권지에 단기 4293(1960)년 2월 1일 발행의 '3판'본으로 실은 단기 4290(1957)년 11월 1일에 발행된 '초판의 3쇄'본이다. 「속기학」 초판의 재쇄본은 언제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초판의 발행일과 3쇄본 발행일의 중간의 어느 시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3)의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1968), (4)의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1969), (5)의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1973), (6)의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2004), (7)의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2004), (8)의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2004) 등은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등록문화재의 적용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속기법이 국회·지방자치단체·행정부 등 속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의 구술정보를 기록정보로 변환하는 정보전달매체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 南相天 著, 速記教本. 活版, 3版[실은 初版 3刷本]. [서울], 德壽出版社, 檀紀 4289(1956).
- 南相天 著, 속기학. 活版, 3版[실은 初版 3刷本]. [서울], 文林社, 檀紀 4293(1960).
- 南相天 著,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 活版, 初版. [서울], 대경문화사, 1968.
- 南相天 著,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 活版, 初版. [서울], 대경문화사, 1969.
- 南相天 著,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活版, 初版. [서울], 대경문화사, 19[73].
- 南相天 著,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初版의 再刷]. [서울], 홍신문화사, 2004.
- 南相天 著,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初版의 再刷]. [서울], 홍신문화사, 2004.
- 南相天 著,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전자출판, 개정판[실은 初版의 再刷]. [서울], 홍신문화사, 2004.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
- <대한속기협회: <http://www.steno.or.kr>>
- <남천속기연구소: <http://www.namcheonsokki.com>>

○ 기 타

□ 소장·관리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현대월드타워 1603호의 남천속기연구소장 남상천의 소유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남천속기연구소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 속기법(shorthand)

속기는 무형의 음성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녹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초기에 손으로 쓰는 ‘수필속기’에서 시작하여 ‘타자기속기’를 거쳐 ‘컴퓨터 자판’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컴퓨터속기시대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따라 사람이 기록하기 힘들었던 부분까지도 속기록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속기방식 연구는 1588년 영국의 T. 브라이트가 고안 발표한 속기방식이 최초이며, 그 후 현재와 같은 세계 공통의 속기방식이 보급된 것은 1837년 창안자 I. Pitman에 의해 Pitman식 속기법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의 경우 1909년 朴如日이 하와이에서 ‘조선어속기법’을 창안하여 <신한민보>에 발표한 것이 시초이다. 이어 1925년 방익환·이원상이 공동 고안한 ‘조선어속기술’, 1927년 김한터의 ‘우리말속기법’, 엄정우의 ‘조선속기술’, 1934년 김용호의 ‘조선속기법’, 1936년 강준원의 ‘강준원식’이 발표되었으나,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의하여 일반에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8·15 광복 후인 1946년 장기태 고안의 ‘일파식’, 박송 고안의 ‘한국식’이 발표된 데 이어, 1947년 박인태의 ‘중앙식’, 1948년 김천한의 ‘고려식’, 이동근의 ‘동방식’, 1950년 김세종의 ‘세종식’, 1956년 남상천의 ‘남천식’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수립과 더불어 구성된 국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를 채용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강준원식·일파식·고려식·중앙식·동방식 등 우리말 속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68년 국회사무처에서 ‘의회식’ 속기법이 새로 창안되어 기존의 일파식·동방식·고려식과 함께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외국의 속기문자 구조는 자(尺)와 컴퍼스에 의한 기하학적 사분원을 기본원리로 하는 정원형과, 로마자의 필기체에서 사용되는 사선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선형, 정원형과 사선형을 절충한 정타원형, 타원형 등이 있으나, 한국 속기문자의 구조는 점·선·원·위치·방향·길이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의 기본원리를 혼합 활용한 정원형·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속기의 활용은 기록속기와 구술속기로 크게 구분된다. 기록속기는 각종 회의·재판·토론·강연·설교·대담·좌담회 등 사실적인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속기이며, 구술속기는 속기사와 상대자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속기하는 것으로 신문·통신관계의 전화속기에 의한 취재나 저술을 위한 속기, 간단한 메모, 일기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속기(速記, shorthand)>

□ 關聯 人物 事項

- 南相天(1929-): 남천속기연구소장
 - 1929 출생
 - 1956. 03. 20 ‘남천식’ 속기문자 창안 발표
 - 1957. 10. 01 남천속기연구소 설립

- 1957. 11. 05 학생 및 일반인용 「속기학」 교재 발간
- 1957. 12. 01 일반인, 행정·법원·경찰공무원에 대한 속기 교육(~ 1972. 06. 30, 주최: 남천속기연구소·한국속기교육협회)
- 1959 성균관대 법정대 법률학과 졸업
- 1958. 01. 05 전국실업계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속기강습회 개최(~ 1979. 08. 12. 21년간 24회 1,060명, 주최: 남천속기연구소·문교부 주관: 한국속기교육협회)
- 1964. 02. 05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용 「속기」 집필, 문교부 검정(제3344호) 교과서로 채택
- 1967. 01. 30 사단법인 한국속기교육협회 설립(문교부장관인가), 이사장 취임.
- 1969. 08. 04 전국 남·녀 중·고등·대학생들에 대한 무료속기 강습회 개최(~ 1979. 07. 31, 여름·겨울방학 중 각 10일씩, 주최: 한국속기교육협회 후원: 문교부)
- 1969. 11. 30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사업 실시 / ‘한글속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 (~ 1970. 10. 09)
- 1971 농림부 서기관
- 1973. 01. 0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용 교과서 「속기」 집필, 문교부검정(제3-230호)
- 1978 농협중앙회 검사부장
- 1978. 03. 01 문교부 저작 국정교과서 ‘속기’ 집필(실고5632호)
- 1984 식품가공업체 대경산업 대표
- 1984. 03. 10 「속기학」 전체를 정리한 「속기학전집」을 7권 집필 출간
- 1986. 09. 10 일반인용 「기초속기학입문」과 「속기연습장」 집필 출간
- 2002. 04. 01 서울 양천도서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속기학 특별강좌 실시
- 2002. 05. 10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남천속기의 기본편)」 발간
- 2002. 05. 21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 131명에게 속기학 특강
- 2002. 07. 19 경기 과천문화원에서 속기학 특별강좌
- 2002. 08. 21 성균관대학교 속기교육 성적우수자 2명에게 남천속기장학금 수여
- 2002. 10. 10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남천속기의 약법편)」 발간
- 2002. 11. 01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www.namcheonsokki.com) 개설
- 2002. 11. 27 경기도내 문화원에서 속기지도 담당할 요원 17명에 대하여,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속기지도
- 2003. 02. 14 성균관대학교 학생에게 남천속기장학금 수여
- 2003. 03. 05 천안대학교에서 교양선택과목에 ‘속기학’ 신설 지도
- 2003. 06. 13 천안대학교 학생에게 남천속기장학금 수여
- 2003. 09. 30 제1회 대학교 속기지도자교육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
- 2003. 10. 10 「바른기록을 위한 속기공부(기본편에 대한)」 저술
- 2003. 10. 10 남천속기연구소.com 한글도메인 서비스 실시
- 2003. 12. 09 천안대학교 학생에게 남천속기장학금 수여
- 2004. 03. 0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교양선택과목에 ‘속기학’ 신설 지도
- 2004. 03. 03 빠제로골프타운에서 주부 및 일반인 40명에게 ‘속기학’ 특별강좌

실시

- 2004. 03. 04 홍익대학교에서 교양선택과목에 ‘속기학’ 신설 지도
- 2004. 03. 08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교양과목에 ‘속기학’ 신설 지도
- 2004. 04. 06 제2회 대학교 속기지도자교육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
- 2004. 06. 21 홍익대학교에서 속기학 하계 계절학기 강좌
- 2004. 10. 09 속기학교재 3종(남천속기의 기본편·속기공부·약법편) 개편작업완성 발간
- 2004. 10. 09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www.namcheonsokki.com) 개편·확대완성 (남천속기의 기본편·속기공부·약법편·속기연습문제·속기연습지 등 수록)
- 2005. 01. 26 서울시내 중학교 속기지도교사교육
- 2005. 03. 02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속기학’ 교양선택과목 신설 지도
- 2005. 08. 08 전국 중학교 속기지도교사 교육 (성균관대학교)
- 2005. 10. 20 ‘남천식’ 속기학 교재 17종과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지도 교사 강습회 자료 12종 등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기증
- 2005. 11. 21 서울 중암중학교와 경기 경민여자중학교에서 속기경진대회 개최
- 2006. 07. 27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보충설명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홈페이지에 수록
- 2006. 08부터 성균관대학교 주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속기 특수연수 실시 (남천속기연구소 지원)
- 2008. 05. 13 남천속기의 약법편에 대한 보충설명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홈페이지에 수록

<출처: 남천속기연구소; <http://www.namcheonsokki.com>>

□ 등록 가치

조사본 <한글 속기 교재> 8종은 속기법이 국회·지방자치단체·행정부 등 속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의 구술정보를 기록정보로 변환하는 정보전달매체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는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문화재 등록을 위한 가치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 근거 기준

조사본 (1) 「속기교재」(1956), (2) 「속기학」(1960), (3)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1968), (4)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1969), (5)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1973), (6)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2004), (7)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2004), (8)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2004) 등 <한글 속기 교재> 8종 중 등록검토 대상의 시기적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1) 「속기교재」(1956)과 (2) 「속기학」(1960)의 2종이다.

조사본 (1)의 「속기교재」은 초판의 초쇄본이 아니라 초판의 3쇄본이며, (2)의 「속기학」도 초판의 초쇄본이 아니라 초판의 3쇄본이다. 이들 2종의 문화재는 이론과학적인 내용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실용과학적인 내용의 저술에 해당되며, 당시의 관습상 판차와 쇄차의

정확한 사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초판의 초쇄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 「속기교재」(1956)과 (2) 「속기학」(1960)의 2종은 희귀성의 관점에서 등록문화재의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며, (3)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상)」(1968), (4)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 (하)」(1969), (5)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1973), (6)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기본편)」(2004), (7)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남천속기의 약본편)」(2004), (8)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2004) 등은 시기적으로 등록문화재의 적용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사자 제안

속기는 무형의 음성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함으로써 구술정보를 기록정보로 변환하는 정보전달매체로 사용되어 왔다. 속기는 현재에도 현재 비록 기계식이지는 하나 국회·지방자치단체·행정부 등에서 실용되고 있다는 점과 속기관련 자료는 정보관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으므로 초기의 속기법과 관련된 자료는 일괄하여 수집·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속기관련 전문기관인 대한속기협회 등을 중심으로 ‘조선어속기법’, ‘조선어속기법’, ‘우리말속기법’, ‘조선속기법’, ‘조선속기법’, ‘강준원식’, ‘일파식’, ‘한국식’, ‘중앙식’, ‘고려식’, ‘동방식’, ‘세종식’, ‘남천식’ 등의 각종 속기법 관련 자료와 저술들을 일괄 수집하여 <한글 속기자료 일괄>의 건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 문화재전문위원 ○○○ >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한글 속기 교재(한글 速記 教材)
- 소 유 자 : 南相天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 현대월드타워 1603호(남천속기연구소)
- 수 량 : 8종(책)
- 규 격 : 서지사향 참조
- 재 질 : 갠지 및 모조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활판본 및 전자 출판본
- 형 식 : 洋裝
- 조성연대 : 1956~2004년
- 현 상 : 활판과 전자 출판본으로 인쇄하여 洋裝으로 제작한 출판 서적으로서 보존 상태는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속기란 쓰기 쉽고 읽기 쉬우며, 외우기 쉬운 點, 線, 圓, 位置, 文句, 길이 등으로 구성된 符號文字로서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속기는 실용화 여부를 기준으로 8.15광복 이전의 속기는 비실용속기, 그 이후를 실용속기로 구분한다. 실용속기 범식 창안은 광복 후인 1946년 張基泰의 ‘逸波式’, 金天漢의 ‘高麗式’ 朴松의 ‘韓國式’에 이어, 1947년 朴寅泰의 ‘中央式’, 1948년 李東根의 ‘東邦式’, 姜駿遠의 ‘서울식’, 1950년 金世鍾의 ‘世鍾式’, 1956년 南相天의 ‘南天式’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여러 방식의 속기법이 사용되어 오다가 정부수립과 더불어 구성된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배출하기 위한 계기로 강준원식·일파식·고려식·중앙식·

동방식 등 우리말 속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68년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속기사양성소가 개설되고 의회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때를 맞추어 연구 작업에 들어간 결과 1969년에 ‘議會式’ 속기법이 새로 창안되어 기존의 일파식·동방식·고려식과 함께 국회 및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속기록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기존의 수필속기에서 전산속기로 바뀌어 전산화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남상천이 창안·발표하여 저술한 남천식 한글 速記 敎材 8종(책)으로 1956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의 활판본(1·2·3·4·5)과 전자출판본(6·7·8)이 혼재된 판본의 한글속기 관련 교육교재이다. 서지사항 및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速記敎本

南相天 著. 活板(三版). [서울], 德壽出版社 刊. 檀紀 4289년(1956)9월 15일 發行.

1책(226p). 18.5×12.5cm. 罫지. 양장본.

체제는 標紙의 速記敎本. 南相天 著. 德壽出版社 刊 다음에 檀紀 4289년 3월1일 國立公務員訓練院 學監 申孝善의 序文, 檀紀 4289년 3월1일 文敎部技術敎育局長 朴哲在의 推薦辭, 丙申(1956) 初春 著者 쓴 머리말, 4289년 6월15일 阿峴洞一偶에서 '著者 識의 再版을 내면서' 가 차례로 실려 있고,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이 책은 檀紀 4289년(1956) 3월 20일에 初版 發行 이후 再版(6월)에 이어 9월에 발행한 3판에 해당된다.

2. 속기학

남상천 저. 活板(3판). 서울, 文林社, 단기 4293년(1960) 2월 1일 발행.

1책(190p). 20.5×14.9cm. 罫지. 양장본.

체제는 標紙의 속기학, 남 상천 지음, 서울 문림사 발행 다음에 '단기 4290년 11월 1일 지은이 적음'의 머리말과 일러두기, 차례, 본문 순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은 단기 4290년(1957) 11월1일 초판 발행에 이어 단기 4293년(1960) 2월 1일에 발행한 3판에 해당된다.

3. 속기학 (상)

남상천 저. 活板. 서울 대경문화사. 1968년 12월 1일 발행.

1책(189p). 20.6×14.7cm. 罫지. 양장본.

체제는 標紙에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상) 남상천 지음. 대경문화사 다음에 '1968년 늦가을 지은이 씀'의 머리말과 차례,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4. 속기학 (하)

남상천 저. 活板. 서울, 대경문화사. 1969년 4월 1일 발행.

1책(201p). 20.6×14.7cm. 罫지. 양장본.

체제는 標紙에 알기 쉽고 체계있는 속기학(하) 남상천 지음. 대경문화사 다음에 '1968년 늦가을 지은이 씀'의 머리말과 차례,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3·4번의 속기학은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은 1968년, 하권은 1969년에 발행되었다.

5. 속기

남상천 저. 活板. 서울, 대경문화사. 1973년 발행.

1책(204p). 20.6×14.6cm. 罫지. 양장본.

체제는 標紙에 실업계 고등학교 속기 남상천 지음. 대경문화사. 문교부 검정필 '1973년 월 일 제 호' 라고 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남상천의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보면 문교부 검정 제 3-230호이다. 이어 1968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민 교육 현장과 차례,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문교부 검정필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용 교과서로 1973년에 발행되었다.

6. 속기의 길잡이

남상천 지음. 전자출판. 서울,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개정판 발행.

1책(73p). 22.1×15.1cm. 양장본

체제는 表紙에 남천속기의 기본편. 남상천 지음.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標紙에는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남천속기의 기본편) 남상천 지음에 이어 본문이 수록되었다.

7. 속기의 길잡이

남상천 지음. 전자출판. 서울,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개정판 발행.

1책(101p). 22.1×15.1cm. 양장본

체제는 表紙에 남천속기의 약본편. 남상천 지음.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 標紙에는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남천속기의 약본편) 남상천 지음에 이어 본문이 수록되었다.

8. 속기공부

남상천 지음. 전자출판. 서울, 홍신문화사. 2004년 10월 9일 개정판 발행.

1책(59P). 22.1×15.1cm. 양장본

체제는 表紙에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남상천 지음. 바른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標紙에는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남상천 지음에 이어 본문이 수록되었다.

6·7·8번은 씨리즈로 위의(1·2·3·4·5) 내용을 서명과 편차를 달리하여 2004년에 출판되었다.

○ 문헌자료

국회속기사양성소, 『속기학』, 서울, 1977.

대한속기협회, 『韓國速記五十年史』, 서울, 1998.

○ 기 타

저자인 남상천이 1956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출판한 한글속기교재를 소장·관리하고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우리말 실용속기법식의 하나로 1956년에 창안한 남천식은 남상천이 발표한 가장 늦은 속기법식이다. 의회식이 창안되기 전에 주로 일파식·고려식·중앙식·서울식·동방식 등의 속기법식이 널리 보급되었고 의회식도 일파식·고려식·동방식 창안자들이 참여하여 연구되어 창안하였던 관계로 남천식 속기는 실용성이나 대중성이 결여되어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남천식 한글속기교재 8종 중 速記教本과 속기 2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초판이 아닌 3판에 해당되므로 근대문화재 등록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6종은 현대 출판물이므로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이 아니다.

< 대한속기협회 ○○○ >

○ 현 상

- 속기법에 의한 기록은 인간의 발음속도(분당 200음자이상 380음자, 평균 300음자)에 따라 가면서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현존하는 일반문자로는 (한글을 포함하여) 인간의 발음을 기록할 수 없어 속기문자가 고안되었음. 속기문자로 기록된 발음 내용은 다시 일반이 알아 볼 수 있는 일반 문자로 번문되어야 함
- 우리 말을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속기법은 일제시대에 창안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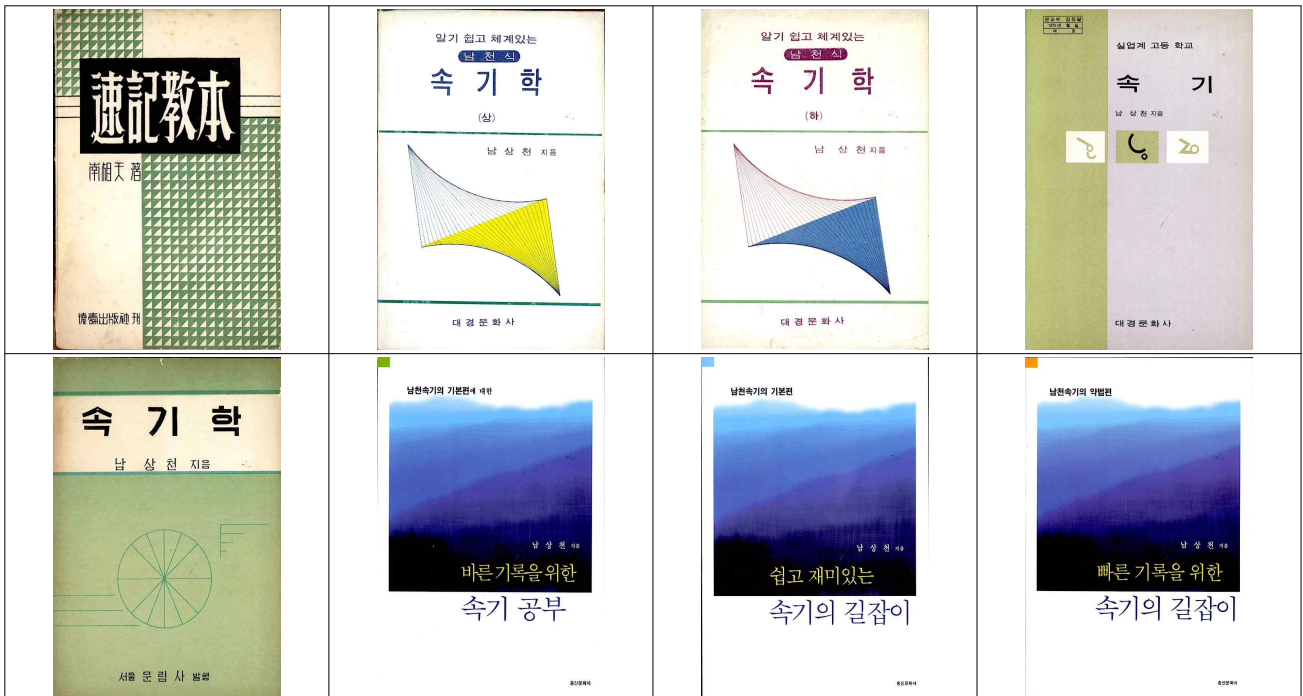
보급될 수 없었고 광복 후 우리말 속기법이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실무에 사용하기에 이룸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후 우리나라는 국권회복에 앞서 미 군정하에서 1946년 12월1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었고 이때부터 속기법에 의한 의회기록이 이루어졌으며 제헌국회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속기법에 의해 국회의 각종 회의록이 작성 보존되고 있음
- 속기법은 수필속기에서 기계속기, 컴퓨터속기로 발전하고 있음(장래에는 음성인식 컴퓨터에 의해 속기법이 필요없게 될지도 모르나 아직은 실현이 요원한 상태임)
- 심사대상인 8종의 한글속기교재는 수필속기교재로서 수필속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의회기록에 기여한 역할로 볼 때 그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남상천저 속기교본은 주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는 바 의회에서 실무에 사용된 속기법을 교육하는데 사용한 다른 교재들도 많이 있으므로 그들 교재들도 수집·등록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속기교재의 등록보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함
- 근현대사의 의회기록이 수필속기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왔으나 현재 컴퓨터속기가 수필속기를 대체하는 추세에 있어 수필속기법의 보존이 필요한 실정임
- 금번 신청한 교재 외에도 다양한 수필속기교재가 있으므로 이들 교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등록·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 신청대상 사진



7.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09.06.16)된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3.17)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원불교(이사장 이화택)
- (2) 대상문화재 :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3번지, 산8번지(정관평 제명바위)
 -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원불교
- (3) 신청대상 개요

구분	영산대각전	영산원	영산학원실	법모실	신성실	적공실	정관평 제명바위
건축구조	목구조 합석지붕	한식목조 초가	한식 목조 합석지붕			한식 목조 기와지붕	시멘트판 음각글씨
준공일	1936년 12월	1918년	1923년	1924년	1940년대후반	1940년대초반	1919년
건축면적	218.28㎡	71.52㎡	83.90㎡	57.72㎡	26.06㎡	79.90㎡	
건축규모	1층						90*45cm

- (4)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3.17)>

- 문화재위원 ○○○
 - 개별건물의 문화재 등록(지정) 보다는 성지 전체 또는 주요한 영역(생가와

구간도실 일원 / 영산원 일원)을 보호구역으로 한 성지 일원을 지방문화재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영산대성지는 특정한 형식의 건축물들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원불교가 시작된 터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터가 등록문화재가 등록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임

○ 문화재전문위원 ○○○

- 원불교 발상 성지로서 ‘터’와 장소로서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적 또는 지방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으로는 역사성이 미흡하므로 지방 기념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으로 판단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영광에 위치한 영산대성지는 원불교가 익산성지 건립 이전에 최초로 교문을 열은 곳으로, 등록신청 건물 중 영산대각전, 영산학원실, 영산원은 벽체 등이 변형되었으나, 건물규모, 구조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원불교 교단의 초기 건물들로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어 이들 3동을 문화재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그 명칭은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및 부속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검토결과 : 조건부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 조건부 가결
 -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을 등록예고함
- 출석 11명, 찬성 11명

붙임 : 원불교 영산대성지 조사보고서('11.3.17) 1부

원불교 영산대성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원불교 영산대성지 (구) 원불교 영산대성지
2. 용 도 : (현) 교회 (원) 교회
3.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3번지, 산8번지(제명바위)
4. 소유자 : (현) 재단법인 원불교 (원) 재단법인 원불교
 - 현소유자 주소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5. 건축물 개요

- 설계/시공자 : 미상

구분	영산대각전	영산원	영산학원실	법모실	신성실	적공실	정관평 제명바위
건축구조	목구조 합석지붕	한식 목조 초가	한식 목조 합석지붕			한식 목조 기와지붕	시멘트판 음각글씨
준공일	1936년 12월	1918년	1923년	1924년	1940년대후반	1940년대초반	1919년
건축면적	218. 28㎡	71.52㎡	83.90㎡	57.72㎡	26.06㎡	79.90㎡	
건축규모	1층						90*45cm

6. 구조 및 양식

가. 건축양식

명칭	건축양식
영산대각전	일식 목구조에 우진각 합석지붕을 올린 종교적 집회용 대형홀이 형성된 강당형 건물
영산원	자연석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기등을 세운 한식 목조 초가로 전면 5칸 측면 2칸이며 전면과 후면 일부에 뒷마루가 있음
영산학원실	영산원과 유사한 우진각 지붕의 초가 건물이었으나 합석지붕으로 변형되었음.
법모실	원래는 영산원 앞마당 우측에 창고로 지은 4칸 초가로 추후 개조해 사가(私家), 기숙사, 교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순례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합석지붕으로 변형되었음.
적공실	원래는 초가지붕의 개량한옥으로 4칸 겹집에 처마 끝에 합석차양이 있었으며 영빈관으로 사용되었으나, 합석지붕으로 변형된 상태임.
신성실	원래는 3칸 초가지붕의 한옥으로 영산 학원의 식당으로 사용.
정관평제명바위	정관평 제명바위는 자연석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문을 새긴 기념비

나. 주요특징

<공통>

- 영산성지는 원불교가 1916년 창교되어 초기 활동을 하였던 성지로 익산성지와 더불어 원불교 2대성지로 역할하고 있으며, 현재 교조 탄생가, 대각전, 영산원 등 초기 활동

당시의 유적을 다수 보존하고 있음. 영산성지는 그 동안 사용용도에 맞춰 보수하여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건축물들이 큰 특징이나 가치를 갖추고 있기 보다는 원불교 대종사의 탄생지로서 또한 원불교가 탄생된 지역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금번 신청한 6동의 건물과 1기의 기념비 중 현재 영산성지에서 대각전이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종교적으로도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최초의 교당이었던 구간도실을 이축한 영산원은 초가의 민도리집으로 정면 5칸에 측면 3칸으로 구성이 되어 가운데만 큰 공간으로 두고 양쪽이 똑 같이 나누어져 있음. 영산대각전은 집회공간으로 가운데 기둥이 없이 무주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건물별 특징>

명 칭	특 징
영산대각전	일식 목구조에 정면과 측면의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정면에는 미단이, 측면에는 여단이문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사면에 미단이 유리창문을 설치하고, 외벽 하부는 인조석 물씻기로 마감하였음 내부평면은 종축이 긴 직사각형의 강당형태로 정면 출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넓은 홀이 있고, 맨 끝에 좌우 기둥에 의해 분절된 한단 높은 단이 있음. 단 뒷벽 중앙 벽감에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이 봉안된 불단이 위치하고, 불단 뒤는 준비실이 있음
영산원	원래 소태산 대종사가 저축조합운동과 방언공사 시 1918년 구수산 옥너봉 아래에 건축한 사무소 및 집회장이었는데 192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교당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임. 1918년 옥너봉 아래에 지었던 건물은 원불교 최초의 교당으로 9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구간도실(九間道室)’이라 불렀음
영산학원실	1923년 옥너봉 아래의 영산원을 이곳으로 이전 시 영산원 좌측에 지은 8칸 규모의 우진각 지붕 건물임. 1927년 영산학원 설립 후 학원생들의 교실과 숙소로 사용하였음. 지붕은 초가에서 골스레이트로 다시 합석지붕으로 교체되었음
범모실	옥너봉 아래의 영산원을 이곳으로 이전한 후 1924년 영산원 우측에 지은 4칸 규모의 우진각 지붕 건물이다. 후에 개조해 사가(私家), 기숙사, 교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순례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 지붕은 초가에서 합석지붕으로 교체되었음. 2대 종범사 정산 송규의 사가로 사용되었던 집이라 하여 ‘범모실’이라 부름
신성실	옥너봉 아래의 영산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8칸 2동을 건축하여 1동은 학원실로 1동은 식당 겸 생활관으로 사용하다가 1940년대 후반에 헐고 3칸의 영산학원의 식당으로 지은 건물임. 건축 당시에는 목구조 초가지붕이었으나, 관리상의 문제로 아연지붕으로 개량하였음

적공실	4칸 겹집에 처마 끝에 함석차양을 두는 등 일식 영향을 받은 개량한옥임
정관평 제명바위	옥녀봉 아래에 위는 바위로, 1919년 정관평 방언공사 준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멘트 명판에 간척공사 기간과 참여인의 이름을 적어놓은 바위

7. 연혁 및 수리기록

명칭	연혁 및 수리기록
영산대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6년 10월 착공 ○1936년 12월 준공 ○1971년, 1978년, 1984년 보수공사 ○1986년 내부 마루바닥 및 불단, 창문과 출입문 보수
영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8년 10월 착공 ○1918년 12월 준공 ○1923년 현재 위치로 이전 ○1986년 개수 ○2011년 현재 개수공사 중
영산학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3년 10월 착공 ○1923년 12월 준공 ○1927년 영산학원 설립 후 학원생들의 교실과 숙소로 사용 ○1956년 정관평 간척사업 시 일부를 방언공사 사무실로 사용 ○1974년 원광원 건축 이후 학생들의 동아리방과 학생회실로 사용 ○1996년 출입문 수리 ○2004년 지붕의 골스레이트를 함석지붕으로 교체
법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4년 초 건축 ○1924년 말 2칸을 개조해 사가로 사용 ○1963년 이후 영산선원 원장 숙소, 학원생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 ○2011년 현재 순례객 숙소로 사용
적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0년대 초반 초가 개량한옥으로 건축하여 영산 영빈관으로 사용 ○1950년 한국전쟁 후 영산고아원으로 사용하였고, 고아원 이전 후 영산선원 기숙사로 사용 ○1984년 보수공사, 초가를 기와로 바꿈 ○1990년부터 영산선학대학교의 교수 숙소로 사용 ○2011년 현재는 순례객 숙소로 사용
신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0년대 후반 초가 한옥으로 건축하여 영산학원 식당으로 사용 ○1950년대 숙소로 사용 ○1960년대 영산학원 기숙사로 사용 ○1990년부터 순례객 숙소로 사용
정관평 제명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건립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영산대각전>

- 수차례의 보수를 통해 마감 재료의 변화가 있고, 외벽 하부 벽체 일부가 변형되었으나, 일식목조의 건축형식과 분위기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음

<영산원>

- 이전과 수차례의 보수를 통해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지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개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영산학원실, 법모실, 적공실, 신성실>

- 수차례의 보수를 통해 마감재료 등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음

<정관평 제명바위>

- 비문을 새긴 시멘트 부분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공통>

-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에서 하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저수지가 있는 전형적 농촌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통행량이 많지 않은 매우 한적한 전원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 보존·활용을 위한 주변환경은 양호한 상태
- 현재 원불교의 주요 성지순례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주변은 개발압력이 약한 농촌으로 종교문화체험 테마 성지로 활용이 가능함
- 현재 원불교 측에서 발상 성지로서 의미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 동안 사용용도에 맞춰 임의적으로 보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본래의 용도와 건축형식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보존·활용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

- 원불교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

- 영산성지는 원불교의 발상지로서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하고 구도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 교문을 열어 교화를 시작한 원불교의 근원성지(根源聖地)임
- 이곳에는 교조의 생가를 비롯하여 구도지인 구수산 삼밭재 마당바위와 선진포 나루터, 깨달음을 얻은 노루목 대각터, 제자들과 저축조합운동을 펼치고 방언공사를 이룬 정관평, 양성평등의 교육장인 영산학원실과 기숙사, 집회(법회)를 가졌던 영산대각전, 한국전쟁 후 고아들을 돌보았던 적공실 등 원불교의 중요한 사적지가 산재해

있음

- 근대기 민족종교로 창설되어 세계종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원불교의 발상지로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고,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종교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충분함
- 함께 신청한 영산원 일원의 개별 건축물(5개동)은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 보다는 역사적, 장소적 가치가 높으며, 그 중 영산대각전은 원불교의 종교적 상징성을 잘 드러낸 교당(법당)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별건물의 문화재 등록(지정) 보다는 성지 전체 또는 주요한 영역(생가와 구간도실 일원 / 영산원 일원)을 보호구역으로 한 성지 일원을 지방문화재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유사한 사례로 원불교 익산성지(건물 8동, 석물 2기, 등록문화재 제179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영산성지일 경우 현재로서는 주변이 비교적 개발가능성이 적으므로 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사적지 전체를 보존(면적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를 지방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할 시 “원불교 영산성지”로 영산대각전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 영산대각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문화재전문위원 ○○○>

- 영산대성지에 남아 있는 각각의 건물들은 등록기준점인 50년이 되지 않았고, 건축적 형식에서도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마도 이는 특정형식을 고집하지 않는 원불교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됨. 독특하기 보다는 일상적 삶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원불교가 만들어진 이곳에서도 그에 따른 정신이 잘 표현되고 있음. 등록 혹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들보다는 대중사의 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영산대성지는 특정한 형식의 건축물들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원불교가 시작된 터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터가 등록문화재가 등록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임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원불교 영산대성지로 하는 것이 좋겠음

<충청대학교수 교수 ○○○>

- 금번 신청한 6동의 건물과 1기의 기념비 중 현재 영산성지에서 건축원형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종교적으로도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이 큰 대각전이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대각전은 내부와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되었지만 일식목조의 건축형식과 분위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에 기둥이 없이 세장한 외벽기둥들에 의해 대규모 무주공간(無柱空間) 홀을 형성한 점이 특이
- 또한 원불교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대각전’이라는 종교집회용 건물의 전형적 건축형식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수평성이 매우 강한 내부공간을 형성하였다는 점도 특이

- 영산성지는 대표적 민족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건물 보다는 ‘터’와 장소로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지만, 성지 전체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상의 측면에서 영산성지 대각전은 건축형식이 유사한 익산성지 대각전(1935년 건축)이 이미 등록문화재 제179호로 등록되어 있지만, 영산성지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할 때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서 자체적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대각전은 현재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서 외벽 하단부 등 그 동안 일부 변형된 부분을 원형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유적도 전체적으로 체계적 보존을 통해 그 동안 변형되거나 왜곡된 건축원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원불교 발상 성지로서 ‘터’와 장소로서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적 또는 지방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으로서는 역사성이 미흡하므로 지방 기념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으로 판단됨
- 현장 조사 당시 영광군 담당자는 그 동안 지역의 문화재 지정, 보존 양상과 종교간 정서를 고려할 때 지방 기념물로의 지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신청대상 사진



보 고 사 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1-04-008

8. 사적 제497호 「이화장」 호우 피해 보고

가. 보고사항

2011.7.27(수) 09:50에 사적 제497호 「이화장」의 후면 산사태로 본관 벽체가 파손되고 토사가 건물내부로 유입되어 다음과 같이 피해가 발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나. 주요내용

- 문화재 현황
 - 대상 : 이화장(사적 제497호, '09.4.28 지정)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1937년 건립, 본관·조각당 등 7동, 연면적 468㎡)
 - 소유자 : 이인수 외 1인(이승만 대통령 양자, 81세)
- 피해현황
 - 산사태로 본관 후면 벽체가 파손되고 토사가 건물 내부로 유입
 - 본관 배면 창고 및 부엌 벽체 파손
 - 본관 유물 전적류(신문, 회보 등) 및 일부 복제 가구류 훼손
- 조치사항(종로구청)
 - 본관 배면 토사 유실 부분 비닐·흙마대 등으로 보호조치 및 유실된 토사 일부 반출
 - 훼손된 유물 등은 본관 및 창고에 임시 보관
 - ※ 동원 인원 : 124명(공무원 2명, 전경 60명 등 2일간)
- 우리청 검토사항
 - 문화재 피해복구 비용 : 200,000천원(추정액)
 - 배면 석축정비 : 40m×750,000=30,000천원
 - 본관 건물 보수 : 1식×150,000천원=150,000천원
 - 유물 보존 처리 : 1식×20,000천원=20,000천원
 - '1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적 제121호 서울 사직단 정비 사업 추진 중 우선 집행잔액 사용토록 지침변경 통보하고, 부족 예산은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차액 지원 검토
 - 훼손된 전적류 유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보존처리 예정임(대전 국가기록원장)
 - 복구시에는 ○○○ 등 4명 자문위원의 의견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
(배면에 덧달아 놓은 건물 철거, 파손 벽체 복원, 하부 석축 쌓기)

다. 보고결과 : 원안접수